

최종보고서

2014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2014. 12. 26.





1. 제1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01
2. 제2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11
3. 제3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43
4. 제4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67
5. 제5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105
6. 제6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141

2014 제1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 포럼 주제 선정 및 태권도 현황에 대한 자유 토론 -



태권도연구소

1 개요

구 분	내 용
• 행 사 명	제1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 주 제	포럼 주제 선정 및 태권도 현황에 대한 자유 토론
• 일 시	2014.05.31.(토), 10:00~13:00
• 장 소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1층 AREX- I
• 주 최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 참석인원	30명(연구자, 대통령 경호실, 국정원, 군인, 산업 종사자 등)

2 필요성 및 목적

태권도의 학술적 기반이 되는 담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태권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계층(교수, 연구원, 지도자 타 전공자/무예가, 산업 종사자 등 분야별 전문가)의 연구자 협력 체계 구축 과정을 통해 전문가(집단)를 양성하고, 연구자의 이론적 지식과 지도자의 체험적 지식을 종합 수렴하여 태권도의 주요 학술적 현안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 제1차 포럼 추진 과정 모형도 >

3

포럼 결과

1) 태권도연구의 학술적 과제 논의

구분		내용
학술·연구	개념 정립 기술 개발 학문 체제 정신(정체성) 타 무예 비교	• 과학적 원리 및 설명이 부재함 • 태권도와 타 무예와의 비교연구가 미진함 • 태권도 학술·연구 분야가 체계적으로 세분화 되어있지 못함 • 태권도 기술의 실전(현장 활용)성에 대해 정립되어 있지 못해 활용하기에 어려움 • 태권도 개념 및 정의가 태권도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 태권도 기술 및 규정 변화에 대한 전파·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태권도 이론이 획일적 방법(내부적 시각)에 의해 개발되어 준거가 부족함
교육·연수 표준화	교육콘텐츠 교육과정 프로그램 평가	• 수련생 대상에 따른 교육콘텐츠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획일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 교육과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해 전문성이 부족함 • 교육과정(개선/변화내용)에 대한 재교육 및 연수가 이뤄지지 못함 • 태권도 교육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함

구분		내용
문화·산업 정책	시장분석 문화(한류) 세계화 융복합연구 마케팅	• 문화·산업 확산에 기초가 되는 시장분석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태권도를 문화(한류)화 할 수 있는 연구 및 시도가 없어 활용이 제한적임 • 태권도 문화 콘텐츠를 세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지 않고 있음 • 태권도 문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지 않고 있음 • 태권도 산업화 과정에 대한 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산업화 과정에 시행착오가 많음
기타	연구소(방향성) 정보화 시스템 정보 활용	• 태권도 단체간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아 중복사업과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태권도 관련 정보 구축 체계가 통합적이지 못하여 태권도 정보 네트워크 확립이 어려움 • 통합적 태권도 정보화 시스템 기반이 없어 사용자가 각기 다른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태권도 정보 활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방안이 없어 정보에 대한 전파·보급에 어려움이 따름

2) 태권도 월례 포럼 진행 '방향' 및 '방법' 논의

구분	
목적	태권도연구소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 구축 과정을 통해 전문가(집단)를 양성하고, 연구자의 이론적 지식과 지도자의 체험적 지식을 수렴하여 태권도의 주요 학술적 현안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일시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0:00~13:00 (정기적 일시 채택) ※ 국기원 및 유관 단체 행사와 중복을 피함.
장소	-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1층 AREX- I ※ 대상에 따른 장소 변경 가능
대상	대학 교수, 연구원, 지도자 타 전공자/무예가, 산업 종사자 등 분야별 전문가 (포럼 주제별 참여 대상 구분)
주제	- 태권도연구의 학술적 논의 과제 - 영역(Category)별 중점 과제 채택
방법	- 채택된 영역(Category)의 중점 과제별 발표 (2가지 과제 제한) - 과제에 대한 정보(현장) 제공 및 사례 발표 - 문제 제기 및 해결방안 제시(토론 이슈 제공) - 발표를 통해 제시된 주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토론 - 심층토론을 통한 문제 제기 및 해결방안 모색 - 미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계획 수립

3) 기타 논의

- 선정된 주제와 수립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수 학습조직(연구인력 풀) 구성 (연구에 대한 지속성 제공)
- 연구 분야별 포럼 참여 대상의 구분(분야별 전문/지속적 참여 유도 방안 추진)
- 포럼 결과와 추진 과정에 대한 지속적 정보 제공(참여자간의 지속적 D/B 구축)

4

결론

- 연구, 교육·연수(표준화), 문화·산업 정책 및 기타 영역에서, 태권도의 과학적 원리 및 설명이 부재함, 태권도 기술의 실전성에 대해 정립되어 있지 못해 활용하기에 어려움, 수련생 대상에 따른 교육콘텐츠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획일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태권도 문화·산업 확산에 기초가 되는 시장분석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 태권도 단체 간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아 중복사업과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등과 같이 태권도 주요 학술적 현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향후 후속 조치를 통해 태권도 연구 로드맵과 시스템 구축을 확립함으로써 사업 목적 달성이 필요함

5

포럼 세부 내용

1) 개인 관심 주제 토의

번호	성명	분야	내용	비고
1.	이동선	산업	태권도가 가진 콘텐츠적 가치가 크나, 이를 활용하여 산업화 하고 수익화하는데 제한점이 많아 콘텐츠로 이용이 어렵다. 태권도의 산업화 방향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2.	허인욱	-	태권도의 수련연령층이 저학년에 분포되어 있고 지속적인 수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원수가 많아지면 태권도가 가진 정신이나 기술 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이나 홍보 콘텐츠가 중요한데, 방향성에 대해 논의 하고 싶다.	
3.	김이중	-	포럼의 내용을 문서화해서 내용을 세계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송송미	산업	태권도계와 연결 및 네트워킹이 부족하여 연구문제는 차후에 설명 드리겠다.	
5.	전난희	사회	태권도 보급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특히, 태권도 보급 이 편향되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노봉래	행정	태권도는 행동 철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태권도를 국기원이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국기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태권도가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승단심사와 지도자 교육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7.	홍성정	교육	태권도 기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인성과 예절 교육이 필요하며 인성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상정될 예정인데, 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여 태권도 수련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동작 속에서 철학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고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김재호	자연	태권도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 대안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태권도 발전을 위해 과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9.	백성인	교육	태권도를 수련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체험한바 있다. 태권도 지도가 수련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신적·인문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0.	이진경	기술	태권도의 우수한 기술적 원리가 충분히 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전적으로 타 종목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권도의 실전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11.	엄재영	교육	태권도 제반 문제를 해소하는데 올바른 지도자 교육이 필요하다. 태권도 사범지도자 교육의 재교육 형태가 없는 것이 아쉬우며, 자격의 유효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도자 교육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행동에 대한 의문을 지도자가 해소해줄 능력이 없다. 특히, 인성교육은 몸에 익혀서 저절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원천기술이며,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2.	성호영	기술	태권도의 실전성을 설득하는데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우며, 태권도 기술에서 한계를 느꼈다. 태권도의 실전격투능력으로서의 개발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워가고자 한다.	
13.	박종범	산업	태권도가 2차 성장을 이루기 위해 아시안게임에 도입됨으로 가능하며, 도장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태권도를 영화와 연관하여 태권도 시범이 한 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인들의 생활양식에 가까이 접근해야 된다.	
14.	손재영	행정 교육	명예단증을 비롯하여, 단증 발급제도에 대한 논의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단순히 기술의 전달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인성교육 커리큘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5.	최종원	기술	태권도의 최대 가치는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태권도를 통해 호신과 약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강하고 실전적인 태권도가 필요하다.	
16.	김영선	사회	태권도를 무도적 정신적으로 즐겨 광범위한 계층의 지속적인 참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태권도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17.	이영림	행정	연구가 현장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각자 산하기관의 역할과 기능, 각 기관들이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국기원이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다방면에서 의견을 취합하여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는 바가 크다.	
18.	이용운	기술	인성도 중요하지만 태권도 기술이 타 무술과 비교를 통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실전적인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19.	서성원	교육	태권도학의 커리큘럼을 재정비하여 태권도학과생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20.	신경범	교육	성인 태권도 수련에 필요한 요소를 인지하고,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1.	김한주	산업	태권도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여 산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2.	최성호	기술	태권도의 실전성이 부족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싶다.	
23.	설성란	교육	태권도를 교육하는 곳이 도장이다. 태권도가 사람을 만드는 곳이며, 기술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전문으로 전문가와 기술자가 따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24.	유창완	행정	태권도가 진행하는 내용이나 지식, 표준을 전달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태권도의 화두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권도 안으로만 제안두지 않고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25.	정지운	교육 자연	태권도를 지도할 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커리큘럼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 원리를 통해 태권도의 동작 원리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2) 주제 선정 방법에 대한 논의

성명	내용
유창완	방향성이나 계획은 연구소에서 계획이 있을 것 같다. 주제별로 각자 관심 있는 사람이 다를 것 같다. 조금 더 토론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소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의견을 듣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마무리가 잘 될 것 같다.
이동선	주제를 먼저 정하고, 태권도 마케팅과 관련된 주제를 먼저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가 마케팅을 위해 어떤 일을 진행을 했는지 구체적인 태권도 마케팅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김재호	연구소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방금 전에 시장조사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며, 메타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오픈해줘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종범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기원 교육 콘텐츠 중에 위력격파 부분을 추가를 해야 한다.
김영선	주제와 진행방향을 확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층토론이 부족했다. 심층토론 후 피드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어떤 영역이던지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세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영림	각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서포터 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종합되는 내용이 필요하다.
최성호	분임을 나눠서 시간을 무한정 소비할 것이 아니라 맡게 토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임별로 모이고, 하나의 주제가 속한 곳에 모여서 토의해보는 자리가 필요하다.

2014 제2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 태권도 기술의 실전성 제고 방안 -



태권도연구소

1

개요

구 분	내 용
• 행 사 명	제2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 주 제	태권도 기술의 실전성 제고 방안
• 일 시	2014.07.19.(토), 10:00~13:00
• 장 소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1층 AREX- I
• 주 최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 참석인원	30명(연구자, 대통령 경호실, 국정원, 군인, 산업 종사자 등)

2

필요성 및 목적

태권도 기술의 실전성에 관한 담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태권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계층의 연구자 협력 체계 구축 과정을 통해 태권도 관련 전문가(집단)를 양성하고, 연구자의 이론적 지식과 지도자의 체험적 지식을 종합 수렴하여 태권도의 주요 학술적 현안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 제2차 포럼 추진 과정 모형도 >

3

논의 사항

1) 발제자 주요 의견

(1) 실전 격투기술 '크라브мага'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태권도 기술의 실전성 분석

- 성호용(육군사관학교/교수)

구 분	내 용
• '크라브 마가' 소개	- 크라브 마가의 역사 및 기술 소개 - 크라브 마가의 특징 및 장점 설명
• 태권도와 '크라브 마가' 기술 비교	- 태권도 기술이 양적으로는 우세하나 기술 지도 및 습득을 위한 단계적 교육 내용 부재 - '넘기기, 던지기, 그라운드 기술, 낙법, 구르기' 등의 실전적 기술 부족 - 다양한 상황에서 태권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수련 및 지도방법 개발 필요
• 결론 및 제언	- 태권도 기술을 실전 상황에 맞도록 교육 및 수련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언

(2) 실전 기술로서의 태권도

- 최치선(서울대학교/강사)

구 분	내 용
• '실전'의 의미 소개	- 실전의 용어적 개념 및 정의 설명 - 격투 시 신체적 반응 및 변화 설명
• 태권도 기술의 실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 수련 및 습득 방안	- 사회적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화되며 태권도의 수련 목적이 과거와 달라짐 - 보호대의 발달에 따라 태권도 기술이 위력 중심에서 속도 중심으로 변화되며 실전성 결여 - 태권도 수련체계의 이차원적 분류를 통한 기술 수련 및 습득 필요
• 결론 및 제언	- 다양한 위협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내용 및 지도방법 개발

2) 참석자 주요 의견

구 분	내 용
① '실전' 태권도의 의미	- '실전' 태권도의 개념적 정의가 불분명하며, 관련 선행 연구가 미진한 실정 - 전투, 싸움, 겨루기 등 다양한 실전적 상황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함
② 태권도의 실전 기술	- 태권도가 건강이나 여가를 위해 수련되면서, 태권도 수련자의 격투능력이 점차 결여됨 - 과거에 수련되었던 태권도의 실전적 기술에 대한 조사 및 복원 연구가 시급함 - 태권도 실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기 방식 개발 및 대회 개최가 필요함 - 태권도 수련을 통해 투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부재함 - 태권도 기술을 통해 다양한 위협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유급자 및 유단자 품새에 등장하는 기술만으로는 실제적인 격투 능력 배양이 어려움 - 태권도 새 품새를 개발하여 발기술의 비중을 늘리고 실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해야 함
③ 타 무예와 기술 비교	- 태권도가 타 무예에 비해 기술 수에 있어서는 양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방법이 부재 - 겨루기 경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차기 기술만 수련 및 습득하여 균형적인 기술 발달에 저해 - 태권도의 실전성이 문제 시 되는 이유는 기술 자체가 아닌 기술의 수련 및 학습 방식에 있음
④ 실전성 제고 방안	- 태권도 실전 기술에 대한 구분(선별)을 통해 수련방법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태권도 수련생 및 상황에 따라 실전 기술에 대한 매뉴얼화 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 태권도 품새 수련 시 2인 이상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품새를 개발해야 함 - 태권도 도장에서 실제 투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내용 및 과정 개발 필요

4

결론

- '실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며, 태권도 수련자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전(위협)' 상황에 대한 세분화된 구분 필요
- 태권도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실전(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수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타 무예 수련자 또는 무기 소지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태권도와 타 무예와의 비교연구 및 태권도 기술의 심층 분석 필요함

5

포럼 발제 내용 I

태권도 기술의 실전성 제고 방안

성호영(육군사관학교/체육학 강사)

□ 서 론

- 태권도기술이 실제 전투에서 백병전 기술로써 다른 격투기술 보다 효과적인가? (대상 : 군인)
- 태권도기술이 UFC와 같은 규칙의 제한이 적은 경기에서 다른 격투기술과 대등하거나 우세할 수 있는가? (대상 : 일반인)
- 실전 격투기술과 태권도 기술 비교를 통해 실전성 관점에서 부족한 기술 또는 발전시켜야할 부분식별 필요

□ 본 론

- 복싱, 유도, 주짓수, 이종격투기등과 같은 무술 또는 격투기술 들의 일반적인 기술들을 참고해 만든 대표적인 실전격투기술 (이스라엘군 Krav Maga, 미해병대 MCMAAP)과 태권도 기술의 비교
- 기술의 종류, 참고자료를 통해 살펴본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차이점 및 장·단점 분석을 통해 태권도의 실전성 제고
- Krav Maga (contact combat의 히브리어)소개
 - 종교 및 영토분쟁으로 끊임없이 크고 작은 교전과 테러가 발생하는 이스라엘 군에서 비정규전 상황 하 일대일 교전능력 향상을 위한 특공무술
 - 체코출신 복서 겸 레슬링선수 'IMI' 가 1940년 나치를 피해 팔레스타인으로 피신하여 유대인 정착민 조직 팔마치란 민병대에서 활동하며 창시
 - 다양한 격투기로부터의 기술 도출 (실전에 필요한 기술 종합)

- : 무에타이와 가라테의 타격과 방어, 유도, 메치기, 주짓수의 꺾기 등
- 특징 : 다수의 무기를 가진 적으로부터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기술 (상황별 호신술 개념), 적에게 가능한 큰 상처를 입히기 위한 기술 위주
- 링, 매트, 점수, 규칙 없이 타이틀이나 점수획득 보다는 생존을 위한 실전 격투술로 자리매김
- 1978년 국제 크라브마가 협회(IKMF) 설립
- 호주, 북미, 동남아시아, 극동, 대부분의 유럽,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활동
- 어린이, 여성, VIP경호요원, 경찰, 민간인, 군인으로 대상을 구분지어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 참고 : 국제 크라브마가 협회 한국지부
(<http://kravmaga-ikmf.com/locations/asia/south-korea/>)
- 관련 영상 시청 3분
(<http://www.youtube.com/watch?v=3Ignz0VLLwA>)

○ 태권도와 Krav Maga 기술비교

- 기술 비교
 - 참고자료 : Krav Maga (2007, Complete Krav Maga, PubGroupWest)
 - ※ 관련된 책들 중 다양한 상황별 기술이 묘사된 교과서적 참고자료
태권도 (2006, 태권도 교본, 국기원)
 - 공통적인 기술 비교

서기		막기 (방어)		손기술 (공격)		다리기술 (공격)		잡기		꺾기		넘기기, 던지기	
	K.M.	태권도	K.M.	태권도	K.M.	태권도	K.M.	태권도	K.M.	태권도	K.M.	태권도	K.M.
29	3	79	21	119	26	34	29	7	-	3	3	2	6

※ K.M. : Krav Maga

※ 위 구분은 발표자가 정한 것이며, 참고한 자료에 기술된 내용만을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 태권도와 KravMaga 모든 기술의 개수와 다를 수 있음

- 1) 서기, 막기, 손·다리 공격기술, 잡기, 꺾기 기술의 종류에서 태권도

기술의 양적 우세

- ① Krav Maga 참고자료에서의 기술에 대한 설명은 태권도 교본보다 상세함 (기술별 실제 상황에 따른 설명 및 사진 제시), 반면 태권도 교본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술의 개념적인 설명이 주를 이루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설명 및 사진은 부족**
- ② 양적인 면에서는 태권도가 우세하지만 그렇게 많은 기술들이 **실전에 어떻게 사용될지, 어떠한 방식으로 단계적인 교육이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음** (기술의 유명무실화)
 - 단기간 내에 배운 기술만 태권도의 전부라 생각하는 일반인들 발생 가능 (장기간 수련생도 개인적인 노력 및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 사장되는 기술 발생 가능성), 태권도에서도 많은 손기술이 있지만 품새에 나오는 기술만 기억

“겨루기를 과감하게 도입하되 선수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에 하나로 손 기술을 지양하고 발 기술 위주로 겨루기 방식을 스포츠로 발전시켰다. 이처럼 태권도가 무술에 머물지 않고 스포츠화로 발전시킨 성과야 말로 태권도가 갖는 분명한 정체성이다. 발기술 중심의 기술체계와 겨루기에 의거한 태권도의 경기화는 한국 무술의 성공을 넘어 동양무술의 스포츠화를 이끄는 중요한 견인차가 되었다.”

<심승구, 2009, 동양문화연구>

→ 태권도의 경기화가 가져다준 성공적인 이면에 많은 손기술들이 사장되어 실전성을 상실해 갔음을 추정할 수 있음.

2) 넘기기 및 던지기 기술 부족

- Krav Maga에서만 설명된 기술 (각 기술별 간단한 설명과 사진제시)
 - (1) **박치기** : 1
 - (2) **회피** : 1
 - (3) **탈출 (초크, 헤드록, 넥슨, 허그, 손목잡힘, 머리카락잡힘 등 상황별)** : 31
 - (4) **그라운드 기술** 포지션 : 14
 - (5) 그라운드 기술 치기 : 1
 - (6) 그라운드 기술 누르기 : 1
 - (7) 그라운드 기술 초크 : 3
 - (8) 그라운드 기술 헤드록 : 1
 - (9) 그라운드 기술 방어 (펀치) : 1
 - (10) 그라운드 기술 방어 (마운트) : 2

- (11) 그라운드 기술 방어 (헤드록) : 7
- (12) 그라운드 기술 방어 (잡기) : 3
- (13) 낙법 : 3
- (14) 구르기 : 2
- ※ 머리부위 사용, 신체의 움직임을 통한 방어 동작, 각 중 상황별 대처 방안 (탈출 및 공격), 그라운드 기술
- 교육 방법 및 기술 정리 방법 비교 (참고자료를 기준)
 - 태권도
 - (1) 장점 : 기술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 세분화
예) 신체 사용 부위, 목표·방법에 의한 기술 명칭 구분 등
 - (2) 단점
 - ① 상황별 설명 부족 → 개념적인 설명에 그침, 응용 (실전사용)에 제한
 - ② 딱딱하며 형식적인 설명 (기술 묘사 사진 부족) → 흥미 저하 유발
 - Krav Maga
 - (1) 장점
 - ① Case by Case : 개념적 기술설명이 아닌 상황에 따른 적절한 기술 설명 → 실전성 향상
 - ② 기술 묘사 사진 제시 → 누구나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흥미롭게 구성
 - (2) 단점
 - ① 기술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 미흡 (모든 기술이 상황별 위주 설명)
- 정리 (Krav Maga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 본 태권도의 실전성 제고를 위한 방법)
 - 실전성을 위해 추가될 필요가 있는 기술 : 넘기기, 던지기, 박치기, 회피, 탈출 (초크, 헤드록, 넬슨, 허그, 손목잡힘, 머리카락잡힘 등 여러 상황별 탈출), 그라운드 기술, 낙법, 구르기 등
 - 실전 상황에 따른 태권도 기술에 대한 개념 설명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제시)
 - 모든 태권도 기술의 단계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존에 있는 다양한 태권도 기술이 많이 알려져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

□ 결 론

- “태권도 기술이 시대흐름에 따라 스포츠와 퍼포먼스적 성격이 부각되면서 무술적 기술이 사장되어 가고 수련 프로그램에서 사라지고 있다. 태권도 기술이지만 사용하지 않게 되는 기본동작들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이미 태권도 경기화 초기에 지적하였다.”
 <황기, 1970, 서울:삼광출판사>, <최치선, 2013, 국기원태권도연구>
 →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다.
 →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실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자료 개발 필요
- 새로이 추가가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태권도적 정의 연구 필요
- 상대방이 존재하는 품새의 호신술화 (단을 따기위한 품새위주에서 탈피)
- 실전성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
 - 부상 (육사 MCMAP 도입과정 참고)
 - 충분한 준비운동, 안전장비 준비
 - 미국의 군사훈련 (사망자 발생에도 진행)
 - 선조들의 충고
 ‘병(兵)이란 백년동안 쓰지 않아도 좋지만 하루도 방비(防備)를 잊을 수 없다’
 (『星湖雜說』 卷7, 人事門 兵備)
 - 오용 혹은 남용 가능성 (태권도 철학, 예의로 극복)
 - 실전성 회복의 목적 (Krav Maga와 같이 대상자별 목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필요)
 - 군 태권도 교육자로서 나의 고민
 ‘임진왜란 직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수박(手搏)은 일격필살(一擊必殺)의 군사무술(軍事武術)로의 기능이 퇴화하는 대신에 민간에서 놀이수단으로 발달해 온 지 오래되었다. 그 결과 민간무술인 수박은 실전(實戰) 무예의 특성인 손 기술 보다는 놀이를 위한 발 기술 위주의 힘겨루기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었다. 이처럼 16세기 말 조선의 수박 기술체계는 존재하기는 했으나, 전쟁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창, 검, 당파, 낭선 등의 단병기(短兵器)를 사용하는 기술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새로이 손기술 중심의 중국 권법을 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심승구, 2009, 동양문화연구>
 → 실제 전투에서 사용가능한 태권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전 기술로서의 태권도

최치선(서울대학교/강사)

무예로서 태권도의 실전성에 관한 논란이 많다. 태권도 현대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는 전형적인 투기(鬪技)였던 태권도가 경기화에 의한 사용부위 및 타격부위의 제한, 초기 태권도 발생시기와는 다른 격투가 필요 없게 된 사회로의 변화, 수련층 저연령화 등의 많은 이유로 인하여 일부 기술들의 수련을 태권도 현장에서 기피한 것과 관련 깊지 않나 추론해 본다.

최근 다시 실전 기술의 복원¹⁾, 품새 호신술²⁾ 등의 서적 발간과 교육 붐을 일어나면서 태권도의 기본동작과 품새에 깃들여 있는 기술들을 고집어내어 실전에 적용해 보자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전철(前轍)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복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일부 기술들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용성에 관련한 정확한 명분을 부여함으로써 태권도의 교육체계로서 공고히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서론

서론에서는 '실전(實戰)'이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적 인식론을 설명하였고, 실전과 연습의 차이를 심리·생리적 변화와 운동수행의 측면에서 알아봄으로써 실전 상황에 맞부딪치게 됐을 때의 일반적 현상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실전의 의미

'실전(實戰)'³⁾은 '[명사] 실제의 싸움, [영어] actual fight[battle warfare], real game[match fight], [한자] ①실제(實際)로 싸움 ②또는, 그 전쟁(戰爭)'으로 사전적 의미가 나타난다. 한자어는 뜻 문자이기에, '싸움'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국한하지 않고, 그 의미를 확장하여 여러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 가령 '공부, 영어회화' 등의 학습 상황에서 '실전'은 '기초, 모의, 연습'으로 해 왔던 것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장(場), 즉 '시험'의 의

1) 엄재영, 안재로, 정인철(2013). 태권도 실전 손기술

2) 김영수, 김충환(2014). 태권도 품새 응용 호신술

3) 네이버 어학사전(2014)

미를 지니고 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주식투자, 도박' 등에서 '실전'은 '이론, 연습, 시뮬레이션'으로 해왔던 작업들을, 실제 재화를 걸고 시험해 보는 장(場)의 의미를 가진다. '스포츠, 놀이(게임)' 등에서 '실전'의 상대적 개념은 '이론, 연습' 등으로, 어떤 일정한 규칙(rule) 하에서 이기기 위해 종목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들을 수행하는 장(場), 즉 '시합(match)'의 성격이 강하다. 한편, '군대'에서의 '실전'은 '훈련, 시뮬레이션'과 상대되는 '전투'를 의미하므로, 사용하는 모든 무예나 무기의 실전성이란 '살상(殺傷)'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수련, 단련' 등을 상대적 어휘로 가진, 태권도를 포함한 많은 무예들에 있어서 '실전'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 '겨루기, 산타 등' 경기화된 무예종목을 통한 기술의 거름 '시합'인지, 불의의 상황에 닥쳤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술'인지, 상대가 육체적·심리적으로 대항할 수 없을 정도까지 만드는 '제압술'인지, 상대가 다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이 없는 '싸움'인지 구분이 불분명하다. 다른 얘기로 근간에 유행했던 K-1, UFC, 프라이드와 같은 MMA(mixed martial arts)는 실전일까, 게임일까? K-1에 출전했던 태권도 선수 출신 경기자의 참패를 보고 태권도는 실전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MMA가 실전성을 거루는 장인데, 그 MMA 경기조차도 공격을 제한(예> 눈 찌르기, 낭심 가격, 깨물기 등)하거나 분절을 꺾기는 하지만 부러뜨리지는 않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싸움과는 거리가 있다. 즉, 무예에서의 '실전'은 '시합'과 '싸움' 영역 사이에서 '(호신술과 제압술로 통칭되는 형태로) 나의 몸과 상대의 몸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거름'이라고 개인적인 정의를 해 본다.

위험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의 신체적 변화

2014년 로봇 산업 전망에서 의료용 로봇과 공중 로봇만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제일 큰 이유가 장애물 때문이라고 한다. 로봇이 각종 센서와 컴퓨터를 이용해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을 계산하고 나면, 이미 그 장애물이 움직이거나 바뀐 직후여서 다양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과부하가 걸려 동작이 어려워므로, 의료 쪽의 제한되고 통제된 환경이나 공중에서의 무장애물 환경에서야 적합한 단순 동작들을 그나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로봇으로 발달되었다는 것이다. 로봇의 움직임이 연습이라면, 실제 상황에 적합한 움직임을 하도록 제작하는 것이 실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단 무예만이 아니라, 인간이 맞닥뜨리는 모든 실전 상황(예> 시험, 시합, 전투)에서 나타나는 '실전'과 '연습'의 차이가 위 로봇 이야기에 함축되어 있다. '연습'에서는 비교적 쉬운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만드는 동작이라고 한다면, '실전'에서는 주어진 시간·환경·신체상태 등의 물리적 조건, 신체의 생리적·심리적 변화, 전략·전술과 같은 정신적 역량 등이 상이하게 달라 모두 헤쳐 나가야 하는 장애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위험한 상황(예> 눈 앞에서 뱀을 보았을 때, 교통사고 당하는 상황, 위협적인 자극,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 중요한 시험 치르기 등)을 맞았을 때 자율신경계 내 교감신경계의 각성(arousal)이 지속되는데, 이는 본능적인 반응으로 '투쟁·도피(fight or flight) 반응⁴⁾'이라고 하며, 언제든지 공격·방어·도피에 대비할 수 있도록

4) 한국심리학회(2014). 심리학용어사전

긴장과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 이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으로서 심장박동과 혈압을 상승시키고, 숨을 가빠지게 하고, 땀샘을 활성화하며, 몸을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 혈액을 골격으로 많이 흐르게 하여 혈관 포도당을 증가시킴으로써 신진대사 증진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이 지나간 후 포도당의 급격한 소비로 인한 극도의 피곤함과 장시간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근육통을 수반할 수 있다. 즉, 자기보호본능에 해당하는 '투쟁-도피 반응' 때문에 위험을 인지한 개체는 반사신경이 예민해지고 힘과 스피드가 증가하게 되며 고통에 둔감해지게 되므로, 이 때 정직하게 급소를 향해 타격을 가한다면 일반인도 쉽게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급소 공격은 상대가 방어태세를 갖추기 전에 기습적인 공격이 가능한 특수부대, 또는 방어할 새 없이 빠른 속도를 가진 무기(예> 활, 총 등)의 공격으로서나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스포츠심리학의 카타스트로피(catastrophe; 대격변) 이론에 의하면 불쾌한 감정과 같은 인지불안 수준이 높을 때, 신체의 생리적 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수행도 증가하지만 최고점을 막 지났을 경우 수행의 급격한 추락현상이 발생한다(그림 1)⁵⁾.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의식은 피하고 싶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 경우로 말할 수 있다. 반면에,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기술수준을 늘림으로써 각성상태를 몰입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또한 과제의 도전수준 역시 반복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짐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그림 2)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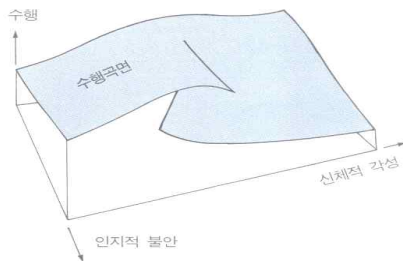


그림 1. 불안과 운동수행 관계의
카타스트로피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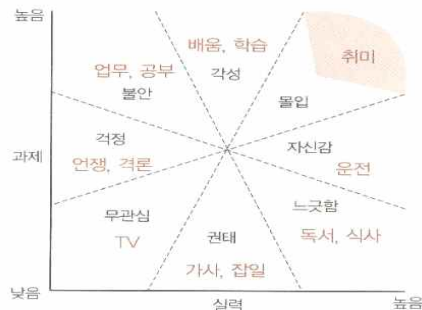


그림 2. 과제와 실력의 함수 관계

본론

본론에서는 태권도 기술 자체의 실전성과, 그 실전성이 제대로 학습되어 오지 않은 이유를 운동학습의 단계에 대입해 알아보았으며, 손기술보다 발기술의 득점을 더 많이 인정하게 되면서 가라데와의 차별화에는 성공하였지만 손기술들의 활용을 오히려 사장시킨 계기가 된 태권도 경기 겨루기의 실전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태권도 기술의 실전성

'지르기, 찌르기, 찌기, 치기, 차기'의 공격에 사용되는 사용부위는 '주먹, 손, 무릎, 발'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각각 적용되는 부위에 따라 '주먹, 편주먹, 밤주먹, 집게밤주먹, 편손끝, 가위손끝, 한손끝, 모은두손끝, 모은세손끝, 모듬손끝, 등주먹, 메주먹, 손날, 손

5) 정청희, 김병준(2001). 스포츠심리학의 이해

6) 황농문(2009). 몰입,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

날등, 손등, 곰손, 바탕손, 굽힌손목, 아금손, 집게손, 팔굽, 무릎, 앞축, 뒤축, 발끝, 발날, 발날등, 뒤꿈치, 발바닥, 발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한 부위를 가격하는데도 많은 사용 부위를 가용(可用)할 수 있으므로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막기'에 사용되는 사용부위 역시 '바깥팔목, 안팔목, 등팔목, 굽힌손목, 앞축, 발등, 발날, 발날등, 발바닥, 정강이' 등 여러 곳이 있으며, 이 외에 '꺾기, 넘기기, 밀기, 빼기, 잡기, 피하기' 등을 통해 사용부위를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로 활용할 수 있다⁷⁾.

공격할 수 있는 주요 신체 급소부위를 살펴보았을 때, '상단 얼굴 앞면의 백회, 천도, 인중, 객주인, 눈, 턱, 상단 얼굴 뒷면의 뇌호, 아문, 중단 몸통 앞면의 엄천, 인영, 천돌, 단중, 유중, 명치, 대횡, 단전, 중단 몸통 뒷면의 대추, 폐유, 심유, 간유, 담유, 비유, 신유, 요유, 하단 다리 앞면의 고환, 풍시, 혈해, 독비, 해계, 행간, 하단 다리 뒷면의 승부, 은문, 위중, 승산'을 공격할 수 있고, 각 급소에 충격을 받을 때의 상해에 대하여도 정리⁸⁾되어 있으나 태권도 지도자 및 수련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실전을 염두에 둔 교육과정을 계획한다면, 급소 부위 공격의 효과 및 회복법에 대하여 고급 과정을 통한 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춤서기 상태에서 숙련자(n=6)들이 지른 지르기의 평균 최대충격력은 약 360~390N으로 나타났고⁹⁾, 숙련자(n=21)의 앞차기 평균 최대충격력은 약 3,900N, 돌려차기 약 4,200N, 뒷차기 약 5,331N으로 나타났다고 한다¹⁰⁾. 성인 머리뼈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는 100-150psi이고 압축강도는 500-31,000psi로 다양하다. 대개 골절을 일으키는 기전이 주로 장력에 의한 것이므로 선골절을 일으키는 힘은 상당히 낮아서 살짝 머리를 부딪히고도 생길 수 있다. 73N이라는 아주 작은 힘으로도 가능한데, 벽으로 뛰어서 머리를 부딪히면 무려 1,020N 정도의 강도가 생기게 된다. 성인의 머리의 무게는 대충 3~6kg 정도 된다. 그래서 이것이 1미터 높이에서 떨어져서 이마를 부딪치면, 이 강도는 510N 정도의 강도가 되고, 이 강도는 한 개 혹은 두개의 선골절, 혹은 거미줄 골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선골절 하나 생기게 하는 힘과 복잡 골절이 생기게 하는 힘의 차이는 그다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머리카락이나 머리덮개, 머리뼈의 두께, 충격방향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차이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적으로 골절이 일어나는 강도 자체는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¹¹⁾. 따라서 주먹으로 때린 머리는 선골절이 일어나긴 어렵겠지만, 차기에 의한 충격은 타박상, 뇌졸중, 골절상을 야기시킬 수 있을 만큼의 큰 힘이다. 또한 이러한 충격이 가슴 부위에 가격된다면 충분히 심장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

태권도 기술이 타 무술에 비하여 부족한 부분이 몇 있을 수 있다. 예로 하체를 방어하거나 낮추는 기술이 부족하고, 입식 타격기이기 때문에 거리를 항상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엄재영(2013)¹²⁾의 태권도 실전 손기술 프로그램처럼 중심 낮

7) 국기원(2010). 태권도 기술용어집

8) 김경배(2011). 경찰 호신체포술

9) 최치선(2012). 태권도 지르기 동작 시 목표 거리와 지르기 방식에 따른 충격력 비교 연구

10) 배영상(2013). 태권도의 전자호구 충격값과 포스플랫폼 충격력과의 관련성

11) ajustsee.egloos.com/482984 법의학 블로그

12) 엄재영, 안재로, 정인철(2013). 태권도 실전 손기술

추기를 별도의 동작을 학습하고 반복하게 함으로써 충분히 숙달 및 보완이 가능하고, 분절에 가속을 붙여야 할 절대 거리와 시간이 필요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팔굽 또는 무릎의 가까운 관절을 사용하거나 최치선(2013)¹³⁾의 골반중축 선회전 동작과 같은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동작을 사용하여 시간을 단축시킨 채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다.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타 무예를 흡수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ATA(American Taekwondo Association)처럼 타 무예와 겨루는 방법들을 별도 학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태권도 기술의 학습

최치선과 임태희¹⁴⁾는 태권도장 수련영역에서의 태권도 기술을 이차원적으로 분류하면서 상대와의 접촉 또는 타격이 있을 때를 '물체조작 있음'의 영역으로 혼자 수련할 때를 '물체조작 없음'의 영역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상대의 고정 및 이동 여부, 상대를 가격할 때 기술의 가변성 및 신체이동 여부, 접촉이 일어날 때 환경의 안정 및 운동상태 여부 등에 따라 맨 위 1단계에서부터 맨 아래 16단계(이 글의 실전 태권도)까지의 수련 순서를 제시하였는데(표 1), 이는 태권도 뿐만 아니라 많은 스포츠 및 무예의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분류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다.

표 1. 태권도장 수련영역에서의 태권도 기술 이차원적 분류

수련 영역별 분류			동작의 기능			
			신체이동 없음		신체이동 있음	
			물체조작 없음	물체조작 있음	물체조작 없음	물체조작 있음
환경적 맥락	안정 상태	동작간 가변성 없음	· 균형 잡으며 자세 유지 ①	· 제자리에서 상대를 마주하고 1차 기술 단일 수행 · 고정 미트 수련 · 고정 표적 격파 ③	· 이동기술 사용하여 이동 · 이동하며 1차 기술과 2차 기술 단일 수행 · 이동하면서 기본동작 · 연합 기본동작(사주저르기, 사주차기 등) · 제정 흥세 ⑥	· 상대를 마주하고 이동하며 1차 기술 단일 수행 · 이동 단일 미트 수련 · 떨어져 있는 고정 표적 격파 ⑩
		동작간 가변성 있음	· 제자리에서 1차 기술과 2차 기술 단일 수행 · 제자리 기본동작 ②	· 제자리에서 상대를 마주하고 다양한 1차 기술 조합하여 수행 · 임의 기술로 고정 표적 격파 ⑤	· 이동하며 다양한 1차 기술과 2차 기술을 조합하여 수행 · 장악 흥세 · 심상 겨루기 ⑨	· 상대를 마주하고 이동하며 다양한 1차 기술 조합하여 수행 · 이동 여러 미트 수련 · 떨어져 있는 다방향 고정 표적 격파 ⑬
	운동 상태	동작간 가변성 없음	· 불안정한 환경에서 균형 잡으며 자세 유지 · 경사면, 통나무 위, 움직이는 바닥 등에서 균형 잡기 ④	· 제자리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표적을 대상으로 1차 기술 수행 · 제자리에서 상대방의 약속 기술 공격을 대상으로 2차 기술 수행 · 일정한 속도 출현 표적 격파 · 약속 한번 겨루기 ⑧	· 불안정한 환경에서 이동기술 사용하여 이동 · 다양한 환경에서 이동하며 1차 기술과 2차 기술 조합하여 수행 · 불균일한 지면을 이동하면서 기본동작/제정흥세/맞혀겨루기 · 방향 바뀌며, 속도를 달리하면서, 순서를 겨루듯 하면서 제정 흥세 ⑫	·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상대를 마주하고 이동하면서 1차 기술 수행 · 움직이는 상대를 마주하고 이동하면서 1차 기술과 2차 기술 조합하여 수행 · 일정한 속도 이동 표적 격파 · 약속 세번 겨루기/겨루기 및 호신술 시범 ⑮
		동작간 가변성 있음	· 불안정한 환경에서 제자리 1차 기술과 2차 기술 수행 · 경사면, 통나무 위, 움직이는 바닥 등에서 기본동작 ⑦	· 제자리에서 불규칙한 속도의 표적을 대상으로 1차 기술 수행 · 제자리에서 상대방의 임의 기술 공격을 대상으로 2차 기술 수행 · 공중에 던진 표적 격파 · 임의 기술 한번 겨루기 ⑪	· 움직이는 상대에 대응하여 이동 · 밀기 겨루기 ⑭	· 다양한 환경에서 움직이는 상대를 마주하고 이동하면서 1차 기술과 2차 기술 조합하여 수행 · 임의 기술 세번 겨루기 · 경기 겨루기/겨루기 및 호신술 ⑯

특히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1차기술'과 '2차기술'을 설명하면, 기존 '공격기술'과 '방어기술'의 이분법적 정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개념이다. '지르기', '찍기', '차기', '치기'의 공격형 기술들과 '밀기'와 같이 동작이 빠르고 짧은 시간에 끝나는 불연속적 폐쇄 운동기술의 특성을 가지며, 접촉 또는 타격해야 할 상대가 필요한 운동기술일 뿐만 아니라, 수련자가 의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태권도의 '1차 기술'로 정의한다. 반면에 '막기', '빼기', '피하기'와 같은 방어기술과 '꺾기', '넘기기'는 상대방의 공격

13) 최치선(2013). 태권도 주춤서 지르기 시 골반 중축 선(先) 회전 동작의 운동역학적 고찰

14) 최치선, 임태희(2013). Gentile의 운동학습 이론에 근거한 태권도 기술체계 분류

및 움직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수행하는 개방적 운동기술에 속하며, 접촉 또는 잡아야 할 상대가 꼭 필요한 운동기술 분류에 속하므로 태권도의 '2차 기술'로 정의하였다. 상대가 어떤 공격이나 동작을 취할지 모르는 실전의 상황은 공격하는 상대가 존재하고, 안정 상태보다 운동상태에 가까우므로 ⑧, ⑪, ⑮단계의 수련을 중점적으로 한다면, 상대와의 거리 조절과 상대의 기술에 대하여 목표부위에 기술을 발휘하는 시점을 맞추는 타이밍(timing) 조절 능력, 상대와의 타이밍을 적극적으로 일치시키거나 반사신경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⑮단계는 실전 상황을 의미하므로 앞선 수련 단계에서 필요했던 속도와 힘 조절, 운동량 조절, 타이밍 조절, 반사신경 등의 여러 운동기술 전략이 총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태권도 경기 겨루기 기술과 장비의 변화

이 장에서는 실전적이었던 초기 태권도의 겨루기 기술이 왜 공격의 주(主)가 되던 발의 앞축·뒤축 사용부위가 어떻게 발등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힘 전달'에서 '득점'으로 바뀐 규칙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기술과 장비의 역사와 함께 운동역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태권도 기술의 실전성을 위해서는 최근 국제대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자호구가 어떠해야 하는지 제언하였다.



그림 34. 대나무 호구(태권도원 보관)



그림 4. 초기 검도형 머리보호대

처음 서로 겨루기를 할 때는 사용하는 태권도 기술이 매우 단순하였기 때문에 보호 장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이 적었다고 한다.¹⁵⁾ 하지만 경쟁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다양해지고, 민첩성 및 순발력 또한 향상되면서부터 수련생들은 운동으로 인한 상해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방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문제였다고 한다. 이 때의 태권도 겨루기는 상대방을 쓰러뜨리거나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공격자가 지닌 힘을 상대방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를 목표로 삼는 무예적 성격을 띠었다. 공격자의 방어자에 대한 직접 타격이 실제로 이뤄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따라서 방어자의 안전이 중요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명치, 단전, 양옆구리 부위를 보호할 목적으로 처음 전일섭이 검도의 갑(몸통보호구)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대나무 조각들을 천에 씌어 연결시킨 태권도 몸통보호구를 제작하여 수련생에게 착용하게 함으로써 수련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그림 3).¹⁶⁾ 또한 머리 부분의 보호

15) 이종우(2002). 이종우 국기원 부원장의 '태권도 과거'충격적 고백

16) 최규도(2009). 태권도 몸통 보호구의 충격력에 대한 안정성 연구

를 위하여 머리보호대로서 검도 머리보호구를 착용해 보았으나(그림 4), 공격자의 주먹이 오히려 상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에 스펀지를 넣은 형태의 제품으로 개발하게 되었다.¹⁷⁾ 1962년 태권도 경기가 활성화 되기 이전의 태권도에서 승부판정은 한 번의 정확한 타격으로 이루어졌고,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었으므로, 따라서 상대에게 큰 충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접촉시간이 짧으면서도 큰 충격력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이다. 또한 대나무 호구는 그 재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발이 호구에 접촉하여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짧은 앞축, 발날, 뒤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였다($F \cdot t$; 충격량=충격력·접촉시간). 당시 겨루기 판을 옆차기 하나로 제압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엄운규 국기원 전 원장의 일화는, 현대의 기술과 같이 발등으로 가격하게 되면 딱딱한 호구로 인해 공격자가 오히려 상해를 입을 수 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대나무 호구의 단점은 강한 충격을 받으면 부러져서 착용자에게 더 큰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한 각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충격을 조각 내에서 뿐이 분산시키지 못해, 마치 복부를 막대기로 때리는 듯한 통증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대나무 호구의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호구가 나오기 이전인 최근까지 방력판이라고 하는 다소 두꺼운 스펀지 패드를 대나무 대용으로 삽입하게 되었다. 대나무가 조각으로 뿐이 분산시키지 못했던 충격 호구 전면적에 걸쳐 있는 방력판 전체에 시킴으로써 약화시켰고, 그만큼 방어자 전할 수 있었다. 타격 시 호구의 표면이 한 재질에서 부드러운 재질로 변화하자, 운 기술의 시도가 가능해 졌는데, 그것 자호구 이전 시대까지 경기분석 시 가장 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기술인 돌려차 다. 발등으로 상대의 호구를 아무리 세 도 공격자가 상해를 입지 않는 최상의 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력 을
분 산
는 안
딱 딱
새 로
은 전
득 점
기 이
게 차
조 건

1970년대는 태권도 경기를 바라보는 그림 36. 고밀도 압축 EVA 스펀지 사용 호구 시 각 이 무예에서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의 주안점은 '힘의 전달'보다는 상대방 호구까지 누가 더 빨리, 많이 갔다오는지를 경쟁하는 '득점'이 우선하게 되었다. 호구의 역할이 보호구의 역할과 더불어 득점 부위를 계속적으로 가격하는 것을 점수화하여 결과를 판정하는 '득점을 위한 표적의 개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즉, 같은 운동량을 가지는 돌려차기를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예전 같으면 체중이동을 많이 하여 큰 충격을 주는 차기를 했던 것에 반해, 바뀐 규칙에서는 빨리 점수를 딸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스펀지 재질 방력판 호구는 대나무 호구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발등으로 차도 아프지 않고 그만큼 접촉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돌려차기의 빈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돌려차기를 빨리, 힘껏 차기

17) 이종우(2002). 이종우 국기원 부원장의 '태권도 과거' 충격적 고백

위해서는 힘을 최대한 빠르게($F \cdot v$; 파워=힘·속도) 발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허리의 회전을 최대한 이용해야 했고, 상대방의 시선을 피해 빠른 속도로 상대의 호구를 가격할 수 있었으며, 기존 앞차기·옆차기·뒤차기가 직선 공격인데 반해 곡선 공격이어서 전략·전술의 차이도 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하지만 전자호구로 넘어오면서 다시 기술의 '강도'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즉, '득점' 위주의 기술 사용 상황에서의 '속도'와 과거 제압식의 겨루기 기술에서 보여지던 '힘'을 동시에 요구하는 현 전자호구의 상황이, 경기적 상황에서도 태권도 기술이 실전성을 보유했을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화려하게 변모한 현재의 빠른 차기 기술들을 잘 유지하면서도(더 빠르게), 힘은 강하지만 단순한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와 커트발, 밀어차기 같은 변종 기술 사이에서(더 강하게), 힘과 속도의 적정치(trade off)를 찾아내 서론에서 말한 '시합'의 개념을 실전적으로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결론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전적 태권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재 태권도 현장에서 기술 사용의 실태를 진단함으로써, 실전성 유지를 위한 제고방안들을 기술하였다. 즉, 태권도가 어떠한 실전적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지, 어떤 정도의 기술이 왜 필요하며,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았다.

실전적 태권도

서론에서 무예의 '실전'을 '나의 몸과 상대의 몸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겨룸'이라고 정의하였다. 태권도 역시 무예이므로 태권도 기술을 사용하여 '호신술, 제압술' 등을 통해 나와 상대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수련해야 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경기 선수에게 있어서는 '시합'이, 군인에게 있어서는 '격투(전투)'가 실전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의 기본적 기술 수련 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구성하여 별도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론의 두 번째 꼭지에서 설명한 실전 상황에서의 신체 반응에 대한 이해이다. 자율신경계의 각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또 다른 병을 야기시키지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태권도 프로그램 내에 유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적응'하게 하고 해당 과제의 난이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게 함으로써 '자신감'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위급상황에서 얼어붙어 발을 떼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태권도 환경에서 익숙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태권도 현장의 실태

본론에서 태권도 기술의 실전성을 알아보았는데, 공격 사용부위, 방어 사용부위와 더불어 공격할 수 있는 급소가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술에 의한 충격력이 매우 커서 자칫 잘못하면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다양한 기술 중 일부만을 수련하고 있으며, 그 일부도 실제 타격에 적용해 보는 예가

없고 품새로만 수행해 보는 답답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을 보면 제정품새는 ⑥단계로서 실전에 쓰이는 태권도 기술 및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서 갈 길이 먼 단계로서, 기술의 길을 익히고 몸을 이동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것으로만 충분한 것이다. 배운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알기 위해 고정 표적과 이동 표적을 대상으로 실제 가격을 해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또는 그 대상이 사람이 되어 공격해 오는 것을 실제로 막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태권도 현장에서는 한번겨루기, 세번겨루기를 비롯하여 손기술을 사용하는 겨루기를 건너 뛴 경기 겨루기만을 시행하다 보니, 위 표와 같은 단계별 학습이 되지 않고 있어, 실전에서의 타격감과 현장에서의 적응 등을 할 수 없는 절름발이 태권도 학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수, 김충환(2014)¹⁸⁾의 저서처럼 환경을 바꿔가며, 동작을 바꿔가며 품새의 기술로 상대와 겨뤄가거나, 김경배(2011)¹⁹⁾의 저서처럼 상대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적용시켜 나갈 때 비로소 실전 태권도로서의 기능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의 부흥은 1970년대 태권도 경기 겨루기가 큰 역할을 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초기 겨루기가 품새의 연장이었던 반면에, 현재의 경기 겨루기 고유 기술체계와의 간극이 더욱 벌어진 채 사제지간의 몇 세대가 흐르다 보니 기존의 기술 체계가 잊혀지게 된 것이다. 승품단 심사 과목에 있다 보니 하긴 해야겠는데, 이 영역 또한 체계적으로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별로 다른 커리큘럼과 기본동작·품새와는 다른 기술체제로 지금까지 흘러왔다. 하지만 파워, 즉 속도와 힘을 동시에 겸비한 차기 기술의 진수가 전자호구라는 새로운 장비를 통해 재생산될 것이기에 이를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경기 겨루기 자체도 실전을 위한 태권도 프로그램의 하나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태권도 실전성 유지를 위한 제언

태권도장 내에서의 수련이 연습이라면, 지역 내 타 도장과 아니면 다른 지역의 도장과 겨루기를 하는 것이 실전인 때가 있었다. 익숙한 사람들과의 대전이 아닌, 낯선 사람들과의 대전 속에서 실전에서의 '투쟁 및 회피 반응'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하게 되고, 몰입 상황에서 치른 성장한 기술과 실전 적용에 대한 충만감은 자신감으로 전이될 수 있었다. 다만 현재는 그 규칙이 변하여 손기술의 사용빈도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실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을 뿐이지, 경기 겨루기 역시 하는 행위자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실전이다.

지금이라도 작은 정도에서부터 큰 정도까지의 다양한 실전 유사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내가 수련한 기술을 상대방에게 적용 가능한지 시험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적용 가능성은 단순히 차고, 지르고의 차원이 아니라, 위에 제시한 표와 같은 학습순서에 따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기술 및 기능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경기 겨루기의 규칙 외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태권도 현장에서 프로그램

18) 김영수, 김충환(2014). 태권도 품새 응용 호신술

19) 김경배(2011). 경찰 호신 체포술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벼운 접촉(light contact)에서부터 완전 접촉(full contact)에 이르기까지 허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게임과 같이 자연스럽게 태권도 기술로 실전 겨루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을 전제로 하여 필요한 보호구를 갖추게 함으로써 상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운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장 상황과 가까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단체에서 주선하여 여러 다양한 수련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가령 경찰의 체포 작전, 군인의 기습 공격, 치한·강도를 만났을 때의 상황, 여러 장애물(예> 맨홀, 빙판 등)들로 인한 위급 상황들을 가까이 경험해 봄으로써 실전과 유사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실전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것을 태권도의 실전성에 대입하는 과정을 정리하다 보니, 태권도인들이 원하는 태권도의 실전성은 MMA 파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 기술의 꾸준한 반복 연습을 통한 기술의 자동화가 겨루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기상황에서 각성된 채 몰입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며, 그러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매사에 대한 자신감이 그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참고문헌

- ajustsee.egloos.com/482984 법의학 블로그
- 국기원(2010). 태권도 기술용어집. 국기원연구소
- 김경배(2011). 경찰 호신체포술. 상아기획
- 김영수, 김충환(2014). 태권도 품새 응용 호신술. 애니빅
- 네이버 어학사전(2014)
- 배영상(2013). 태권도의 전자호구 충격값과 포스플랫폼 충격력과의 관련성. 한국운동역학회지 제23권 2호
- 엄재영, 안재로, 정인철(2013). 태권도 실전 손기술. 애니빅
- 이종우(2002). 이종우 국기원 부원장의 '태권도 과거'충격적 고백(육성철 기자 인터뷰). 신동아 2002년 4월호
- 정청희, 김병준(2001). 스포츠심리학의 이해. 도서출판 금광
- 최규도(2009). 태권도 몸통 보호구의 충격력에 대한 안정성 연구.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 최치선(2012). 태권도 지르기 동작 시 목표 거리와 지르기 방식에 따른 충격력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 최치선(2013). 태권도 주춤서 지르기 시 골반 종축 선(先) 회전 동작의 운동역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 최치선, 임태희(2013). Gentile의 운동학습 이론에 근거한 태권도 기술체계 분류. 국기원 태권도연구 제4권 3호
- 한국심리학회(2014). 심리학용어사전
- 황농문(2009). 몰입,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 랜덤하우스

제2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2014.7.19.)에 대한 의견서

연제홍

지난 ‘제2차 태권도 월례포럼’에 대해 크게 두 갈래로 정리하여 향후 발전적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하나는 표면적으로 진행된 월례포럼 진행사항을 정리해보면 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목적인 태권도발전 재도약의 기반을 창출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행여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첫째갈래: 현 포럼을 통해 태권도발전 재도약의 기반을 창출해 낼 수 있는가?

[1] 제2차 태권도 월례 포럼 진행사항

‘제2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은 지난 ‘제1차 포럼(5/30)’에서 정리된 ‘향후 월례 포럼 주제 5개 항목 설정’에 의해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그 설정된 향후 토론 5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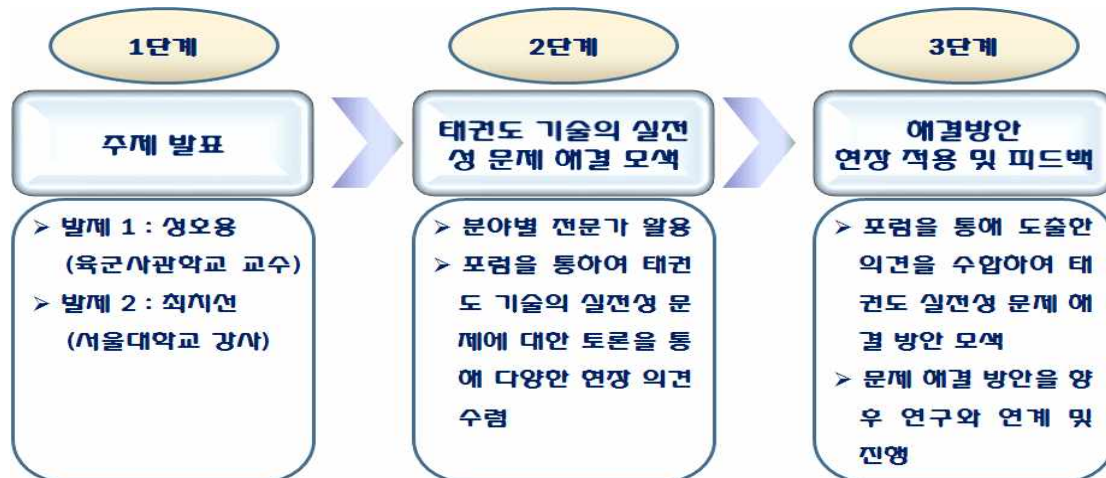
- 1) 7월; 태권도기술의 실전성제고 방안
- 2) 8월; 태권도 승품/단 심사개선방법
- 3) 9월;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방안
- 4) 10월; 태권도교육 표준화방안
- 5) 11월; 태권도산업 콘텐츠 활성화방안

이에 따라 7/19일 월례포럼에서는 2인의 발제자(육사교수와 서울대강사)와 다양한 분야의 태권도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토론회를 연 목적과 그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정리는 주최 측인 연구소의 결과보고서에 잘 나와 있다. 즉 이번 월례포럼은 다음과 같은 3항목으로 정리되었다.

1) 7/1일자 제2차 월례포럼의 필요성 및 목적

결과 보고서 인용: “태권도 기술의 실전성에 관한 담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태권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계층의 연구자 협력 체계 구축 과정을 통해 태권도 관련 전문가(집단)를 양성하고, 연구자의 이론적 지식과 지도자의 체험적 지식을 종합 수렴하여 태권도의 주요 학술적 현안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2) 제2차 포럼 추진 과정 모형도



< 제2차 포럼 추진 과정 모형도 >

3) 결론

*2인의 발제자 결론

육사 교수 성호영- 태권도 기술을 실전 상황에 맞도록 교육 및 수련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안

서울대강사 최치선- 다양한 위협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내용 및 지도방법 개발

*참석자 의견들에 기반을 둔 주최 측 결론

실전'의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며, 태권도 수련자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전(위협)' 상황에 대한 세분화된 구분 필요

○ 태권도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실전(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수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타 무예 수련자 또는 무기 소지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태권도와 타 무예와의 비교연구 및 태권도 기술의 심층 분석 필요함

[2] 월례 포럼의 주제와 발표 및 의견제시가 일맥상통하는가?

이번에 발제된 두 주제는 '실전격투기술'과 '실전기술로서의 태권도'이었다. '실전격투기술'로는 이스라엘 군대무술인 '크라브 마가'를 중심으로 발표되었고, '실전격투기술'은 개인수련 입장에서 '실전의 의미'와 함께 다루어졌다. 아마도 주최 측에서 사전에 태권도의 집단무술훈련과 개인무술수련의 두 측면을 고려하여 사전에 이와 같은 카테고리를 준비한 듯하다.

두 발제자의 결론을 보면 [육사 교수 성호영- 태권도 기술을 실전 상황에 맞도록 교육 및 수련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안], [서울대강사 최치선- 다양한 위협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내용 및 지도방법 개발]로서, 두 사람 모두 현행 태권도교육이 실제 활용

에 부족하며,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평소 태권도 수련방식과 실제적용상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작정 현 수련방식을 무시하고 실용성이 있는 기술로 프로그램을 재편성하면 해결책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것은 마치 전략과 전술의 차이, 목적과 방법의 차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와도 같은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실전성'의 의미해석과 적용에 따라, 태권도는 살상의 무술 내지는 자기보호 및 양생의 문제로 갈라지기 때문이며, 이는 나중에 필연적으로 인성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포럼의 참석자들이 어린이태권도와 성인태권도 관련자들이었다면, 상당히 다른 견해제시를 하였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실전성의 이해차이 때문에 당일 많은 의견들이 동문서답내지는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본인들의 과거 경험담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3] 태권도 기술의 발전 방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몸과 마음(정신)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둘을 잘 사용하는 것이 기술이자 교육의 목적에 해당된다. 무술은 몸을 잘 사용함으로써 강인한 정신력을 함양하고자 하며, 역으로 정신공부에 치중하는 종교인들은 정신을 단련하여 몸과 행위를 바로 잡고자 한다. 예로부터의 한국의 무술과 그 전통인 태권도는 몸의 단련과 예절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병행해서 수련해 왔다고 본다. 따라서 몸을 사용한 잔인한 치명적 살상기술은 고단자가 되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르쳐주지 않은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태권도 기술의 실전성을 논할 때 흔히 회자되는 것이 격투기시합 시합에서의 우월성이다. 그러나 태권도기술은 연령과 몸/마음의 수련단계에 비추어 발전되어어나가는 것이며, 단지 격투기 승패와 상대를 제압하는 무력으로만 평가되어서는 곤란하다. 실제 격투기에 나갈 정도의 체력과 환경에 처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현행 스포츠계의 엘리트 스포츠와 일반국민 스포츠의 양극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오히려 평소 태권도 도장의 현행 수련방식이 그대로 겨루거나 호신술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현행 태권도 수련 및 기술의 수풀이, 즉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미비한 것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양한 맨손무술의 기본은 지르기과 치기이지만, 그 지르기과 치기에 대한 확연한 이해와 체득이 부족할 수도 있다. 기술의 발전이란 결국 몸쓰는 법의 발전이기에, 단지 외형적인 그럴싸한 공방기술을 도입한다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태권도 기술발전은, 서양식 첨단무기로 교체하듯이 그런 식으로 발전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결국 태권도 기술발전은 태권도식 몸쓰는 법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타 무술의 기법을 도입한다고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갈래: 행여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없는가?

[1] 다양한 군대 무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집단무술과 개인무술의 차이점

우리는 흔히 신식무기인 총이 개발되기 이전의 동양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마치 삼국지의 관우나 장비처럼 일당 백이나 일당 천의 장군이 무술고수의 대명사인 것처럼 표현된다. 아마도 TV 사극드라마에서 그러한 식으로 종종 표현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군대는 집단적 행위로서 움직이는 명령집단이며 기세로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고, 전력과 전술에 의해 움직

인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 군대에서 가르치는 무술은 백병전이나 특수임무를 위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사실 군대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선악이나 인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조직이자 구조에 해당한다. 군대무술은 주로 치명적인 타격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무술교육 체계에서는 심성수련이 된 고단자에게만 전수해주는 특성이 있어 왔다. 그러한 치명적 기술의 대부분은 몸의 급소를 주로 공격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너무나도 많은 치명적 공격술이 인터넷이나 폭력영화를 통해 배포되고 있다. 집단적 무술을 군대에서 적용할 때도 역시 집단훈련방식과 개인특수훈련방식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치명적 기술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를 포함한 모든 무술기법의 군대조직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단 군대뿐 아니라 조직적인 경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2] 실전성의 다양한 응용과 해석

이론과 실제의 차이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즉 이론-숙달-실제적용이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비단 태권도수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바로 이러한 숙달의 과정이 교육프로그램에 해당되지만, 현재 태권도 이론부분은 충분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론이란 결국 몸을 쓰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몸을 쓰는 방법의 차이가 다양한 무술로 분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태권도의 몸을 쓰는 방법 즉 이론은 무엇인가? 태권도의 강력한 바른주먹 지르기와 가라데, 유수 및 권투의 실제적용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을 구분 못한다면, 우리가 지르는 주먹은 태권도 지르기가 아니게 된다. 언제까지 태권도 지르기를 $F=ma$ 라는 현학적인 과학적 논리로 설명하고만 있을 것인가? 미끄러운 얼음판위에서 강력한 지르기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강력한 지르기는 강인한 하체의 버팀과 튕김, 그리고 둔부와 척추의 강한 비틀림 등의 종합적인 결과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경험에서 축적된 경험 과학적 이론이 태권도 이론일진대, 나의 몸을 이해하고 그 몸의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수련을 제쳐두고, 어디에서 태권도 실전기술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러한 태권도이론 즉 태권도식 몸사용법을 바탕으로, 외형적인 태권도 실전기술이 비로서 효과적으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잘못된 몸사용법으로 오랜 기간 수련하여 오히려 자기 몸을 망친 경우를 너무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터이다.

[4] 포럼의 5대 키워드; 실전성, 심사, 인성, 교육표준화, 콘텐츠 활성화

상대를 제압하고 살상하려는 정신자세를 가지고 오랜 기간 수련한다면 그 수련자의 심성과 몸의 습관은 상당히 난폭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현대 심리학이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율배반적으로 몸과 마음의 난폭함을 다스리려고 태권도 같은 무술을 수련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인성이 함양되고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지 수련자들에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래 태권도를 수련하면 자기보호능력이나 상대 살상력은 증대되지만, 자연히 인성도 그렇게 고상해지는 것인가? 몸을 강인하게 단련하는 과정중에 인성도 덩달아 강인하면서도 온화하게 되는 것인가? 여태까지의 인생경험을 통해보면 아닐 가능성이 더욱 크다. 과거에는 도제식 교육방식으로 인격이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인성을 함양했지만, 지금은 경우가 매우 다르다. 이제는 스승과 제자의 인간적 무술전수체계가 아닌,

대중 프로그램 교육방식을 통해 태권도 몸수련시의 인격과 감성의 변화과정을 설명해주고 스스로 그 변화경험을 느끼도록 교육방식을 변화해야한다. 이것이 태권도본연의 이론이자 원리교육이라고 생각한다.

[5] 태권도의 독창적인 몸이론과 정신이론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현재 설정된 월레포럼 주제에는 태권도 이론 즉 태권도식 몸사용법에 대한 논의가 전제로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태권도식 몸사용법이란 태권도 외형적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왜 태권도 동작은 마치 탁탁 끊어지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보이고, 중국의 우슈같은 것은 왜 부드럽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들의 동작을 보면 현란하고 절도 있는 동작이 인상적이지만, 연습 중에 이유도 모른 채 몸을 다치고 심한 경우에는 다신 태권도수련을 못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흔히들 태권도 겨루기 선수출신 중 무릎이 성한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 말도 있다. 이제 태권도 수련도 몸에 대한 이해, 신경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심리적 변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기반으로 태권도 수련프로그램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포럼에서 모아진 의견이 실전에 적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그 교육프로그램은 단순히 외형적 기술의 전수만이 아니라, 태권도에서 본 인간 이해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지르기 같은 단순한 기술도 강력한 힘의 발휘와 다양한 실제적 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련시의 인성과 감성의 변화과정과 성취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주고 스스로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실전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8

포럼 자문 내용 II

태권도는 실전성 없는 무예일까?

안재윤

실전이라고 하면 삶과 죽음의 결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그야말로 준비 없는 결투가 아닐까 생각한다.

실전성에 맞는 무술이나 무예가 어떤 것일까요? 검도는 실전에 가능한 무술일까요? 무예 수련을 통해 다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현대인들은 나약해진 정신과 체력을 수련하여 덕목을 깨우쳐 주는 요소라 생각 하며, 상대와 겨눔속에 수련한 자는 비수련자 보다 위급 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하여 태권도를 배우게 되지 않나 싶다. 그리고 실전성이 결여된 태권도였다면 지금까지 태권도가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모든 무술은 실전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본다. 일반 스포츠와 태권도는 엄연히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련 및 훈련이 다르다. 일반 스포츠는 기록을 내어 최고를 가리지만, 태권도에서 겨루기는 상대를 두고 이겨야 하며, 품새는 끝없는 수련을 통해 태권도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방기술의 몸 쓰임에 바탕을 두고 수련하는 정형화된 틀이다. 이것을 무수히 연습해야 실전에 가능한 기술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태권도를 수련한다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수련하느냐에 따라 실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태권도를 보급 발전시키며 생을 마감한 고인이 되신 원로분들이 계신다. 아마 그분들께서 처음 태권도를 접하게 되었던 그 시절에는 태권도가 무서운 무술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저 또한 65년도에 태권도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억으로 싸움 기술이라고 알고 배웠다. 그래서 매일 싸움과 연상해서 배웠던 기억이 어렴프시 생각한다. 이것 또한 실전에 대비한 방법에 준한 것이라 본다.

유난히 외소한 체격에 얻어맞을까 두려워 배운 것이다. 그때는 매일 흑바닥에서 겨루기(대련)를 하다 얻어 맞기가 일수였으며, 밤에 남포불을 끄고 캄캄한 어둠속에서 감각적인 민첩성을 키운다하며 수련을 할 때도 있었다. 신체를 강하게 하기 위해 서로 엮고 뛰며 주먹을 단련 했고, 팔목 안쪽 바깥쪽을 서로 부딪치며 막기 수련을 했으며 정강이 또한 누가 더 세나 하며 정강이를 두드려 단련 했던 때가 있었다. 이렇듯이 태권도 수련 방법에 따라 실전성이 있다고 본다.

그 시절에 시골은 태권도가 뭔지도 모를 때였는데 소문에 날라 다니며 싸웠다는 사람들

이 모두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태권도는 상대를 제압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태권도 사범은 싸우다 경찰서에 가면 무기를 들지 않고 정당하게 싸웠더라도 단련된 손을 보며 무기를 사용했다 할 정도로 태권도 사범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현재 태권도장 실태를 보자 한 빌딩에 두 개가 있을 정도로 도장 숫자가 어마 어마하게 많은 상태인 만큼 도장간의 경영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치열하다. 그렇다 보니 반복적 수련, 자기를 이겨내는 수련에 임해야 하는 태권도의 본질적인 기술 보다는 아이들의 흥미를 충족하며 지속적으로 도장에 나오게 만들기 위한 경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다 보니 변형된 태권도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레크레이션, 학교체육, 줄넘기, 구기운동, 다양한 게임 등등)을 지도하고 있어서 실전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기원 사범 교육을 할 때면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태권도의 기본 동작은 물론 예절도 찾아보기 힘든 요즘의 사범들의 모습이다. 실력이 없는 지도자가 가르치는 태권도장의 교육은 태권도보다 다른 분야에 더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당연히 실전성이 있는 태권도를 지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된다. 시대에 맞는 기술은 당연히 연구되어지고 보완·발전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실전성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초창기의 태권도를 살펴보았을 때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 무술로서 실전성을 가지고 수련되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인이 매료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무술로서 수련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실정에 따라 태권도수련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태권도장의 교육 실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는 태권도지도자 특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태권도의 메카인 국기원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태권도가 실전성을 가지고 실제상황에 얼마나 활용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태권도수련을 통해 호신은 물론 다양한 가치를 두고 수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 글이 두분 토론자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이해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9

포럼 세부 내용

1) 문제 제기

번호	성명	내용	비고
1	이지훈	- 시범이나 과거에 행해졌다고 주장되는 기술들(꺾기, 넘기기 등)을 태권도 기술이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2	김영선	- 태권도 기술의 실전성 제고와 관련하여 첫째, 태권도 기술의 정체성 문제,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할 것인가, 꺾기, 넘기기와 같은 기술이 태권도의 기술인가? 둘째, 실전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셋째,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태권도 기술은 어떤 것인가? 이것들이 어떻게 교육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이재돈	- 태권도 기술의 실전성과 관련하여 기술과 수련, 실전겨루기 대회와 관련된 문제로 논의가 집중되었다. 태권도 기술의 실전성과 관련하여 기술 구성의 단순화, 살상력의 극대화, 다른 무술과의 접목을 어디까지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수련할 때 실전성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강도 높게, 효율적으로 수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전 겨루기 대회를 도입할 경우 실전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 또 하나의 태권도 모습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주제 토의

번호	성명	내용	비고
1	곽기욱	- 발제 내용 중 크라브 마가와 태권도 기술의 구성 내용을 비교할 때 태권도 교본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태권도 교본은 한정되고 기본적인 기술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실전성 부분에서 우월성을 비교하는데 올바르지 않다.	기술
		- 낙법이나 꺾기 등이 태권도에서 주로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태권도는 공격 타이밍에서 타격을 통해 공방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 도장의 운영이 상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며 실전성 있는 기술의 지도와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련
		- 연구를 진행할 때 학위소지자에 한해 연구가 맡겨지고 전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술에 대한 연구 시 실전성과 경륜을 갖춘 태권도인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도
2	노수길	- 과거 태권도 수련시 서기는 주로 전굴자세, 후굴자세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팔괘 품새가 태극 품새로 바뀌고 경기화 됨에 따라 앞서기와 앞굽이 중심으로 서기가 변화하였고 하단공격 및 방어기술과 살상에 이르는 기술들이 사라졌다.	기술
		- 현재 ITF에서 이루어지는 태권도가 실전 태권도라 할 수 있다.	
3	범대진	- 태권도가 가진 동작 수에 비해 실전에 사용될 만한 기술이 없으며, 있는 기술들 또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술
		- 수박이나 택견의 기술들을 도입해야 한다.	
		-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
		- 수련생의 환경과 목적에 따라 다른 커리큘럼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연제홍	- 반복 연습하는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재구성되며 그것이 무의식중에 동작으로 나타난다.	수련
		- 전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몸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몸 사용법을 이용하여 설명하며 새로운 기술의 접목을 이끌어 내야 한다.	

5	김상섭	- 기술의 발전은 긴장성에서 나오며 수련과정에서 긴장을 어떻게 이끌어 내고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몸에서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지도자가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수련
6	강동권	- 실전이란 나와 상대방이 다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경기로 인해 발차기 기술의 발달은 이미 정점을 찍은 상황이나 다양한 환경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에서 나올 수 없는 기술들이 많다.	기술
		- 기술사용의 제한을 최소화하여 손기술이나 관절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전에 가까운 경기가 있어야 태권도 기술이 실전에 가깝게 발달 할 수 있다.	제도
7	유경민	- 태권도의 기술적 분류를 타격기나 유술기로 분류할 필요 없이 이를 종합한 싸우는 기술 즉, 태권도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 태권도는 한국인의 정신이 기반을 바탕으로 여러 다른 무술의 영향을 받아왔다. - 태권도에 그라운드 기술이 없는 것은 넘어지게 될 경우 실제 상황에서 끝장인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기술
		- 태권도의 수련목적이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현재는 실전성을 습득하는데 목적을 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 때문에 지도자들 또한 단련이나 실전성을 지도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 2인 1조로 수련하는 중국의 대타형식이 YMCA권법부에서 수행되어왔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와 관련한 수련체계 개발로 고단자들의 수련을 발전시킬 수 있다. - 실전성 있는 태권도 기술을 수련할 수 있는 목적을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 태권도적인 무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호신술에 접목한다면 경찰이나 군에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련

8	김문옥	- 이미 미국에서는 실전적 태권도 기술이 사용 및 지도되어져 왔으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술을 도입하고 변화해 나가고 있다. 이미 실전무술이 정립되어 있는 단체가 많으며,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태권도가 따라가고 있지 못할 뿐이다.	기술
9	최성주	- 지도자가 자신이 아는 기술만을 지도하고, 수련생이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가르치기 쉬운 기술만을 지도하기 때문에 실전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수련
		- 경기규칙과 심사과정을 바꾸면 실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제도
10	허재성	- 태권도에서는 겨루기, 품새, 시범이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여 발전해 왔다. 그러나 경기규칙과 형식에 얽매어 왔으며, 실전적인 태권도 기술을 사용할 만한 공간이 제공되지 않았다. - 현재 일선 도장에서 실전 기술을 지도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지금의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새로운 형식의 대회를 도입하여 실전성 보유 및 발전을 이루도록 태권도인에게 특정한 목표를 제공해준다면 실전적인 태권도 기술을 수련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제도
11	김옥성	- 타 무술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태권도는 타격기술이 많기 때문에 실전성이 부족해 보인다. - 이러한 태권도의 타격기술을 바탕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체공격이나 손기술로 얼굴 공격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
12	손재영	- 태권도의 기본을 정하고 태권도 기술들을 재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권도 기본을 바탕으로 경기 등의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개념적인 것을 확립 한 뒤 확장시켜 나가야 하며 실전적 기술을 도입한 품새가 개발되어야 한다.	제도

2014 제3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 태권도 승품·단 심사 개선 방안 -



태권도연구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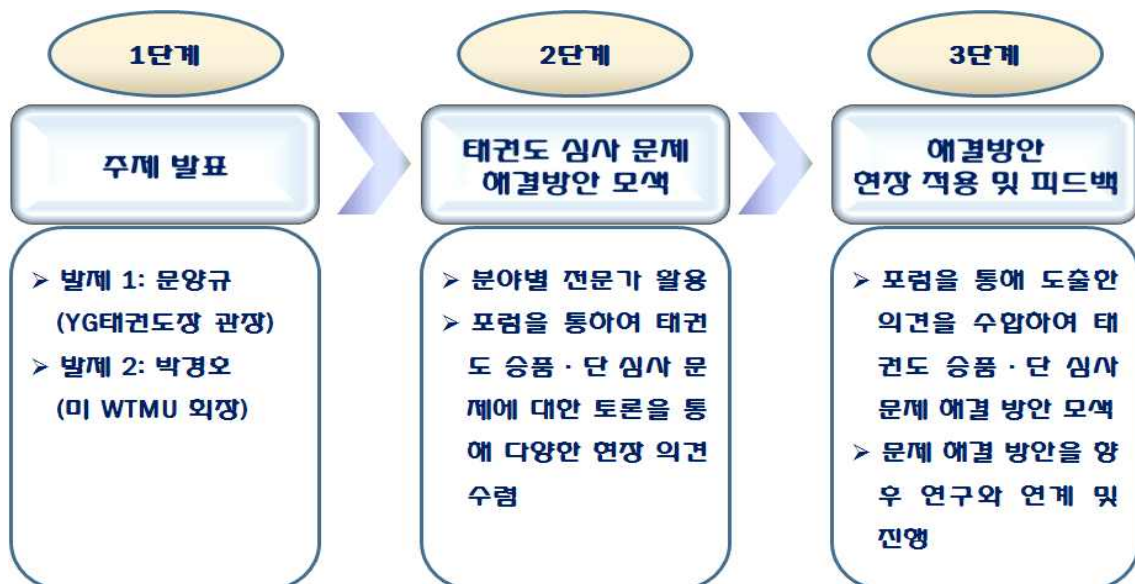
개요

구 분	내 용
• 행 사 명	제3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 주 제	태권도 승품·단 개선 방안
• 일 시	2014.08.30.(토), 10:00~13:00
• 장 소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1층 AREX- I
• 주 최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 참석인원	26명(연구자, 태권도 지도자, 무도(협회) 관계자, 기자, 태권도 산업 종사자등)

2

필요성 및 목적

태권도 승품·단 개선 방안에 관한 담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태권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계층의 연구자 협력 체계 구축 과정을 통해 태권도 관련 전문가(집단)를 양성하고, 연구자의 이론적 지식과 지도자의 체험적 지식을 종합 수렴하여 태권도의 주요 학술적 현안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 제3차 포럼 추진 과정 모형도 >

3

논의 사항

1) 발제자 주요 의견

(1) 국내 태권도 승품·단 심사 개선 방안

- 문양규 (YG 태권도장 / 관장)

구 분	내 용
• 국내 태권도 승품·단 심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새로운 품새 도입과 승단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의 필요성 제시 - 태권도 심사 비리, 부정,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음 - 심사시행권 위임계약 체결의 문제 - 많은 심사자로 인한 짧은 평가시간, 장소 미흡, 긴 대기시간의 문제 - 일관성 없는 평가 기준
• 국내 태권도 승품·단 심사제도 발전 방안	- 심사과목의 개선 - 소규모 심사 시행으로 개인 평가시간 연장 - 심사장과 운영에 따라 인원을 제한 - 국기원 자체적으로 심사 시행 - 평가위원 상시 및 계약직으로 운영 - 심사비에 대한 불법징수 근절 - 객관적 채점방식 도입 및 공정한 평가 필요 - 심사위원에 대한 수시 교육
• 결론 및 제언	- 현재 승품·단 심사제도에는 많은 사건/사고가 있음 -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에 대한 체계적인 구성과 행정 절차 지원을 통해 일관된 심사를 지향하고, 태권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함 - 승품·단 심사 개선을 통해 태권도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성은 전 세계로 확충될 것임

(2) 해외(미국) 태권도 승품·단 심사 개선 방안

• 박경호 (미 WTMU / 회장)

구 분	내 용
• 해외(미국) 태권도 승품·단 심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개인의 태권도 단증 혼용 사용 및 국기원 태권도 단증의 공신력 미약 - 일관된 심사규정(규칙)이 적용되지 못함 - 국기원 심사위원 자격자가 거의 없음 - 심사의 내용(범위)가 지나치게 많고 태권도 이외의 내용을 심사하기도 함 - 과도한 심사비 지불 및 상업적 이용 사례가 많음
• 해외(미국) 태권도 승품·단 심사제도 발전 방안	- 국기원 등록도장 인증서제도 강화 - 4단 이상 심사를 권역별로 분류하고 자격 있는 심사자(고단자)가 심사를 시행 - 정기적인 국기원 심사위원 양성교육 시행 - 심사 내용(범위)에 대한 기준 - 심사비용 공개 및 차등 적용에 대한 서비스 개선 - 태권도 정신(인성) 및 문화적 내용 평가 실시 및 국기원 교육프로그램 도입
• 결론 및 제언	- 국기원 심사의 권위와 공신력을 높이고 회원 도장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 각 협회(단체)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위원 양성 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 운영 및 파견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국기원 규정을 준수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되 미국의 특성에 맞도록 개정·보완함으로써 개별적인 특성도 살릴 수 있도록 유도

2) 참석자 주요 의견

구 분	내 용
① 심사과목	- 고단자(8, 9단) 심사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실기과목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명확한 심사과목 지침을 전달하여 심사권을 위임받은 단체가 이행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조치를 취해야 함
② 심사제도	- 일관성 있는 심사 메뉴얼 개발 -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 심사자 개인에게 해당되는 심사시간을 길게 함 - 심사 당 심사대상자의 수를 제한 - 접수된 심사자에게 시간대를 부여하여 대기시간을 줄임 - 표준화된 심사 공간 확보지침의 마련 - 겨루기 종목의 심사를 실시할 때 안전장치를 마련 -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견제 장치를 마련
③ 평가위원	- 평가위원 심의제도의 구축 - 심사 평가위원수를 증가함 9단자 중 경력과 심사위원의 자질을 갖춘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권위를 세움
④ 심사권 위임 단체	국기원은 심사권을 부여 한 이후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를 통해 올바르게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일관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함

4

결론**국내**

- 심사수수료, 심사채점, 평가기준, 심사 접수 및 진행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심사 매뉴얼 개발, 심사 시스템을 강화 및 증거자료를 녹화하여 심사 소청제도를 실시
- 심사 결과 현장 표기 및 불합격에 대한 명확한 내역 공개
- 단 별 분리 심사 및 시간제 심사 시행

해외(미국)

- 국기원 등록도장 인증제 강화
- 국기원 심사위원 양성교육 실시
- 심사비용 공개 및 차등 적용에 대한 서비스 개선

공통사항

- 국기원의 심사제도 개선 의지 필요
- 각 지역에 국기원의 평가위원 파견
- 심사위원 및 지도자의 윤리적 각성

태권도 심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문양규(YG태권도/관장)

태권도 심사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시도협회에 등록된 대표자(정회원) 중 전문가를 임의 선정,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심층 면접 인터뷰를 요약하였다.

본 연구 결과 현재 특정단체(경기단체)에서 국기원과의 위임 계약을 통해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시행방법의 개선을 위한 내용은 심사 인원 제한, 기본 동작과 필수 동작에 대한 정확성과 숙련도를 평가하고, 현 품새에 대하여는 정확성과 숙련도를 기를 수 있는 새로운 품새 도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인 국기원은 위임 받아 심사를 시행하는 시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을 개선하거나 직접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승단 심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 서론

태권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권도 심사 및 경기 분야 등에서 많은 발전을 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를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원걸(GTN TV 2014.4.8)은 '시도태권도협회 심사과목 선정방법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실었으며, 이태홍(GTN TV 2014.4.24)은 '태권도 공인 심사에 타 무술인 합기도 수련생들이 한 달간만 수련하여 대거 합격'한 것과 '심사에 관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는 기사를 실었다. 문양규(GTN TV 2014.4.25)는 '태권도 심사부정에 관한 제보'가 많으며, '국기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기사내용에 의하면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전국시도협회들이 합기도장과의 심사비리, 협회 임원의 비리,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문양규(2013)는 심사 평가위원의 평가 기준 무시 및 특정체육관의 봐주기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문양규(2012)는 외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우리나라 국기원의 심사를 지켜본 과정에서 짧은 심사 시간과 진행과정에서의 어수선했음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개선의 필요성과 문제 개선에 대한 의견

을 나타내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1품(단)을 심사하기 위해 36개월 수련기간을 거쳐야 하고 심사 과정 또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석한 부모와 관계자들에게 안정된 분위기와 태권도의 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 1인에게 약 4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 충분히 실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그 시간 내 겨루기에서는 2분 3회전으로 실전과 유사하게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하고 있다. 심사 내용과 결과는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부터 결과 발표 과정이 객관화 되어 있다(문양규, 2012).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태권도 심사는 1인 심사시간 품새 3분정도, 겨루기 20초정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시간동안에 충분히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심사 위원과 심사 과정 그리고 심사 환경 등 현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견을 모으거나 제시가 어려운 형편이다.

현장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관장의 의견을 통하여 태권도 심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또한 이에 대한 방안을 정리해 보고 이를 태권도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태권도의 공인 단(품)증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국기원)에서 인정한 자격이다. 이에 따른 규정된 절차에 의해 심사를 보고, 실력에 따라서 매긴 등급을 기재한 증서를 지급한다. 하지만 최초 주관하는 단체(국기원)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에게 위임 계약체결을 맺었고, 이를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산하 시도협회로 재위임 계약을 맺도록 하여 실제 주관하는 단체(국기원)에서는 관리와 운영에 관한 것을 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었다. 단지 시도협회로부터 공인승품·단 심사에서 합격된 연명부를 받아 자격증 발급을 해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국기원에서 대한태권도협회에 재위임 계약서를 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시행하고 있는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시도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심사에 관한 평가위원을 두고, 응심자들을 평가하게 한다. 또 합격한 응심자들 연명부를 각 시도협회에서 작성하여 국기원에 전송하는 가운데 부정과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자체 평가위원을 두고 운영하다보니 객관성의 평가보다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문양규, GTN TV 2014.4.25). 또 현재 태권도 아닌 타 무술체육관에서도 국기원 공인 승품·단을 볼 수 있다며,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 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수련하여 응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또한 100% 합격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이태홍, GTN TV 2014.4.24). 태권도를 배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기원의 심사를 지켜본 과정에서 짧은 심사시간과 진행과정에서의 어수선했음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개선의 필요성과 문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었다(문양규, GTN TV 2014.4.25).

위 내용의 근거로 한 태권도 심사제도의 현황에 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를 연구 참여자들과 논의하였다. 또 연구 참여자의 각 개인이 느끼는 현황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태권도 심사제도의 현황에 관한 문제점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는 현황에 관한 문제점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 짧은 시간문제.
- 장소 미흡.. 응심생들의 불편함.
- 품새 동작을 배우는 과정에서 유. 초등부들의 응심생들이 힘들어 한다.(심사 후 퇴관을 발생)
- 경쟁도장의 지도자가 평가위원으로 있다 보니 '합격'이라는 보장 불투명.
- '객관성'을 띤 평가보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 좌우.
- 수련시간과 기간에 비해 많은 품새 동작을 익혀야 하는 과정(응심과목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수업은 불가능)
- 인원 제한이 없는 심사장소, 응심자와 가족들의 불편함 호소.
- 심사진행시간에 따라 평가 기준 과목도 달라진다.(일관성이 없는 심사진행 방법)
- 많은 인파로 인해 응심자들이 심사에 집중할 수 없다.
-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 전국 시도협회들 간에도 일관성이 없는 평가 기준.

2) 태권도 심사제도의 현황에 관한 발전방안

태권도의 심사제도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하다고 본다. 그래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태권도 심사제도의 현황에 관한 발전방안을 들어봤다.

다음 내용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인터뷰를 한 심사제도의 현황에 관한 발전방안을 요약한 내용이다.

- 심사과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 심사과목 추가(호신술, 격파 등 다양성의 표출).
- 시도협회 차원이 아닌 작은 소규모로 심사시행.
- 심사장과 운영에 따라 응심자 인원을 제한.
- 개인 평가시간을 연장.
- 개인 능력을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심사시간 할애.
- 응심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기억이 될 수 있는 진행프로그램을 개발 필요성(품·단을 취득하기 위해 힘든 과정을 거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진행프로그램 연구).
- 품새, 겨루기만이 아닌 다양한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는 인식의 필요성(태권도의 다양

성).

- 외우는 동작이 아닌 자신의 방어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선, 그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적은 동작이라도 숙련된 동작을 익히는 것에 치중,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동작을 평가).
- 주관적인 채점방법이 아닌 명확하고 객관성이 있는 채점방식 도입.
- 형식적인 심사제도가 아닌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심사제도 시급.
- 태권도 품·단증을 쉽게 취득할 수 없다는 인식변화를 위해 철저한 평가 필요.
- 대기하는 시간을 줄인다.
- 심사 평가위원들의 투명성을 엿볼 수 있게끔 심사점수 즉시 공개.
- 심사 평가위원들의 평가자질 수시교육.
- 전국 어디에서 시행하더라도 일관된 심사 진행방법과 평가 기준은 같아야 한다.
- 주관, 주최가 국기원으로 하고, 책임 또한 국기원에서 져야 한다.(국기원은 평가위원 상시 및 계약직으로 운영, 경기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부당 징수 근절)

Ⅲ. 결 론

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에 태권도 단증은 '국가공인단증'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에 태권도의 승품·단 자격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자격이다. 이는 철저한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보고, 실력에 따라서 매긴 등급을 기재한 증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요한 자격 응시를 하기 위해 일선도장에서는 지도를 하고, 그에 따른 수련자들은 지도를 받고 있다. 하지만 승품·단 심사제도에 문제점은 작금의 현실이 말해주듯 매체로부터 많은 사건사고들이 이를 대신한다.

국기원은 특정단체에게 심사시행에 관한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것이다. 또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들도 없는 것이 태권도의 현실이다. 그리고 심사응심자 인원은 접수 시 제한이 없어 무작정 받는 것이 현실이며, 많은 인원이 접수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심사를 본다. 이는 참가한 응심자 및 가족들에게 심각한 불편함을 초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응심자는 많은 동작을 어렵고 힘들게 익혀왔지만 짧은 시간에 그 표현을 못한 것에 아쉬움이 많고, 그 가족들은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해 식상(食傷)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초급자들은 숙련된 동작의 기술보다 많은 동작을 외우고 익히는 과정이 무척 힘들어 한다. 이로 인해 심사 응심 후 퇴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은 태권도의 많은 동작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동작이라도 숙련된 동작으로써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이 무엇보다 무예로서는 그 가치가 높다고 본다. 또한 태권도의 공인 품·단증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만큼 명확하고 객관성이 있는 평가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관된 심사규정과 과목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많은 동작을 익히고 배우는 것보다, 레벨에 맞는 수련을 함으로써 숙련된 동작을 보여줌과 그동안 배운 다양한 면을 평가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국기원에서는 레벨에 맞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태권도'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아울러, 국기원은 특정단체에게 기득권을 주기위해 승품·단 심사시행권을 위임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승품·단 심사 평가위원들을 상시 또는 계약직으로 두고 이를 시행함이 자격에 관한 위엄과 권위도 지키는 것이라 보이며, 시도협회 관계자들과 회원들 간의 서로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심사의 관한 불신도 사라질 것이다. 국기원에서 상시 평가위원을 두게 된다면 태권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로 인해 꼭 도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장의 지도자들 중 고단자이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는 외면과 젊은 관장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해 폐업과 함께 태권도의 단증 또한 '유명무실(有名無實)'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기원에서는 승품·단 심사비 수입금에 대한 일부를 경기단체(대한태권도협회와 산하 시도협회)에게 '태권도발전지원금'으로 지급하여 현재 회원회비를 승품·단 심사비에 포함해서 받고 있는 문제점(공정위, 소비자들에게 회원회비 및 운영비를 받는 부당한 행위)도 사라질 것이다.

국기원은 태권도의 승품·단 심사를 체계적인 구성과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심사 시행권을 가지고 일관된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태권도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성은 국내뿐만이 아닌 전 세계로 확충될 것이라 사료된다.

6

포럼 발제 내용 II

해외(미국) 태권도 승품·단 심사 개선 방안

박경호(미 WTMU/회장)

그간 양국에서 도장을 운영하며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이나 내용이 수련생들의 연령층에 따른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태권도의 세계화와 인구 저변 확대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수련생의 연령이 낮아 졌고 어른들이 태권도 수련을 기피하는 기 현상이 생기게 되었으나 미국에서는 다소의 변화는 있으나 아직도 성인과 가족 위주의 수련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수련생들의 호신과 건강,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 증대등으로 사회체육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특히 학업성적에 좋은 영향을 끼쳐 어린이 수련생들에게도 태권도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학교 체육으로 들어간 태권도의 경우 시합에서의 결과가 상급 학교의 진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등 청소년 수련생의 증가에 기여한바 크나 성인들의 태권도 수련 기피 현상을 막는데는 큰 도움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바야흐로 세계화된 태권도가 어느 이유에서건 남녀노소가 함께 수련할 수 없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태권도 관계자들은 거대해진 태권도 가족을 유지시켜가며 더욱 태권도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폭 넓은 기술의 개발과 시합 위주의 일관된 제도나 기술에서 벗어나서 건강과 호신을 위한 기술의 발전,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일선 사범들의 교육참여책을 연구 발전시킴으로서 바른 기술을 배우고 지도하는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태권도 지도자들의 기술의 빈곤이나 태권도를 이끌어 가는 중요 기관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일선 지도자들을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하면 이제까지 가꾸어 놓은 태권도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에는 많은 태권도 지도자들과 수련생이 있습니다. 문제는 생존을 위한 생계의 방편으로 과거에 지도자로 활동한 사람들의 제자들이 태권도 이름을 걸고 도장을 운영하며 국기원과과는 무관한 품새를 하고 있으며, 그들을 지도한 사람들이 국기원 단이 없거나 국기원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이유로 바른 태권도 발전에 함께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태권도인들의 단결에도 도움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관계하고 있는 세계 태권도 지도자 연맹은 그들이 국기원과 관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 서 론

1. 해외(미국) 태권도 승품·단 심사 소개

(1) 미국 태권도 현황

- 무도도장수: 약 4만개.
- 태권도장 수: 약 1만5천개.
- 수련 인구: 약 1천2백만명.
- 국기원 회원 도장수: 약 5천개(4단이상 사범 운영도장 : 2,500개 이상).
- 국기원 년 승단자수: 약 3만명 이상.

(2) 심사 규정(규칙)

- 해외 심사의 경우, 국기원에서 태권도 가맹국 협회(단체) 및 개인도장 등에 7 단까지 승품단 업무 및 심사권을 위임하고 있음(서류심사).
-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사범이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실시함.
- 특히 미국은 국기원 품/단증 심사가 아닌 개인 또는 사설단체가 그들만의 규정을 만들어 심사를 하고 태권도 단증을 발급하는 곳이 많음.

(3) 심사 위원

- 지도사범의 요청에 의해 지역 유지 또는 태권도 고단자가 방문하여 심사위원으로 활동(국기원 심사위원 자격과 무관).

(4) 심사 내용

- 기본동작(서기, 차기, 지르기 등).
- 품새(각 승품/단까지 배운 것 대부분 심사, 예> 2단 승품시 태극1장~8장, 고려, 금강까지 심사, 기타 팔괘 품새, 개인이 만든 품새 등).
- 겨루기(상급자 및 동급자와의 경기 겨루기 심사, 일보대련, 삼보대련 등).
- 격파(승품 / 단에 따라 종류와 강도가 높아짐).
- 체력(태권도에 필요한 체력 심사).
- 호신술(태권도를 응용한 호신술 심사) 및 무기술.
- 한국어(태권도 용어 및 교육에 필요한 한국어 / 선택사항).
- 태권도 이론(태권도 전반적인 이론 / 정의, 역사 등) 논문 및 구술심사.
- 태권도장 생활(교육 참여율 및 인성, 예절, 규칙 준수, 승품/단 의지 등).
- 기타(도장에서 추구하는 내용으로 짧게는 2시간부터 하루종일 심사 함).

(4) 심사 기간

- 1단(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수련해야 심사에 응시함.
- 최근에는 한국과 같이 승단기간이 짧아지는 도장이 늘고 있음.

(5) 심사 비용

- 각 협회(단체) 및 도장별로 승품/단 심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심사 비용이 상이하게 차이가 남.
- 각 태권도장에서는 1단의 경우 대략 \$500 정도(도복, 띠, 국기원 품/단증, 트로피, 파티 등 비용 포함).

2. 한국과 해외(미국)의 승품·단 심사 차이

- 한국의 경우, 유소년 위주이나 미국의 경우 가족단위 및 남녀노소 등 계층이 다양함.
- 한국은 협회와 국기원이 시행하는데, 미국은 도장이 자체적으로 시행함.
- 한국은 상급단체가 대부분 통제하지만 미국은 심사기간, 심사위원, 심사내용, 심사비 등을 사범이 개별적으로 정하여 시행함.
- 미국은 엄숙하고 경건한 예식의 형태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가 끝난 후에는 심사의 연장선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의 형태로 진행됨.
- 미국은 품, 단증 수여식을 성대히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편임.

II. 본 론

1. 해외(미국) 태권도 승품·단 심사의 문제점

(1) 미국 태권도 현황 파악의 어려움

- 많은 태권도장이 마셜아츠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어 태권도 승품/단 심사 요구에 대한 수요예측이 어려움.
- 미국에서의 태권도장(마셜아트 포함)은 개인사업이므로 사범의 필요에 따라 국기원, 사설단체, 개인의 태권도 단증을 혼용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국기원 태권도 단증의 공신력이 미약하다는 의미임.

(2) 심사 규정(규칙)

- 국기원의 통일되고 일관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협회(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이 광범위하여 심사 규정(규칙)적용이 어려움.

(3) 심사 위원

- 협회(단체) 임원이나 고단자(고단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실제 심사위원으로 파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국기원 심사위원 교육받은 자격자가 거의 없음.
- 일관된 심사 기준이 없고 주관적 판단과 경험에 의존함.

(4) 심사 내용

- 심사의 내용(범위)이 지나치게 많고 태권도 이외의 내용을 심사하기도 함
- 태권도실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보여주기식의 심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음.

(5) 심사 비용

- 한국은 \$30도 안되는데 미국은 \$70을 받으면서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불만이 팽배함
- 개인 및 단체에 따라 국기원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차이가 있어 불만의 원인이 됨.
- 과도한 심사비(\$500 이상) 때문에 수련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2. 해외(미국) 태권도 승품·단 심사 개선 방안

1) 미국 태권도 현황 파악

- 태권도 승품/단 심사에 대한 현황과 수요 예측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
- 국기원 등록도장 인증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실시되도록 강화책이 있어야 됨.

2) 심사 규정(규칙)

- 국기원 심사 규정을 기반으로 미국식 심사규칙을 개정 · 보완하여 보급.
- 4단 이상 승품/단 심사는 각 권역별로 심사 지역을 분류하고, 국기원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심사자(고단자)로 하여금 권역내에 모여서 심사를 시행하도록 유도.
- 3단 이하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사범(심사위원)의 입회하에 심사를 시행하도록 유도.
- 장기적으로는 심사신청서에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자의 서명이 들어가도록 개정.

3) 심사 위원

- 권역별로 정기적인 국기원 심사위원(행정포함) 양성교육 시행.

4) 심사 내용

- 심사 내용(범위)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적용.
- 태권도 정신(인성) 및 문화적 내용 평가가 심사에 포함되어야 하며 국기원이 교육프로그램 제공.

5) 심사 비용

- 국기원 심사비가 차등 적용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심사비가 높을 경우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할 것임.

Ⅲ. 결 론

1. 국기원은 해외 사범들에게 모두가 인정할 만한 심사비의 내역과 심사비에 해당하는 부가 서비스를 공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서비스개선).
2. 국기원은 지역(권역)별로 심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회원을 확보한 협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국기원 심사의 권위와 공신력을 높이고 협회(단체)는 회원 도장들에게 낮은 자세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3. 각 협회(단체)는 태권도장에 규정 홍보를 통해 인증된 태권도장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기원은 지속적인 교육지원과 프로그램 제공.
4. 각 협회(단체)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위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포함) 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 운영 및 파견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5. 국기원 규정을 준수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되 미국의 특성에 맞도록 개정
 - 보완함으로서 개별적인 특성(사범, 지역)도 살릴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실시.

제3차 태권도월레학술포럼자문 소견서

곽기옥

제3차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격이 높은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을 만들고자 국기원에서 참고하고 개선해야 할 많은 의견들을 나누었으며 그 결과를 자문소견서를 통해 제출합니다.

참석자들의 의견

1. 심사과목

A :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심사지침을 만들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국기원에서 만들어진 심사지침을 각 시도협회로 보내 일괄성 있게 심사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B : 고단자 심사(8, 9단)를 실시함에 있어 최근 취득 나이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품새, 겨루기, 격파, 연결발차기 등 6, 7단과 같은 내용으로 실기종목을 추가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감수의견 : 8단까지는 위의 의견에 일리가 있으나 9단 심사는 현재 심사과목에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태권도의 길을 걸어온 과정과 공로, 연구실적, 제자를 길러낸 실적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심사제도

A : 한 번에 심사를 보는 인원이 너무 많다. 인원수를 제안하여 심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경남의 한 지역에서는 심사위원 3명이 한번에 15명씩 세워 놓고 주말동안 6,000명을 심사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따라, 국기원에서는 심사에 따라 심사인원을 제한하거나, 심사위원 당 심사자의 수를 제한하고 심사자의 심사시간을 늘려야 한다.

B : 심사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심사비를 공지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심사비의 일부는 일선 도장의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C : 고단자 심사에서 제출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은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논문집에 게재해야 한다.

D : 심사결과에 대한 소청시스템을 만들어서 부당한 심사를 건재하고, 심사결과의

근거로 삼아 이의를 제의하는 심사자 또는 지도자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야 한다.

E : 심사 결과는 종목이 끝난 즉시 전광판과 같은 기구를 통해 즉시 공개하여 의문이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

3. 대학교 심사

A : 국기원이 심사를 위임한 대학에서 심사를 실시 할 때 품새와 겨루기만 실시를 하며, 학생의 부상을 염려하여 쉼도우 복싱과 같은 가상겨루기를 한다.

B : 문무를 겸비한 지도자를 배출해야 하는 대학교 태권도학과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4. 평가위원

A : 승품·단 심사의 평가위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한 판정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평가위원이 직위에 합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심사 시 심사위원 끼리 잡담을 하거나 불공정한 판정을 내릴 경우 국기원에서 자격을 재검증해야 한다.

자문 의견서

승품·단 심사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심사자를 소수의 심사위원이 짧은 시간 동안 평가하는데 있다. 특히, 심사권의 위임과는 상관없이 심사와 관련되어 총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국기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국기원에서 전 세계가 공유 할 수 있는 심사지침서를 만들어 일괄성 있는 심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2.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 1) 충분히 심사 할 수 있도록 심사시간을 늘리고 소청을 위하여 심사 전 과정을 녹화하여 보관한다.
 - 2) 소수의 평가위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9단회'중 경륜과 심사에 적합한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위원의 권위를 높여야 하며 평가위원을 확대하여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심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접수된 심사자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시간대를 지정하여 시간별로 나누어 참가하도록 하여 대기시간을 오래 두지 않고 심사가 끝나면 귀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국기원은 문무를 겸비한 지도자를 양성 하는 대학교 태권도학과와의 긴밀한 교류와 기술협력, 연구 등을 통하여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4. 평가위원은 심사에 전문성을 가지며 사심을 버리며 불합리한 판정을 해서는 안 된다. 평가위원 선정은 학력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경력이 더 중요하다. 평가위원 심의 제도를 만들어 수시로 평가하여 자격이 미달되는 위원은 즉시 퇴출 시켜야 심사의 위상이 존립 될 수 있다.

태권도 심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자문서

서성원

국기원태권도연구소가 8월 30일 주최한 제3차 태권도월례학술포럼의 주제는 태권도 심사제도의 현황과 발전 및 개선 방안이었다.

이날 문양규 YG태권도장 관장은 태권도 심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발제했고, 박경호 WTMU 회장은 미국 태권도 승품·단 심사의 개선 방안을 발제했다.

두 발제 모두 일선 태권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현행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주었다.

하지만 3시간 남짓한 시간에 심사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활발한 토론과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1품(단)~3품(단), 4~5단, 6~9단 등으로 나눠 세밀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특히 지도자 반열에 들어서는 4~5단 심사와 고단자 반열에 들어서는 6~9단 심사의 폐단도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했다.

이와 함께 심사비 항목 공개를 비롯해 심사 평가시간 연장, 심사과목 확대, 심사평가 공정성 강화, 평가 심사위원 교육 강화 등을 세분화하여 밀도있게 다뤘으면 좋았을 것이다.

현행 심사제도는 태권도의 질적 가치를 하락시키는 주범이다. 발제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각종 불합리한 관행과 부정 비리는 태권도의 사회적 이미지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 중의 하나다.

이 같은 지적은 10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태권도 제도권, 특히 심사제도의 최상위 기관인 국기원의 방관과 미숙한 행정처리로 심사제도의 적폐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기원의 주요 기능은 7가지다. 그 중에서 승품·단 심사를 통한 품증과 단증발급은 국기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국기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기원이 적극 나서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3년 전에 추진했던 공인 도복 개발과 기능성 품새개발, 심사예식 프로그램 개발 등도 품평회와 공청회를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는 마당에 심사제도 개선마저 등한시한다면 국기원이 설 곳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현행 심사제도의 문제는 태권도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태권도와 관련된 민원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바로 심사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9월 심사비 공시제도 도입을 비롯해 심사비 내역 공개, 실행매뉴얼 개발 등을 태권도계에 요구했다. 지난해 9월에는 태권도 단체 감사 지적 사항으로 심사수수료 이중 부과, 심사채점 즉시 표출, 심사합격기준 엄격 시행 등을 주문했다.

이제 심사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동안 심사제도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핵심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제도를 수요자(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심사에 응심하는 수련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심사 문제를 접근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9

포럼 세부 내용

- 최종원 : 승품단 심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서울시협회에서 승품·단 심사를 진행하고 국기원에서 보고 있음. 모든 지역에서 국기원에서 심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고단자(6, 7, 8단) 심사를 하루에 보는데 시간도 짧고, 심사가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다. 고단자 심사를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셋째, 8단, 9단 응심자의 심사내용을 더 강화해야한다(6, 7단의 실기시험을 봐도 무관하다). 실력향상과 건강, 단의 가치와 품격,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 간사 : 기사가 카더라 하는 식, 소규모의 일을 확대해석 한 것이 아닌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단체가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취재가 되었는지, 너무 일반화 하여 확대의 오류가 없는지 궁금하다.
- 문양규 : 사실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명예 훼손에 해당됨으로 사실에 입각한 내용만 제공된다. 국기원 심사관련 책임자가 언급하길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에 단증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국기원에서 제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권리가 국기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부분은 국기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각 시도협회별로 심사비리에 대한 민원이 이미 들어온 상태이다. 국기원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에 대한 제지나 해결하려는 움직임 없이 방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 안현기(그리스) : 지역별로 관련 심사위원을 바꿔서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 심사시간의 경우 시간을 나눠서 제시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다. 심사위원이 심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단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
- 김창섭 : 고단자를 위한 태권도 정신철학 아카데미를 제안한다. 심사에서는 고단자들을 위한 정신이나 움직임에 대한 토의의 장이 필요하다.
- 문양규 : 태권도 6단 이상의 단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신과 철학이 좋다고 할 수는 있으나 외부의 시선은 다르다. 사회적 질서가 깨져있는 부분이다.
- 어경찬 :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주관적 심사기준보다는 객관적 심사기준이 필요하다.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고 세세한 부분까지 기준을 만들면 지도가 가능하고, 평가(심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술의 구현방식이 자세하게 품새 채점기준으로 제시되어있듯이 명료하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사점수를 바로 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뉴얼을 통해서 심사와 장소를 공시화 시킨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투명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도장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이영선 : 파격적인 발상이 될 수 있다. 국기원과 개인의 소통이 도장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심사제도의 핵심론적이 어떤 점으로 개선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은 양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간단 명료하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소규모 도장에서 도장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질을 강조할 수 있어 나름의 장점이 있다. 반대로 홍보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김한주 : 태권도 도장이 심사를 신청하는 이유가 태권도의 가치를 부여받고자 하는것인데, 심사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왜 하루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심사를 봐야 하는가. 꼭 정해진 시험 기간이 필요한 것인가? 시간적 할애를 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확보된 재원이 국기원에서 정말 재원확보를 위해
- 설성란 : 정책이 변화되면 그에 따라 소속된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다. 심사 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변화 가능한 부분부터 차츰 변화하여 도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손재영 : 실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객관화된 종목의 제시가 필요하며 필기시험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 서성원 : 초단, 저단, 고단자 별 / 환경적 / 국내외 / 태권도의 질적 가치를 가장 하락 시키는 심사제도, 국기원은 심사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 심사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통일주의 및 예산 점검하는데 필요하다.
- 이영림 : 심사위원들의 교육과 전문성이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자격을 받기 위해 체계적인 지도과정을 받고 있다. 근데,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다르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다. 국기원의 기준을 시도협회에서 이해를 하는 것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 설성란 : 고단자 논문주제를 받을 때 평가를 할 때 연구소 논문집에 실는 것이 필요하다.
- 김한주 : 평가위원제도를 받으셨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 김진호 : 심사위원의 실기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심사자격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지도자는 도복을 입고 운동을 지속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 강재홍 : 심사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도장에서 운동을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질적으로 퇴보된다고 생각한다. 격파에서 진짜 송판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심사시간을 늘리고, 심사가 있을 때 심사인원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 김성근 : 심사위원의 교육을 강화해서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해 계약직원을 파견하는것도 필요하다. 불합격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소청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적장애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안현기 : 심사로 인하여 자원이 발생하여 태권도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 심사시간을 명확히 하여 대기시간을 줄여야 한다.
- 신경범 : 개회식은 있는데 폐회식이 없다. 심사가 너무 경시된다.
- 이학선 : 사범교육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자를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어 악순환이 되는 것 같다.
- 박범진 : 국기원 심사 매뉴얼의 구체화는 그 제도를 이행을 하였는지 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녹화를 실시하고, 소청을 가능하게 하여 객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뉴얼과 근거자료를 마련을 한다면 그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없다.
- 김진영 : 단별로 심사를 따로 봐야 하고, 심사를 보는 품새 자체가 문제가 있다.
- 최종원 :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사범 스스로, 일선 지도자가 거듭나야 한다.
- 곽기옥 : 일정의 탈락률이 필요하다. 합기도에서 나타난 단증비리는 지금의 심사기준에서 문제될 일이 없다. 명확한 단계 따른 기준이 나온다면 운동을 그만큼 해야 할 것이다. 축탁직을 선별하라고 하였는데, 8, 9단 사람들을 축탁직으로 선별을 한다면 학부모들도 이해를 하고 사범들도 분발 할 수 있다.
- 김영선 : 심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동체육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심사인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심사의 질을 높여야 정확한 심사내용과 판단 기준이 생길 것을 사료된다.
- 이준호 : 심사를 할 때 겨루기를 하는데 보호구를 입히지 않고, 나이차이가 나는데 심사를 보고 있다.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크다.
- 문양규 : 국기원이 자꾸 자격증을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2014 제4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 방안 -



태권도연구소

1 개요

구 분	내 용
• 행 사 명	제4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 주 제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 방안
• 일 시	2014.09.27.(토), 10:00~13:00
• 장 소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1층 AREX-III
• 주 최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 참석인원	25명(연구자, 태권도 지도자, 무도(협회) 관계자, 기자, 태권도 산업 종사자등)

2 필요성 및 목적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담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태권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계층의 연구자 협력 체계 구축 과정을 통해 태권도 관련 전문가(집단)를 양성하고, 연구자의 이론적 지식과 지도자의 체험적 지식을 종합 수렴하여 태권도의 주요 학술적 현안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제4차 포럼 추진 과정 모형도 >

3

논의 사항

1) 발제자 주요 의견

(1) 동·서양 인성이론 비교를 통한 태권도인성 개념 검토

- 곽낙현 (한국학중앙연구원 / 전임연구원)

구 분	내 용
• 태권도인성 개념 정립의 필요성	- 태권도인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나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지 않고 교육의 필요성만을 강조 - 태권도인성이라는 현상을 연구하기 전에 범위와 틀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없었음 - 동양의 사회 문화적 뒷받침(동양학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태권도의 동양적 측면을 강조하고, 실천적 수련체계를 사회과학의 체계적 전략(서양학의 이론 분류체계)을 도입하여 동·서양의 장점을 반영한다면 합리적 태권도인성 개념 수립 가능
• 동·서양의 인성 이론 비교	- 서양의 인성 이론 비교 ·콜버그(Kohlberg)의 도덕발달론(구조발달론 접근) ·레스트(Rest)의 4단계 도덕행동 모형 ·윌즈와 브레드마이어(Shields & Bredemeier)의 12가지 도덕행동 모형 - 동양의 인성 이론 비교 ·유교의 사단(四端)과 인성 ·불교의 팔정도(八正道)와 인성 - 동·서양 인성이론 비교 ·동·서양 인성이론과 태권도 인성이론 비교 ·한국 전통사상과 인성덕목 비교
• 결론 및 제언	- 태권도 인성론의 통합적 접근 제시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에서의 접근 - 태권도 인성의 실천영역 제시 ·'나다움', '너와나', '우리다움', '더큰우리' 단계 - 태권도 인성덕목 및 인성교육 체계 제시 - 태권도인성 교육을 위한 인문학 융합 연구 제언

(2) 태권도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 최종구 (상도태권도인성코칭센터 / 대표)

구 분	내 용
• 태권도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제기	- 인성교육의 개념 제시 - 태권도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제기 ·실태->개발->적용->확산 측면 - 태권도 수련과정을 통한 인성교육의 개념과 방향, 체계적인 태권도 인성교육 개발과 활성화 정책 필요 제시
• 태권도 인성교육의 현장 실태, 개발, 적용 및 확산 방안	- 태권도 인성교육 현장 실태 제시 ·도장 : 교육적 측면보다 단회성 이벤트에 가깝거나, 주관적 견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비체계적 인성교육 형태 ·경기 : 선수들에게 인성교육은 이뤄지지 못함 - 태권도 인성교육 개발 방향 제시 ·인성이 좋아지려면 인성교육이 신체활동에 알맞게 구성되어야 함 ·KTA 태권도인성교육 제시 : 24개의 인성덕목(자기가 치영역 12덕목, 대인관계영역 8덕목, 사회적정의영역 4덕목) - 태권도 인성교육 적용 방안 제시 ·태권도장-학교-가정-지역사회-더큰 사회의 상호 협력과 책임의 분담(소통) 필요 ·태권도인성교육이 사회로 융합되어야 함 ·태권도인성교육 사명을 가진 사범 교육 및 양성 - 태권도 인성교육 확산 방안 제시 ·태권도기관의 협력 필요 ·전담센터 개설을 통해 지도자를 양성하고 도장->학교 및 유치원 등으로 확대
• 결론 및 제언	- 태권도인성교육에 대한 개념화 수립 - 태권도 인성교육 실태 해소를 위한 인성교육 개발, 적용 및 확산 방안 적용 - 인성교육과 사회성-감성을 중점으로 한 태권도 인성교육 연구 진행 필요 - 태권도 인성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 활용할 필요성 제언

2) 참석자 주요 의견

구 분	내 용
① 태권도 인성교육 개념	• 태권도 정의, 정신, 정체성, 기술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표준화 과정이 이뤄져 문제이며, 우선적으로 태권도 정신 등의 합의가 필요함 • 태권도 정신 함양 자체가 인성교육이므로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의문 제기
② 태권도 인성교육 방안	• 인성교육은 콘텐츠(프로그램)보다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지도자(교사, 심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인성교육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인성교육 콘텐츠(5분 동영상) 제작을 통해 감성적 인성교육 활성화 필요 • 대상별 구분이 필요하며, 태권도 캐릭터 및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인성교육 필요 • 태권도 수련시간 내,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 필요 • 지도자의 술선수범을 통해 인성교육이 완성됨 •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지도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방안이 없음 • 태권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함
③ 태권도 인성교육을 위한 기관 지원	• 태권도장의 경영과 인성교육 간의 갈등을 해소할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함 • 태권도 인성교육 자격제도 시행 필요 • 인성교육 과목, 콘텐츠, 우수 사례 등을 국기원 차원에서 개발하고 보급까지 책임져야 함 • 태권도 인성교육이 학교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합의가 필요함 • 태권도인성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적용과 지도자 교육(양성) 필요

4

결론

-
- 태권도 정의, 정신, 정체성, 기술 등 정의적 영역의 내용이 인성교육 내용에 함축되어 태권도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태권도 인성교육을 위한 지도자 교육(양성)이 필요
 - 태권도 인성교육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적용 과정에 국기원 지원이 필요함
-

동서양 인성이론 비교를 통한 태권도인성 개념 검토

곽낙현(한국학중앙연구원/전임연구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태권도인성교육은 몸의 수련 또는 몸과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정신을 바로 세우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는 개념
- 태권도 교육은 주로 도장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도장은 80년대에 태권도로 신체를 단련하는 것을 강조하던 것에서 90년대에는 교육에서 경영으로 개념이 확장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점차 수련 개념이 변화
- 태권도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중요해지고, 수요자들도 도장에서 인성교육을 요구하게 됨. 사범들은 수동적인 형태로 인성교육을 활용하던 것에서 태권도 수련과 인성을 통합하려는 방법을 찾고 시도하려는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함. 도장에서 태권도를 통해 할 수 있거나 태권도와 결부시켜 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갈증. 태권도인성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활용되기 시작
- 태권도인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나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지 않고 교육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면서 도장 홍보용으로 인성교육을 접목 하는 태권도 현장을 비판함. 인성에 대한 정확한 의미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인성교육은 효율적으로 수련생들의 인성을 개발하지 못할 소지가 큼. 또한 각 기관별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인성교육의 효과를 드러내지 못한 한계를 입증

2) 선행연구 검토

- 김경지 등(2003), 정현진(2004), 전익기(2005), 정유근·김용한(2008), 박대복(2009), 이경식(2009), 정재환(2012) 등 태권도인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음. 그러나 태권도인성이라는 현상을 연구하기 전에 범위와 틀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없었음.
- 대한태권도협회가 태권도인성을 실천적으로 개념화하고 매뉴얼로 개발한 김병준 등(2013)의

《태권도인성교육》 연구는 태권도인성 교육을 하나의 표준화 사례로 제시함.

- 수련생의 수련단계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자기가치', '대인관계', '사회정의'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 기준은 개인 수준에서 실천이 가능한 덕목은 '자기가치' 영역, 자기와 타인의 관계가 중시되는 덕목은 '대인관계' 영역, 개인과 타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덕목은 '사회정의' 영역으로 함.
- '자기가치' 영역의 인성덕목으로는 예의, 정직, 인내, 책임감, 성실, 절약정신, 자신감, 자기존중, 신중, 용기, 주도성, 열정 12덕목. '대인관계' 영역의 인성 덕목으로는 배려, 우정, 용서, 신뢰, 존경, 리더십, 사랑, 공평의 8덕목, 지역사회, '사회정의' 영역의 인성덕목으로는 협동, 준법정신, 애국심, 정의 4덕목을 설정함.
- 태권도 기술체계를 중요시 하고, 실천 중심의 일반화 즉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인성을 체험하고 그 체험에서 얻는 가치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체계를 기반으로 잘 반영하고 있음. 눈으로 볼 수 없는 잠재변인인 태권도인성을 현장에서 보다 손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체계화 하고 개념화 한 것에 의미가 커 보이지만 글로벌 태권도를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관과 무술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3) 연구의 기대효과

- 합리적인 태권도인성 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방략은 없는 것일까? 태권도인성을 합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방략으로는 우선 동서양을 대표하는 인성이론의 특성비교를 토대로 이론적 기반을 다짐으로써 태권도인성의 설계도를 만드는 것임.
- 동양의 사회 문화적 뒷받침을 토대로 태권도의 동양적 측면을 강조하고, 실천적 수련체계를 사회과학의 체계적 전략을 도입하여 동서양의 장점을 반영한다면 합리적인 태권도인성 개념의 수립이 가능함.
- 태권도인성은 글로벌 태권도를 지향한다. 우리나라 태권도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전세계인이 태권도수련을 통해서 문화와 정신을 교류할 수 있는 통합적 개념 정리가 요구 됨.
- 동양적 인성특성과 서양적 인성특성의 융합연구는 태권도인성이 글로벌을 지향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할 관문임.
- 동서양의 인성 개념 고찰을 통한 태권도인성 개념의 수립은 태권도의 정체성 즉 역사, 정신 철학, 교육적 가치와 글로벌을 타깃으로 한 교육기반 확립을 위해 중요한 시도임. 동서양 학문이 지향하고 있는 중요한 관점을 고려해서 장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태권도의 몸과 기술에 대한 정체성은 동양학적 관점으로 몸짓을 이해하는 것이 합당함. 그 개념을 포괄하기 위해서 동양학적 이론 기반을 사용할 때 어울리는 경우가 대부분임. 태권도인성을 태권도다움으로 개념화하고 이론화하기 위한 출발도 결국 동양학적 그리고 한국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동양학적 인성 이론은 인성을 형이상학적으로 몸짓과 마음을 잘 연계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에 장점이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체계화 하고 현장에 녹이기 위한 범위나 전략에는

- 한계를 가짐. 이런 면에서는 서양학의 학문적 체계와 구분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 동양학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서양학의 이론 분류체계를 활용한다면 태권도인성이라는 무술적 가치를 고수하면서 현장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태권도인성 개념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II. 본 론

1. 서양의 인성 이론

- 서양 인성 개념은 Kohlberg(1986)의 도덕 발달론과 Rest(1986)의 도덕 행동론이 대표적임. 스포츠분야에서는 Shields & Bredemeier(1995)의 스포츠도덕행동 모형이 있음.

○ **콜버그(Kohlberg)의 도덕발달론(구조발달론 접근)**

- 3개의 도덕발달 구조는 ①관습 이전 수준, ②관습 수준, ③관습 이후 수준으로 구분
- 3개의 도덕발달 구조는 두 개 단계씩 세분화하여 총 6개 단계로 도덕추론을 구분

- 표. Kohlberg의 도덕추론 모형

수준	단계	특성
관습 이전 수준의 도덕성	1단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2단계	개인 이득을 취하는 행동
관습 수준의 도덕성	3단계	부모, 지도자, 또래와 같이 주변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하는 행동
	4단계	사회질서에 준하는 행동
관습 이후 수준의 도덕성	5단계	계약(합의)과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행동
	6단계	보편적인 윤리원칙에 따라하는 행동

: Kohlberg(1986)

- 콜버그가 제시한 도덕추론의 각 단계들은 도덕적인 결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고체제로 정의
- 각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해 갈수록 그 사고체계는 이전의 단계보다 더 광범위하게 상황을 해석하고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더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발전
- 사고체계는 단계를 거칠수록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감정이입이 포함되고, 사회문제를 일반 원리에 근거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발전
- 콜버그가 지향하는 도덕추론의 발달 방향은 사회체제, 보편성, 사회 구성원으로서 관습을 뛰어넘는 공동선과 미덕에 기반을 둔 선택과 행동을 중시

○ 레스트(Rest)의 네 가지 구성요소 도덕행동 모형

- Rest(1986)는 인지적 차원에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과 실제 행동까지를 연결하는 과정을 단계로 나누어 도덕행동 모형을 완성
- 도덕행동을 결정하는 네 가지 구성요소는 1단계 상황이해, 2단계 상황판단, 3단계 가치결정, 그리고 4단계 실제행위로 구분

- 표. Rest의 도덕행동 모형

단계	심리과정	내용
1단계	상황이해: 인간마다 상황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능력 달라	-가능한 행동이 무엇인가? -자신을 포함해서 누가 영향을 받는가? -이해관계 상황에서 득과 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단계	상황판단: 도덕적으로 상황에 맞는 행동에 대한 경우의 수를 떠올려 보고 판단	-어떤 판단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선한가?
3단계	가치결정: 떠올린 판단을 토대로 여러 가치들과 비교를 통해 의사결정	-어떤 결정이 도덕적으로 옳고 더 가치 있는가? -여러 가지 가치들과 비교
4단계	실제행위: 세 개의 단계를 거쳐 결정한 도덕적 행동 실천	-위협이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인내심과 자아강도에 따라 행동 자기충족예언에 합당한 행동

: Rest(1986)

- 레스트는 인지적 도덕 판단 과정을 체계화하면서 실제행위가 나타나는지에 관심
- 도덕적 수준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마음먹음과 행위가 같음. 여기서 마음먹음이란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가장 바탕
- 레스트는 심리과정이 행동으로 표출되어 실제와 연계될 때 올바른 인간상으로 파악.
- 예) 태권도에서 수련을 최종 목적인 심신일여(心身一如)의 개념화

○ 쉴즈와 브레드마이어(Shields & Bredemeier, 1995) 12가지 구성요소 도덕행동 모형

- 쉴즈와 브레드마이어(Shields & Bredemeier, 1995)는 스포츠와 체육현장에서 도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이고 폭넓게 제공
- 도덕행동 과정은 레스트의 네 단계를 활용,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전문선수 집단, 생활체육 집단으로 구분하여 상황적 요인, 개인의 역할이나 자아개념 같은 개인능력, 그리고 자아 과정으로 나누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
- 쉴즈와 브레드마이어가 제안한 12가지 도덕행동 모형

표. 12개 도덕행동 모형(Shields & Bredemeier, 1995)

영향요인	과정			
	1. 이해	2. 판단	3. 선택	4. 실천
A. Contextual factors 상황요인	Goal structure (motivational climate); situational ambiguity 우승	Moral atmosphere 팀 분위기(반칙을 해서라도 이기기 또는 반대)	Domain cues (이유: 상금 VS. 교육)	Power structure 구조적인 힘에 의해 실제행동 달라져
B. Personal competencies 개인능력	Role taking; perspective taking 역할수용(관점 채택)	Moral reasoning 도덕적 추론	Self-structure 자아개념	Autonomy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자율성이나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에 따라 달라져
C. Ego processing 내적(자아)과정	Intracognitive processes 내적수용과정 (e.g., tolerance of ambiguity, empathy동정)	Cognitive ego processes 인지적 자아과정	Affective impulse-regulating processes 정서적 자극-조절 과정	Attention-focusing processes 주의-집중 과정

: Shields & Bredemeier(1995)

- 쉴즈와 브레드마이어의 도덕행동 모델은 스포츠 현장의 특성과 선수특성을 반영
- 레스트의 이론을 기반으로 이성, 관계, 상황적 요인으로 세분화해서 모델을 구성
- 쉴즈와 브레드마이어는 레스트와 마찬가지로 승패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게임이나 경기과정에서 도덕적 행동을 배울 수 있음을 강조

2. 동양의 인성 이론

○ 유교의 사단(四端)과 인성

- 동양에서는 사람의 인성을 맹자의 성선설(性善說)과 순자의 성악설(性惡說)로 구분
- 맹자의 성선설을 기준으로 사단(四端)을 설명
- 맹자는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의 마음을 강조 즉,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단서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님
- 맹자의 사단과 태권도인성 관련 사회과학 덕목

표. 맹자의 인성과 사회과학 인성덕목

마음	본질	내용	덕목
측은지심(惻隱之心)	인(仁)	남을 불상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	배려
수오지심(羞惡之心)	의(義)	옳지 못함에 부끄러워 하는 마음	정의
사양지심(辭讓之心)	예(禮)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예의 근본	예절
시비지심(是非之心)	지(智)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용기

출처: 『맹자』 공손추상 6장

○ 불교의 팔정도(八正道) 인성

- 불교에서 인성의 수양덕목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여덟 가지의 바른 길이란 뜻의 팔정도를 추구
- 팔정도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바른 견해 갖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바른 생각 갖기, 남을 헐뜯거나 거짓말 하지 않기, 문란한 행위 하지 않기, 의식주를 위해서 바른 생활하기,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바른 노력 기울이기, 세상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바른 마음 챙기기, 정신집중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기로 구성
- 불교 인성의 팔정도

팔정도	내용	실천덕목
바른 견해 (正見)	연기(緣起)와 사제(四諦)에 대한 지혜를 가짐	지혜
바른 사유 (正思惟)	곧 번뇌에서 벗어난 생각, 노여움이 없는 생각,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생각을 가짐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기
바른 언어 (正語)	거짓말, 남을 헐뜯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잡담 등을 삼가	거짓말 안하기
바른 행위 (正業),	살생이나 도둑질 등 문란한 행위를 하지 않음	선행
바른 생활 (正命)	정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의식주를 구하여 생활함	
바른 노력 (正精進),	이미 생긴 악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커지도록 노력함	긍정적 생각
바른 마음 챙김 (正念),	선체, 느낌이나 감정, 마음,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마음을 챙김	이치를 따름
바른 정신집중 (正定)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통일시킴으로써 마음을 가라앉힘	집중

출처: 곽철환 편저(2008) 재구성

3. 동서양 인성이론 비교

- 서양과 동양의 대표적인 인성이론을 중심으로 비교
- 서양 인성이론 비교

내용	Kohlberg	Rest	Shields & Bredemeier
인성개념	도덕 추론 단계를 통한 도덕성 발달	도덕추론과 도덕 행동의 일관성	스포츠 상황에 필요한 덕목들 소유
인성교육	도덕적 딜레마를 통한 도덕적 판단	도덕 발달에 필요한 도덕 행동 과정 이해 및 터득	경쟁의 진정한 의미에 맞는 덕목들 이해 및 실천
실천방법	도덕 추론 능력 향상을 통한 정의 실천	도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과정들의 이해	올바른 경쟁 실천
주요덕목	평등, 공평, 상호호혜	상황 이해, 도덕 판단, 도덕 결정, 도덕 행위	공감, 공정, 스포츠맨십, 언행일치
이상적 인간상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른 정의 실천자	도덕 행위를 이끄는 과정들에 유능한 사람	네 가지 덕목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운동선수
인성교육 단계	6 단계	4 구성 요소 단계	12 구성 요소

○ 동양 인성이론 비교

내용	유교	불교	도교	태권도
인성개념	성선	불성	무위자연의 성	도/자아실현
인성교육	선의 실현	깨달음과 해탈	무위자연의 회복 (순수성의 회복)	태권도를 통한 인성 함양
실천방법	수기치인 극기복례	정신집중, 명상, 좌선	심재, 좌망, 행기, 공과격	기본, 겨루기, 품새, 호신술, 격파, 시범 등
수양덕목	인의예지 효제충신	팔정도	무위, 무욕, 무아	12덕목
이상적 인간상	성인, 군자	부처, 보살	진인, 선인 정·기·신	
수행단계	순자(성·정·려·위의 4단계 거쳐)	초발심·행도·불퇴전·일생보처 4단계		무급자-9단 몸과 마음의 체험

○ 한국 전통사상과 인성덕목

- 한국의 전통사상 중에서 태권도 인성의 사상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선비정신, 화랑도, 홍익인간, 장인정신, 한사상을 제시
- 한국 전통사상과 덕목

한국 전통사상	선비	화랑도	장인정신	홍익인간	한사상
핵심덕목	인 · 어짐	세속오계	소명의식, 사명감, 책임감, 봉사정신	'성실', '정직', '박애', '협동', '신의'	일심, 화쟁, 원융회통

Ⅲ. 결 론

○ 태권도 인성론의 통합적 접근

- 태권도 인성덕목은 일반적 수준의 덕목을 강조 전달
- 태권도는 신체와 정신수련을 통한 자아실현을 강조
- 통합교육측면에서 앎(지성)을 중시하는 인지적인 차원, 느낌(감성)을 중시하는 정의적 차원, 그리고 다함(실천성)을 중시하는 행동적 차원을 중시. 따라서 이들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태권도 수련과정과 연계한 통합 실천 전략을 구성

표. 태권도인성론의 통합적 접근

인성영역	인지적 접근영역	정의적 접근영역	행동적 접근영역
태권요소	태권도 기술이해	수련자의 정서표현	기술이해와 정서표현
인성요소	지성(앎)	감성(느낌)	실천성(다함)
내용	성찰과 탐구	정서의 표현	역행과 반복
특징	헤아림과 여김	떨림과 울림	배움과 차림

○ 태권도 인성의 실천영역

- 태권도 실천영역은 동서양 인성 이론과 한국의 인성론을 고려할 때, '나다움', '너와와', '우리다움', '더큰우리'로 구성.

- 표. 태권도인성의 실천영역

실천영역	나다움	너와나	우리다움	더큰우리
서양의 인성론	개인차원	대인차원	사회차원	×
동양의 인성론	수기론 불성론	충서(동정심) 일심	화쟁사상 대동사회	천인합일 물아일체
한국의 인성론	선비정신	장인정신	홍익인간	한사상

○ 태권도 인성덕목

- 태권도 인성덕목은 체험과 실천으로 자존감 형성. 예의 실천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

성, 리더, 협동, 봉사 등의 덕목 실천을 통해 점차 '우리다움'을 만들고, 책임, 신뢰, 공정, 정의의 체험과 실천을 통해 더큰우리를 세워감

- 수련자가 태권도 수련과정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인성덕목을 연계하여 실천성 강조
- 예시로 태권도 인성덕목 1년 계획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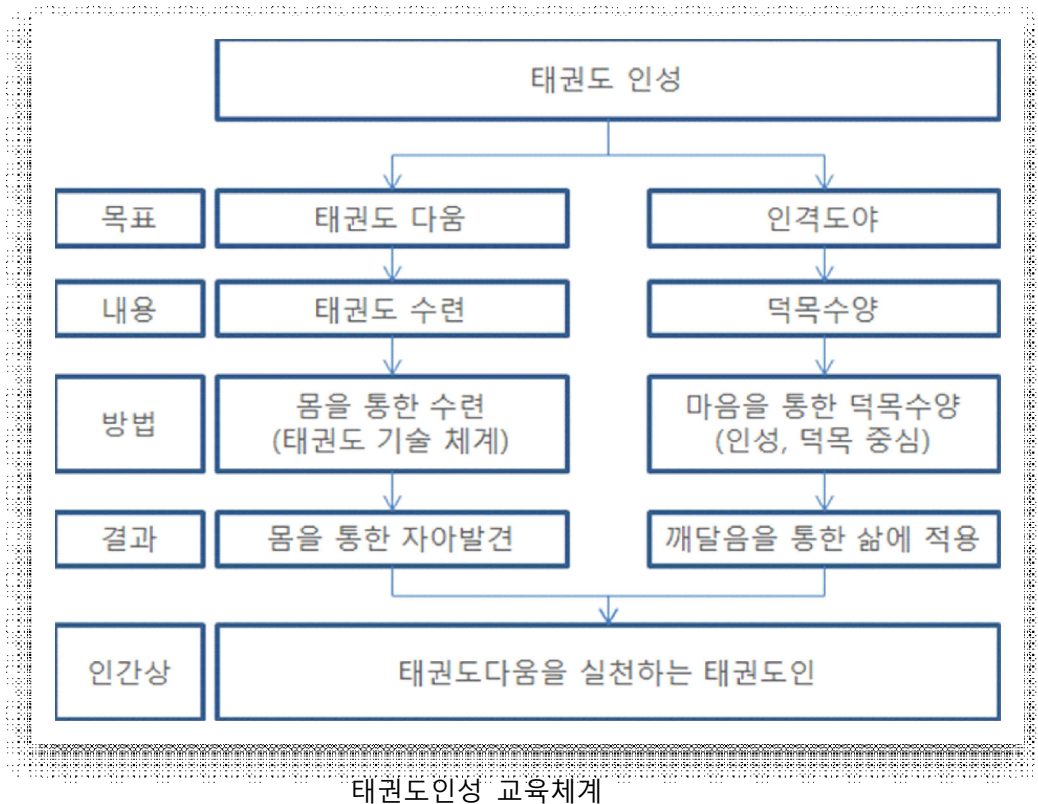
표. 태권도인성덕목

태권도다움		인성덕목과 실천		수련과정
수련과정	수련내용	인성덕목	실천결과	달 구분
-태권도 기본 -태권도 체력 -품새 -겨루기 -시범 -격파 -호신술 (술선수범) ※체험지식 토대로 삶에 적용	'나다움' 갖추기	예의 인내 자신감	자존감 배양	1월
				2월
				3월
	'너와나' 느끼기	배려 효(존경) 사랑	예의실천	4월
				5월
				6월
	'우리다움' 만들기	리더 협동 봉사	술선수범	7월
				8월
				9월
	'더큰우리' 세우기	책임 신뢰 정의(공정)	온누리 하나됨	10월
				11월
				12월
※12덕목 1년 단위로 연령과 수련 정도에 따라 덕목별 심화				

- 갖추기→느끼기→만들기→세우기 용어는 4영역의 인성덕목을 구성하는 상위개념
- '나다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예의, 인내, 자신감의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자존감'을 배양
- '너와나'에 대한 상호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배려, 효(존경), 사랑의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남을 대할 때, '예의실천'을 발휘
- '우리다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리더, 협동, 봉사의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술선수범'하게 되며,
- '더큰우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책임, 신뢰, 공정, 정의'의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온누리' 하나됨

○ 태권도 인성 교육 체계 제시

- 태권도는 심신의 조화를 이루고 인격 완성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신체운동
- 태권도수련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하고, 인격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태권도의 수련가치를 온전히 발휘할 수 없음. 따라서 태권도 수련과 함께 인격 도야, 즉 참됨(眞) · 좋음(善) · 아름다움(美)과 같은 인성덕목을 함양하는 통합적인 수련교육을 지향.
- 태권도 인성 교육체계 제시 필요



○ 제언

- 태권도인성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인문학 융합 연구 필요

《태권도인성 교육》에 대한 기초 문헌 정리 및 이론 체계 구축	
연구내용	① 《태권도인성 교육》기초 문헌 조사 및 선행연구 정리
	② 《태권도인성 교육》동양학 & 한국학적 개념 파악
	③ 《태권도인성 교육》개념 정립 및 이론 체계 구축

태권도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최중구 (상도태권도인성코칭센터/대표)

인성(人性)은 모든 교육과 학문에서 공통이 되는 기본 과제이다. 그러나 물질만능주의와 암기 위주의 지식습득 교육의 소용돌이 속에 흐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10)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바람직한 인성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2012년 9월 4일 인성 교육 비전 선언문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관심은 인성 관련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태권도(跆拳道)는 손과 발을 사용하여 방어와 공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동작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한국 전통 무예스포츠이다(국기원 연수원 2011). 라고 정의하고 있다. 태권도인성교육은 도장 교육의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일선 도장 지도자들은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을 혼돈하여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 수련과정을 통한 인성교육의 개념과 방향, 그리고 체계적인 태권도인성교육 개발과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I. 서 론

태권도장에서 인성교육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사회는 인식하고 있다. 태권도 지도자들도 인성교육은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은 인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성을 지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인성교육의 개념

인성의 개념 자체가 복합적이며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점과 분야에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인성은 사람의 성품을 가르키는 말로, 성품은 사람의 성질과 품격이

다. 성질은 마음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 된 모습이다²⁰⁾. 인성교육은 인간의 지(知)정(情)의(意),체(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활동으로, 인성교육의 목적을 개개인의 인격 완성과 자아실현의 통해 보dana은 미래 사회 '인격과 인격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음'을 의미한다.²¹⁾ 이는 태권도가 추구하는 태권도 수련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태권도 수련 본질이 인성교육이 포함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 문헌고찰, 태권도수련 특성을 분석하여 태권도인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접근을 분석하고, 인성의 개념을 교육과 관련지어 이해하여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게 되는 성격, 또는 기질과는 구분되는, 교육과 노력에 의해 변화 가능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태권도 수련을 통한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태권도인성의 개념화가 필요하다.

2) 태권도인성교육

태권도인성교육은 이러한 개념화에 앞서 태권도장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하게 적용되고 있다. 태권도장에서의 인성교육은 태권도장 성장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이제는 태권도장에서의 인성교육이 당연히 되고 있다. 사자소학, 삼강오륜, 감동적인 영상, 이솝 우화, 태권도인성밴드, 태권 십, 인성대통령만들기 등 지도자들은 색다른 인성교육방법을 찾기에 바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태권도인성교육을 아래와 같이 4가지 항목을 살펴보면서 태권도인성교육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현장에서 태권도인성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태권도인성교육, 어떻게 개발되어져야 하는가.
- 태권도인성교육,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 태권도인성교육, 어떻게 확산되어져야 하는가.

II. 본 론

태권도인성교육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현장의 모범적 사례를 정리하고, 태권도인성교육 개발과 적용, 그리고 확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1) 현장에서 태권도인성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태권도는 도장과 경기를 통해 태권도 기술이 전수되어진다. 대체적으로 도장은 무예

20) 남궁달화(1997), 가치관수립을 통한 인성교육

21) 김명진(2007), 학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방법 연구

적 가치를 두고 태권도를 지도하는 반면, 경기는 승리에 가치를 두고 태권도를 지도한다. 현재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인성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태권도인성교육은 대부분 도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태권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의 모범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 ① 겨루기를 통한 인성교육
- ② 영상매체를 활용한 인성교육
- ③ 무도성을 활용한 인성교육
- ④ 문자메시지 및 심사를 활용한 인성교육
- ⑤ 시범을 활용한 인성교육
- ⑥ 학습지를 활용한 인성교육
- ⑦ 품새를 활용한 인성교육
- ⑧ 도장규칙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인성교육
- ⑨ 태권도 용어를 활용한 인성교육
- ⑩ 집단 상담을 활용한 인성교육
- ⑪ 발표를 활용한 인성교육
- ⑫ 학부모와 소통을 활용한 인성교육
- ⑬ 숲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은 교육이라고 보기 보다. 단회성 이벤트에 가깝거나, 주관적 견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비체계적 인성교육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근거로 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증명이 가능한 태권도인성교육이 개발 되어야 한다.

2) 태권도인성교육 어떻게 개발 되어져야 하는가.

태권도인성교육, 태권도 수련만으로 가능한가? 브렌다 브레드마이어(Brenda Brendmeier)와 데이빗 쉴즈(David Shields)교수는 스포츠와 도덕발달의 관계에 관한한 독보적인 연구자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최근에 내린 결론을 정리하면 태권도 수련에 인성교육이 의도적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태권도만 열심히 수련하는 것이 인성을 좋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성이 좋아지려면 인성교육이 신체활동에 알맞게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KTA 태권도인성교육 2009).

인성교육을 하는 방법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암기중심 인성교육으로 주입식 방법으로 목적중심이다. 둘째, 규칙중심 인성교육으로 태도규칙, 행동규칙, 대화규칙 방법으로 사회공동체 중심이다. 셋째, 체험중심인성교육으로 활동과 경험을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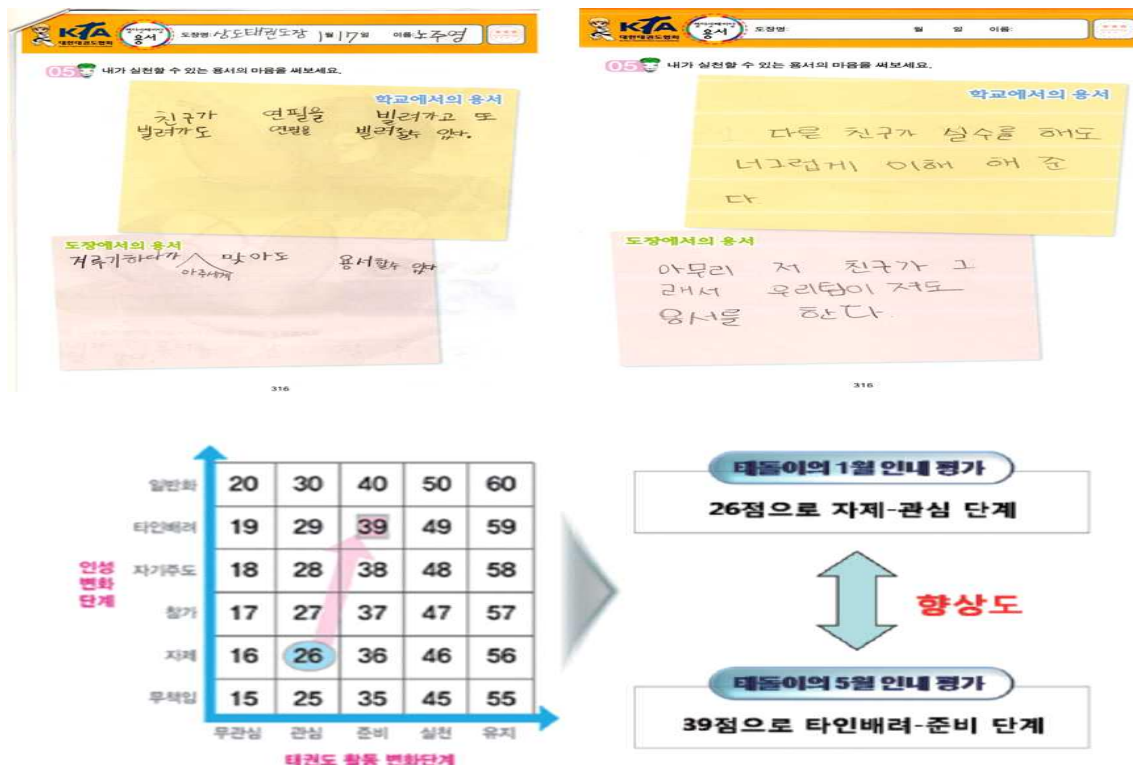
하면서 인간본성 중심이다. 마지막으로 체득중심인성교육이다. 기술습득과정을 통한 기능 중심 교육이다. 태권도인성은 체득중심 태권도인성교육으로 개발 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KTA태권도인성교육개발은 모범 사례가 된다.

[KTA 태권도인성교육소개]

KTA 태권도인성교육은 태권도 수련과정에서 배우는 체득형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24개의 인성덕목으로 자기가치영역(12덕목), 대인관계영역(8덕목), 사회적정의 영역(4덕목)으로 덕목을 배치하여, 개인, 대인관계, 사회정의로 점차 확장되어 가는 구조로 구성하였다.

각 덕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7가지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덕목의 중요도에 따라 4가지 수업 교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덕목별 시나리오를 자세히 써 두어 지도자들이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련생들의 마음을 다질 수 있는 학습지 유형의 "마음 다지기"를 각 덕목별 개발해 두어 활용 할 수 있게 하였다.

태권도인성교육이 수련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평가지를 개발 하였다. 평가지는 인성변화 단계와 태권도 활동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매트릭스 방법으로 변화단계를 수치화 하였다. 향 후 태권도인성프로그램은 수치화 되어진 평가에 따른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을 상담프로그램을 개발 할 예정이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KTA태권도인성교육은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는 인성교육 정의에 충실한 덕목을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감성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인성교육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성교육과 사회성-감성교육 두 가지 개념과 프로그램이 독립해서 존재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신뢰, 공정, 용기, 정직, 책임감 등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지만, 사회성-감성교육은 공감, 감정의 조절,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해결을 중시한다.

태권도인성교육의 발전을 위해 사회성-감성을 중점으로 한 연구가 더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3) 태권도인성교육 어떻게 적용 되어져야 하는가.

인성교육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 인성교육 분야 세계적인 학자며 미국 인성교육의 한 효과 검증 프로젝트(What Works in Character Education)의 책임자였던 마빈 베코위츠(Marvin Berkowitz) 박사는 이 질문의 답으로 'Yes and No'라고 답한다. 이들이 연구한 2010년, 2007년 보고서에 의하면 대다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그 효과를 증명하는데 실패했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했을 때 효과가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만큼 좋은 효과를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로켓트 과학(rocket science)'라고 부른다. 즉, '인성교육'은 아동의 삶의 질과 운명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용어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교육목표이기 때문이다.

태권도인성교육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주 수련생인 아동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원인분류 해 보자.

[아동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분류 (Coie et al. 1993)]

1. 체질적인 장애(constitutional handicap)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합병증(prenatal complications), 생화학적 불균형(biochemical imbalance), 기질적 장애(organic handicap), 감각기관의 이상 등

2. 필요한 스킬을 적기에 개발시켜 주지 못함(skill development delays)

낮은 지능, 사회적 무능, 주의력 결핍, 읽기장애, 학습능력부족과 나쁜 습관 등

3. 정서장애(emotional difficulties)

미성숙, 갈등, 낮은 자존감, 감정조절이상(emotional dysregulation) 등

4. 가족 상황(family circumstances)

사회적 하층, 가족 내 정신이상 병력, 대가족, 아동학대,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삶의 사건, 가족 해체, 일탈적 의사소통(communication deviance), 가족 갈등, 애착 결핍 패턴(poor attachment patterns) 등

5. 대인관계 문제(interpersonal problems)

또래거부(peer rejection), 소외, 고립 등

6. 학교내 생활문제(school problems)

학교내 폭력, 집단 괴롭힘, 학교폭속문란, 학교생활적응 실패 등

7. 환경적 맥락(ecological context)

극빈환경, 학력중심사회, 지나친 경쟁, 사회의 유해환경, 지역사회 유대관계 해체, 인종차별, 실업 등

이상을 보면 위 5.대인관계 문제 6.학교 내 생활문제 이 두 가지만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가 가정과 사회가 일차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성, 사회성-감성 역량을 키우고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태권도장-학교-가정-지역사회-더 큰 사회의 상호 협력과 책임의 분담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바람직한 태권도인성교육 적용을 통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태권도장,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소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둘째, 태권도인성교육이 태권도장을 넘어 사회로 융합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개별 도장에서 만들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태권도 기관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범이다. 분명한 것은 태권도 사범의 인격, 행동, 언행 등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바람직한 태권도인성교육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지나친 상업성을 지양하고, 태권도인성교육 사명을 가진 사범을 배출해야 한다.

4) 태권도인성교육의 확산

태권도인성교육의 확산은 태권도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태권도인성교육을 전담하는 센터를 통해 양질의 태권도인성교육 지도자를 교육하고 도장, 학교, 유치원 등으로 점차 확산해 나갈 수 있다. 전국 초등, 중, 고등학교의 수는 초등 5,913개, 중등 3,173개, 고등 2,322개로 총 11,408개(교육부 2014). 유치원은 8,678개로 약 20,000개의 교육기관과 태권도장 약 10,000개로 총 30,000개에 달하는 교육기관에서 태권도인성교육 진행할 가능성이 여느 때 보다 높다.

① 태권도장

KTA 태권도 지도자 인성교육을 통해 약 800명의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TA태권도인성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정유근, 2011; 이정주 2012; 이병철, 2013 등)

② 초등학교

2013년 10주간 서울미동초등학교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정규수업시간(45분)을 태권도 인성교육을 진행했다. 수업이 시작되는 첫 날, 아이들은 태권도가 재미없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교장선생님과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 앞에서 표출 했다. 재미있는 게임을 진행 해 달라는 것이다. 태권도인성 수업이 진행되었다. 예의, 성실, 등 5개 덕목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 으며, 태권도인성 수업을 더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③ 중학교

2013년 10월경 서울미동초등학교에서 10주 연구 수업을 하던 중학교 폭력과 꿈을 잃 어가는 Y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태권도인성교육을 2014년부터 스포츠수업 시간에 배정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았다. 3월 시작된 수업을 시작하면서 중학생들의 실태를 확인 하게 되었다. 욕설과 폭력, 그리고 버티기 수업 진행이 어려웠다. 어떤 반은 수업을 전혀 할 수 없었다. 1학기를 보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2학기를 시작한 지금, 아이 들은 태권도를 아주 좋아한다. 10월 3째 주에는 운동회 때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로 하고 맹훈련 중이다. 학년 간 차이가 뚜렷하고, 남녀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거친 언어와 행동 속에서 관심 받고자 하는 욕구가 또렷하게 나타난다. 태권도인성교육이 학교 현장에 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Ⅲ. 결 론

서론에서 태권도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인성교육과 태권도인성교육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본론에서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시작된 태권도장 인성교육의 모범적 사례를 통해 현장을 조명하였으며, 태권도인성교육의 개발과 적용 그리고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였다.

1) 태권도인성교육

현재 태권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인성교육은 태권도인성교육에 대한 개념화 없이 좋은 정보를 수집하고 도장 교육에 접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먹구구식의 인성교육 또는 감동적인 영상을 통한 자극법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태권도인성교육에 대한 논의 4가지 항목

첫 번째, 현장에서 태권도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경기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도장 교육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태권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범 사례를 찾아 분석해 보았다. 대부분이 단회성 이벤트 이거나 주관적 확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전체적으로 비체계성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 태권도인성교육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 인성교육을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에 가장 적합한 것은 체득형 인성교육으로 모범적 사례로 KTA 태권도인성교육을 간략히 소개 하였다. 세 번째, 태권도인성교육 어떻게 적용 되어져야 하는가? 태권도인성교육 대상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대부분이 1차적 집단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인성교육이라는 포괄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태권도인성교육이 아니면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태권도인성교육의 적용 범위는 태권도장, 학교, 등의 특정 단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마지막은 태권도인성교육의 확산이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교육의 핵심은 인성이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인성이 실력이다'라는 표어를 통해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쉽지 않다. 대부분의 인성교육은 신체를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권도인성교육은 체득형 인성교육으로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바른 성품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태권도장을 넘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교과목으로 추진 할만 하다.

3) 태권도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위와 같이 태권도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알아본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정도 제언한다.

먼저, 태권도인성교육 개념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태권도인성교육이 다른 인성교육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신체와 정신 함양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 무예(武藝)라는 것이다. 태권도 정신과 수련과정(품새, 겨루기, 격파 등)을 통해 생성되는 인성적 특성을 바탕으로 현장에 사용 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인성교육과 사회성-감성을 중점으로 한 태권도인성교육 연구가 더 진행 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은 아동, 청소년이 핵심적인 윤리적 가치(core ethical values)를 이해하고, 이런 가치에 대해 마음을 쓰며(care about), 이에 따라 행동할(act upon)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Thomas Lickona)이며, 사회성-감성교육은 개인이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하며, 남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도전적인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적 힘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KTA 태권도인성교육 개발과정에 상당부분 통합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회성-감성교

육은 더 연구해야 할 향후 과제인 것이다. 세 번째, 태권도인성교육 센터를 통해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이다. 어떻게 보면 태권도가 사회를 향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권도인성교육은 태권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해야 할 가치가 충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인성교육의 확산이다. 태권도장을 넘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목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론과 과학적 증명을 통해 검증 된 태권도 인성교육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인성교육 지도자를 키워 내고, 태권도기관들이 한 뜻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태권도발전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명진(2007). 학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방법 연구. 윤리학회
- 김병준, 최중구, 정문자, 이세환(2009). KTA태권도인성교육과정 개발. 대한태권도협회
- 김병준, 임태희, 최중구, 정문자, 이지훈, 이종천(2012). KTA태권도인성교육 매뉴얼 개발. 대한태권도협회
- 남궁달화(1997). 가치관수립을 통한 인성교육.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연구소
- 이병철(2013). 계획된 태권도 인성교육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수련효과.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이정주(2012). 태권도지도자의 인성교육에 대한 신념과 지도실제와의 관계.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정유근(2011). 태권도 인성 실천덕목 체계화.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2004). 인성교육. 서울 : 문음사

7

포럼 자문 내용 I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 방안

김영선

1. 국기원 연구소가 주관하는 포럼의 주최 목적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함

<예>

- 1) 국기원이 심층 토론식 포럼을 통해 참석자(태권도 종사자)들이 태권도 현실적 과제에 대한 이해도와 연구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
- 2) 태권도 학술적 연구와 지도 현장에 종사하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태권도 각 부문별 과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참석자들이 상호 대인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3) 주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집중 토론을 통해 개진된 다채로운 의견과 건의 사항을 취합해서 국기원 또는 연구소가 실행해야 할 태권도 정책 및 업무 과제의 선정에 대한 도움 기대
- 4) 태권도 학술 발전에 기여할 전문 연구자의 양성을 위한 행사의 일환

2. 포럼 진행상의 세부 방안 검토

- 1) 시간 진행 :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중간휴식 10분). 종료후 점심 식사.
 <건의 사항> 전 참석자들이 약속 시간에 쫓기는 듯한 느낌으로 다소 타이트한 분위기에서 질의 응답과 토론을 실행해야 함.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고 또한 원활히 진행되도록 참석자 모두 협조하는 심정으로 포럼에 동참하고 분위기에 적응해야 함.
 이 점을 모든 참석자들이 잘 주지하고 이행하도록 사전에 잘 설명해야 함.

2) 포럼 진행 절차

- ① 주최자 소개 및 포럼 취지 설명, 발제자 소개 (5분 소요) - 현행 양호
- ② 전 참석자들의 간략한 자기 소개(15분) - 현행 양호. 1인당 발언 30초 이내

- ② 1번 및 2번 발제자 발표 진행(50분 소요) - 각 발제 시간을 25분으로 제한해야 함
- ③ 발제된 내용에 한해서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별도 30분 시간 배정) - 추후 실행 검토 요망
- ④ 중간 휴식 (10분) - 현행 양호
- ⑤ 주제에 관한 개인적 의견 개진과 건의사항 발언 (70분. 1인당 5분 이내).
주제에서 벗어난 장황한 발언에 대해 발언 중지 요청을 보다 원활히 시행해야 함
- ⑥ 포럼 마무리 및 점심 식사 - 현행 양호

3. 발제 내용에 대한 보완(비판 등)

발제1. 동서양 인성 이론 비교를 통한 태권도인성 개념 검토 - 곽낙현 연구원

발제2. 태권도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 최종구 상도태권도인성교칭센터

(평가)

- 1) 발제자의 선택면 : 주제인 인성교육에 대해 학술 전문가 1인과 현장 전문가 1인의 발제자 편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음.
- 2) 발제자의 능력면 : 발제자 2인 모두 주제 발표에 대한 준비도와 설명 능력이 뛰어났음
- 3) 인성교육 주제에 대한 발제 내용의 적합성 : 1번 발제는 학술적 관점에서 인성교육의 근본 이론과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전달되었음. 반면 태권도 인성교육의 개념이나 내용 구성이 복잡 다양함으로써 전문 학자들끼리 함께 모여 더욱 심도 높은 논의를 필요로 함. 2번 발제는 현장에 유용한 실질적인 인성교육 지식이나 세부적 지도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수준의 도장 사범, 관장들이 발제자의 높은 수준의 태권도 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익히고 현장에 적용하기가 수월하게 보이지는 않음. 복잡한 태권도 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긴요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그 결과물이 일선 도장 지도자들에게 제공되도록 강구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과제 해결팀>을 편성해서 결과물이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예) 대한태권도협회 인성교육 교육개발팀. KTA 태권도 인성교육 교재 발간(2013.애니빅)

4. 태권도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

- 1) 태권도 인성교육에 관한 학술과 현장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토의와 동시에 태권도 교육 현장에 유용한 발전 방안도 제시되었음.
- 2) 국기원 입장에서 국내외 일선탈권도장 지도자들을 인성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다음

과 같은 세부 방안을 모색해야 함

- ① 태권도 인성교육의 정교한 개념과 이론적 방향성 확립.
- ② 도장 지도자들의 인성교육적 자질과 역량 향상을 위한 기관 교육 과정 운영
예) 인성지도자교육과정 운영 및 인성지도자 자격증 발급
- ③ 지도자를 대상으로 태권도 인성교육 지식과 방법을 담은 책자 발간 및 제공
- ④ 주된 수련자 구성원인 어린이 수준에 적합한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
예) 5분짜리 인성교육 동영상, 감동 및 선행 사례, 포스터, 글로벌 교육용 책자, 만화형식 등
- ⑤ 전문 학자들이 참여한 태권도 인성교육의 실질적 효과에 관한 검정.
성공 및 실패 사례의 비교 연구 실시.

5. 태권도 인성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개인적 견해

태권도의 인성교육적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 1) 원론적 과제. 인성교육의 주관자인 지도자의 끊임없는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태권도 인성교육은 지도자의 바람직한 품행과 지도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도자는 용모, 행동과 언사 등을 통해 수련자들의 역할 모델로 존재한다. 부전자전(父傳子傳) 이듯이 훌륭한 스승에게 훌륭한 제자가 양성된다. 제자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 사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이상향이다.
- 2) 수련자가 어떤 특성의 사람(예, 연령, 성격, 남녀 차이)인가에 따라서 태권도가 인성교육적 방법과 효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수련자의 특성에 적합한 눈높이 인성교육의 지식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립되고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 3) 인성교육의 근원은 '태권도 정신'이므로 지도자와 수련자가 태권도 정신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이란 말의 생성 원인이 수련 대상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사료된다. 원래 태권도는 격투 기술 연마와 더불어 '태권도 정신'을 함양해야 하고 태권도 정신이 바로 인성교육의 그 자체이며 중요한 소재가 된다. 21세기 현대 지구촌 사회 상황에 적합한 <태권도 정신 또는 인성과제>의 재인식이 절실할 때이다. 현실 생활과 직결되는 구체적 인성교육 실행 방안을 강구되어야 한다.

예) 태권도 정신의 인성교육적 내용

기본단계(어린이 대상) - 예의(올바른 마음씀씀이와 행동), 인내(참을성), 용기(강한마음, 자신감)

응용단계(경기인 대상) - 공평무사(公平無私), 호연지기(浩然之氣)

(성인수련자 대상) - 홍익인간(益人間), 삼재강유(三才剛柔), 심기합치(心技合致)

- 4) 태권도 인성교육이 태권도 기술과 분리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태권도 기술 교육 따로 인성 교육 따로 나뉘어져 있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태권도 인성교육 관점에서는 기술 수련을 포함한 모든 태권도 활동이 인성교육 소재가 된다. 태권도 기술 수련 자체에도 근본적으로 수련자의 인성교육적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 기술 수련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물론 충분한 동기유발이 필요하지만) 집중력을 기르고 성취감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자기만족 또는 자아존중감 형성에도 기여한다. 겨루기에서 예의를 지키고 기술 과제 성취를 위해 참고 견디는 인내심(참을성)도 기를 수 있다. 심지어 야외활동, 견학, 운동경기 등도 인성교육적 방법이 적용되어 수련자들이 질서와 규칙, 예의를 잘 지키고 상대방과 원만히 생활하는 충실한 태도와 습관을 익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태권도 인성교육적 발상이다.

8

포럼 자문 내용 II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 방안

손성도

1. 동서양 인성이론 비교를 통한 태권도인성 개념 검토

- 태권도장의 수련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서양 인성이론 접근을 통한 개념검토는 의미 있음.
- 각 나라별로 문화의 차이와 지도자의 지도형태, 그리고 사회적 요구의 차이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기초적인 내용제시의 한계는 연구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
- "너다움" "너와나", "우리다움", "더 큰 우리"로 나누어 구성된 실천영역은 신선하고 독창적으로 받아들여짐.

1) 지적사항

- 인성교육은 교육 후 수련생들의 행동변화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행동변화를 위한 접근이 부족함.
- 수련생들의 행동변화는 느껴야 움직이는데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도방법론 제시가 없었음.
- 감성적 접근은 수련생들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각 나라별로 수련생들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요약

- 태권도 인성교육체계 제시는 의미가 있음.

- 인성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 진행 필요함.
- 태권도장의 인성교육은 이론적 접근보다 현장접근이 중요하므로 사례조사를 통한 일반화 과정의 연구가 필요함.

3) 결론

-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더 확대되어야 함
- 태권도장의 인성교육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공사례별로 실질적인 사례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인성교육은 현장이 먼저 오고 이론이 뒤에 오는 것이므로 이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각 나라별로 다양한 문화와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한 연구제시가 필요함.
- 각 품, 단별로 인성교육의 체계성을 갖추는 연구가 필요함.
- 인성교육의 틀을 완성하는 연구는 힘든 과정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영역임.

2. 태권도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 태권도장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모호한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인성교육은 태권도장의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함도 있지만 고객들의 기대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므로 다양한 형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다수의 도장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발표자는 현장지도자로서의 방안 제시라는 점에서 기대하고 살펴봄.

1) 지적사항

- 연구내용 다수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발간한 "KTA 태권도 인성교육"이란 점에서 좀 더 다양한 내용이 보완되기를 바램.
- 모범사례로 제시한 체득중심의 인성교육은 KTA에서 제시한 내용이므로 독창성이 부족함.
- 세 번째로 제시한 "체험중심인성교육으로 활동과 경험을 중시하면서 인간본성 중심"이 현장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발표자의 모범사례와는 거리가 있음.

- 발표자는 현장과 연구의 병행진행에 따른 시간적 부족으로 깊이 있는 연구와 내용제시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사료됨.

2) 요약

- 태권도장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시도는 의미 있음.
- 제언은 적절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 진행할 필요가 있음.

3) 결론

- 발표자는 "KTA...."저자로서 참여한 책을 과대 홍보하는 발표내용으로 일관한 것은 문제임.
- KTA 도장활성화 사업(7년)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국기원에서 KTA 도장활성화 참여자들을 연구자로 지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9

포럼 세부 내용

• 최상환

- 과거와 현재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낙현 발표자의 발표중 12개 항목이 15년 전 쯤 했던 16개 항목과 용어만 다를 뿐이지 일치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지도법 강의와 태권도 경영론에 관한 수업을 해가면서 태권도 교육은 인성교육으로 귀착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계화 된 교육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정신의 개념이 확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태권도 지도자는 수련자와의 만남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인성이 무엇인가'를 정하기 전에 '태권도란 무엇인가? 태권도 기술이란 무엇인가? 태권도 정신이란 무엇인가?' 등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태권도 지도란 무엇인가, 태권도 수련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 김영선

- 인성교육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20년이 되었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아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 정신이 인성입니다. 아동에 적합한 눈높이 교육으로 되었습니다.
-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인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단계로는 예의를 지키는 것, 인내(참을성), 용기 이 3가지가 기본적인 태권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용단계로 태권도 경기가 생겨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무사"라고 생각합니다. '호연지기' 즉 배려 또는 양보 등 넓은 마음의 미덕을 들 수 있습니다. 심층적으로는 심기합치를 정신적인 가치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홍익인간으로 태권도적 해석과 가치부여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재능으로 강약의 조화를 통해 결국 태권도 정신의 이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지도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자를 격상시켜야 할 것인가 등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장창용

- 태권도 정신에 관한 전반적인 포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도자에 대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시위주와 같은 사회와 사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지도자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를 정한다면 현장으로 갔을 때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현장에서 심판을 보시는 분들을 예로 들면 과연 공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등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김길수

- 선비정신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 곽낙현

- 교육학에서 선비정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길수

- 의도는 좋으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 장창용

- 선비정신이란 유교적인 입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입니다. 어른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성된 상태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며,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유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쓰여 지는 용어입니다.

• 김길수

- 태권도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태권도 도장의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도장의 수련생, 그리고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를 생각해 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관점에서 보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성을 표현하자면 태권도의 정체성을 살린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 곽기옥

- 사범들의 인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범에 따라서 제자들도 따라잡니다. 예전에 심사를 볼 경우, 사범에 따라 수련생의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범이 언행을 바르게 하고, 제자들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태권도는 한국의 무도가 아닌 세계적인 무도입니다. 영문판으로 발간을 하여서 한국에서 뿐만 아닌 해외로의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이러한 좋은 기술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장창용

- 서적의 세계보급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세부항목이 많아서 응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영문으로 제작 되고 있습니다.

• 최중구

- 인성교육이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성교육이란 태권도 사범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절제되고 준비되어진 사범을 길러내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공헌과 교육에 목적을 두고 센터 건립을 하여 교육다운 교육을 통해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범을 배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지훈
 - 어른들에게 어떠한 사범 교육프로그램으로 지도를 할 것인가요?
- 최종구
 - 사실 사범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실질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범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품새, 겨루기 등 태권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지도자 교육을 연구중에 있으며 향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상환
 - 태권도 성인 지도자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논지였습니다. 이에 조금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장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지도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사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례는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기준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 사실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덕목들이 있으며 합의를 통해 만들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길수
 - 경영자 또는 지도자의 두 가지가 함축된 연구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러한 질문이 나오고 논의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세스를 먼저 정한 후 연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 기업의 이미지, 상품, 서비스와 같은 3가지 핵심 요소가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있어야 경영을 잘 해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핵심키워드를 두고 교육을 하며 기본적인 경영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 초, 중, 고의 단계를 두고 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자다운 자세나 태도, 기술을 통해 경영을 해가야 합니다.
- 김영선
 - 인성교육 1박2일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구
 - 8시간 씩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선
 - 현재 일선 도장의 문제점은 5분의 영상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기원에서 그러한 콘텐츠와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영상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선 도장으로 보급이 된다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정주

- 현재 도장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금전이 중요한가 아이들이 중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느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현재 수련층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5세의 아이들에게 인성을 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 국기원에서 사범교육을 통해 사범교육자격증은 있지만, 사범인성자격증은 없습니다. 태권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부분은 모릅니다. 보여지는 인사와 같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범인성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태권도 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태권도는 무도적인 가치보다 놀이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이 놀이와 재미입니다. 그러므로 재미로 접근하여 인성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인성교육에 관련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이지훈

- 중국에서 따로 하는 인성교육 방법이 있습니까?

• 유광희

-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대회에 나가서 입상실적에 따라 도장을 오갑니다.
- 앞으로 3, 5년 후면 중국 또한 인성에 관한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번째 발표에서 본 SBS 영상에서 거짓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모아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글로벌 태권도 인성교육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태권도 사범에게 보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중구

- 도장에서 인성교육을 안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활동지를 보면 아이들의 생각이 들어납니다. 그곳에 태권도 하기 싫다는 의견이 10명중 9명이었지만 그 후 30%의 아이들이 바뀌었습니다.
- 실제로 태권도는 인성을 함양하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앞으로 책 또한 보급할 예정입니다.

• 이강호

- 영상을 보고 그러한 것 보다는 태권도 수련 시간 내에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단순한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수련 시간 내에서 어떻게 접목을 할수

있을지를 연구 개발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황승국

- 어릴 때 배웠던 것처럼 인성이란 서당과 같은 교훈을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서당식 교육만을 생각해왔는데요, 사범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많이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지수

- 56년 동안 태권도의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태권도 정신을 근간으로 하여 국민들이 개척정신과 창의적인 정신을 통해 사회를 개발하고 그것이 국가의 발전과 세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주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태권도 수련을 통해 개인의 발전과 주체성 확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중국 태권도 프로그램에 인성교육이 절반입니다. 실기만 교육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었지만 무도 문화이기에 정신교육이 필요합니다. 인격교육은 자기완성이며, 자기완성은 자신의 수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은 일선 도장의 사범이 연구 개발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인성교육은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에 의해서, 목적의식을 가진 자기완성을 통한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발전이 인격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 도교 등 나열식으로 되면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홍대곤

- 태권도 5대 정신 속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성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습득을 하는 것인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이학선

- 태권도 인성의 시간을 따로 배분하는 것이아니라, 태권도 수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설성란

- 결론적으로는 question mark만 남습니다.
- 국기원에 현재 지도자의 예의범절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이 있습니까?

• 최상환

- 있었다, 없었다 했었습니다.

• 설성란

- 서양에서 왜 태권도가 인기가 있는가 하면 아이가 많이 변해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 지도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도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은 인사하는 것인데 함께 보여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 태권도 사범들의 태도교육 및 예절교육을 구체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를 만났을 때, 학부모를 만났을 때 등 지도자를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를 위한 태도나 인성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돈

- '태권도의 인성교육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왜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검토 유도가 아니라 왜 태권도여야 하는지 그 차별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인성교육의 focus가 어린 수련생이었는데,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인성에 관한 문제를 포함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나열되기 보다는 압축되어서 간단명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최상환

- 지도자 스스로가 모범 사례가 되면 이러한 콘텐츠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시킬 것인가, 다양한 인성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 두가지가 요점이었습니다.
- 이러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체계화 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4 제5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 태권도의 교육 표준화 방안 -



태권도연구소

1 개요

구 분	내 용
• 행 사 명	제5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 주 제	태권도의 교육 표준화 방안
• 일 시	2014.10.25.(토), 10:00~13:00
• 장 소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1층 AREX- I
• 주 최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 참석인원	20명(연구자, 태권도 지도자, 무도(협회) 관계자, 태권도 산업 종사자등)

2 필요성 및 목적

태권도의 교육 표준화에 관한 담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태권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계층의 연구자 협력 체계 구축 과정을 통해 태권도 관련 전문가(집단)를 양성하고, 연구자의 이론적 지식과 지도자의 체험적 지식을 종합 수렴하여 태권도의 주요 학술적 현안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제5차 포럼 추진 과정 모형도 >

3

논의 사항

1) 발제자 주요 의견

(1)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 방안

- 발제자 : 유창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부연구위원)

구 분	내 용
태권도 교육 표준화 필요성	• 태권도 수련인구 증가로 태권도 기술 및 수련방식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태권도 정체성에 문제가 발생함 • '다양한 태권도 수요에 따른 수련 방식과 기술 변화'에 따른 교육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 • '태권도 교육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태권도 교육 표준화 사례 및 쟁점	• 태권도 교육 표준화 사례 -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 · WTA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 구성체계를 '성격',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로 구분하여 설명 · WTA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자격취득과정과 역량강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설명 · 태권도 지도자 교육과정 설명 - 기술과 수련 중심의 태권도 표준교육과정 개발 · 태권도 기술 분류와 전통적인 태권도 수련 기준에 의거하여 태권도 표준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내용 영역과 수련 단계별로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태권도 정신과 지식으로 구성 • 태권도 교육 표준화의 쟁점 - 태권도 정신의 우선 정립과 현재 수준의 태권도 정신 수준 반영 문제 -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과 기술과 수련 중심의 태권도 교육과정 문제 -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 개발 범위에 대한 현실 수요 반영과 수요 창출 문제
결론 및 제언	•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을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개발 - '태권도 교육과정 위원회' 등의 신설을 통해 해결 •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을 선순환 과정으로 개발 - 시범 적용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표준 교육과정으로 지속적 개정

(2) 태권도학과의 교육 표준화 방안

- 발제자 : 곽정현 (가천대학교 태권도학과 / 교수)

구 분	내 용
태권도학과 교육 표준화의 필요성	• 태권도의 발전과 미래는 태권도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에 의해 좌우됨 • 태권도 교육 표준화에 맞추어 지도할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 • 학문의 발전, 사회의 변화와 요구, 미래에 대한 대처 방안, 학생의 필요와 요구, 직업의 다양화와 전문화 등을 고려한 교육 표준화가 이뤄져야 함 • 대학의 교육과정은 체육학에 기초하여 각 학교의 교수진에 의해 편성되어 명확한 체계가 잡혀있지 못함
현 태권도학과의 교육목표, 교육 과정 제고 태권도학의 방향 및 태권도학과의 교육 표준화	• 태권도관련 학과의 교육목표 - 태권도의 세계화 추세에 부합하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유능한 지도자 - 철학적 기초, 사회적 상황 및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심리적 기초 등을 토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 • 태권도학과 교육과정 - 각 학교별로 학과명에 따라 특성화 - 전통문화에 대한 교과목 포함(전통무예 강조) - 태권도전공영어 및 영어강좌 포함(세계화 강조) • 태권도학의 방향 - 태권도학의 체계 정립의 요인 제시 - (단일학문으로서) 태권도학의 세부과목 체계 제시 - 체육학과 연계된 태권도학 제시 • 태권도학과의 교육 표준화를 위한 교육과정 - 교육 표준화를 위한 교육과정 제시 및 비교 분석
결론 및 제언	• 태권도 교육 표준화를 위해 태권도학 체계 정립 • 태권도학에 기초한 명확한 교육과정 수립 • 태권도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사회 요구를 수렴한 교육과정 필요 • 미래의 교육현실을 고려한 교육 표준화 필요

2) 참석자 주요 의견

구 분	내 용
① 태권도 교육 표준화 내용	• 태권도 교육 표준화는 현장 활용성과 미래 지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립된 태권도의 본질과 정신 및 정체성 등이 표준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함 • 태권도 정신 및 철학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권도 교육 표준화 작업은 한계가 있음 • 태권도 교육 표준화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취합하여 표준화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함 • 태권도 교육에 대한 표준화(정량적) 외에도 질적 교육(정성적) 표준화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함
② 태권도 교육 표준화 과정(보급)	• 태권도 교육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개발만 되고 현장에 보급되지 못하고 있음 • 표준화된 태권도 교육을 전국으로 보급하기 위해 시범운영과 이를 보급할 사범 양성이 선행되어야 함(표준화 교육프로그램 강화) • 태권도학과를 졸업하면, 태권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 없이 태권도 관련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함
③ 태권도 교육 표준화를 위한 국기원의 역할	• 태권도 교육 표준화에 대한 각 기관 및 대학들의 협이가 필요 • 태권도 교육 표준화를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인 개정과 협의를 이끌어 내야함 • 국기원에서 태권도 교육 표준화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끌어 가야함

4

결론

-
- 태권도 교육 표준화 내용에 그동안 정립되지 못했던 다양한 이론과 정신체계 및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태권도 교육 표준화는 교육 내용의 획일화가 아닌 교육의 틀을 맞추는 것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이를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 방안

유창완(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연구위원)

I. 서 론

- 태권도의 국내·외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지도자들이나 지역에 따라 태권도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 방법 및 교육평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음. 이는 1980년대 초부터 생긴 대학의 태권도학과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태권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교육과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태권도 수련 인구가 증가하면서 태권도의 기술 및 수련방식이 다양해졌기 때문임. 그러나 태권도 자체의 기술이나 수련방식이 다양해지는 수준을 벗어나 일선 도장이나 외국에서 태권도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어 이를 방지할 경우 태권도가 고유한 무예로서의 정통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따라서 태권도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다양한 태권도 수요에 따른 수련 방식의 변화'와 '태권도 기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선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이처럼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정리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주의할 것은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가 자칫 다양한 태권도의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태권도 교육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임.
- 이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비해본다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지향해야 할 인간상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거시적인 교육 목표를 정하며, 정해진 교육 목표에 따라 각 학교 급별 교육 목표와 내용이 만들어지고, 각 과목별 내용체계가 마련됨. 특히 이 과정에서 특수한 요구를 하는 집단의 교육과정은 교육적 요구에 부합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마련되기도 함.
- 그러나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를 논의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합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가장 논란이 되기 쉬운 지점은 바로

‘태권도 교육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다르게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임. 예를 들어, 일선 도장의 태권도 사범은 유소년들의 태권도 교육을 기준으로 태권도 교육 표준화를 논의하고, 어떤 태권도 전문가는 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태권도 교육을 기준으로 태권도 표준화를 논의하고 있음. 이처럼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태권도 교육 표준화 노력은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본 글에서는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 개발 과정에서 주로 제기된 쟁점과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제언 및 실천전략을 논하고자 함.

II. 본 론

1. 태권도 교육 표준화의 사례

1)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

가장 최근 개발된 태권도 교육과정 중의 하나는 2013년에 개발된 ‘WTA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이다. WTA는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올바르게 보급시킬 수 있는 지식과 소양을 갖춘 지도자 및 행정가 배출을 위해 국기원이 설립한 기관이다. 이는 태권도 전문 교육, 연구,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글로벌 공식 태권도 교육기관이며, 학문센터를 지향한다. 이러한 비전과 미션을 담당할 수 있는 태권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표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WTA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이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1, 2, 3 - 참조>).

<표 1> WTA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 구성체계

	세부 내용
	• WTA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에서 태권도의 정의와 가치 • WTA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 WTA 태권도 전문가 교육의 목표
내용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과 원리 • WTA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 교수·학습의 방향 • 교수·학습의 계획 • 교육과정별 지도 • 교육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 사례
평가	• 평가의 방향 • 평가의 계획 • 교육과정별 평가 • 평가 방법 및 평가 예시 • 평가 결과의 활용

WTA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은 크게 ‘자격취득과정’ 21개와 ‘역량강화과정’ 21개로 총 42개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표 2> WTA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 내용 체계

	역량강화과정
• 사범 자격 교육과정 • 심판 자격 교육과정 • 심사위원 교육과정	• 교육역량 강화 교육과정 • 수련역량 강화 교육과정 • 행정역량 강화 교육과정 • 취업역량 강화 교육과정

<표 3 - WTA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 중 1급 국내사범자격 구성 항목>

자격취득과정
• 개요 • 목표 • 교육기간 • 교육방식 • 교과내용 • 교수·학습 방법 • 평가

다음으로 2012년에 국기원에서 개발된 'WTA 전문교육과정'은 태권도 지도자 교육과정의 개발과 자격취득 과정을 통합하고, 태권도 지도교육과정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지도자 자격제도 개선(안)과 일치시키고, 심화과정과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발전과정이나 보수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태권도 지도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나가기 위한 것이었다(<표 4 - 참조>).

<표 4> 태권도 지도자 교육과정

태권도의 정의	
태권도의 추구가치	•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심미적
태권도 교육의 목표	• 태권도 지도의 심동적, 정의적, 인지적 목표
태권도 지도자의 자질	• 태권도 본질 이해/전문성/수련생 이해/리더십/가치정향 개발
태권도 지도자 교육과정 개발 이론	
태권도 지도자 입문과정 : 2급 태권도 지도자과정	세부구성: 2급 태권도 지도자(개념)/선발기준/선발 절차/교육과정/교육의 평가/보수교육
태권도 지도자 심화과정	• 1 경기태권도 지도자 과정 • 1급 생활태권도 지도자 과정
태권도 지도자 특별과정	• 거루기/심판 과정 • 품새/심판 과정 • 태권도 공연(시범) 과정 • 장애인태권도 지도자/심판 과정 • 해외파견 태권도 지도자 과정
외국인 태권도 지도자 과정	
3급 태권도 지도자 보수과정	

다음은 2009년 태권도진흥재단에서 개발한 'WTA 태권도 교육과정 과목별 교육내용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세계태권도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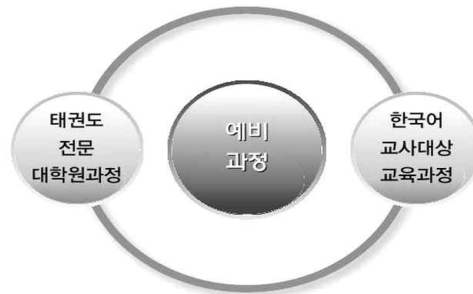
<그림 1> 세계태권도아카데미 교육과정의 종류



<그림 2> 리더십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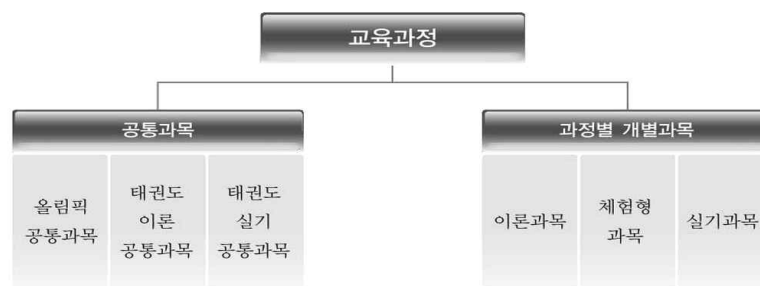
<그림 3> 기량향상과정



<그림 4> 예비과정

2) (기술과 수련 중심의) 태권도 표준교육과정 개발

이 연구는 태권도 표준교육과정을 정립하기 위해 태권도 기술 분류와 전통적인 태권도 수련 기준에 의거하여 태권도 표준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내용 영역과 수련단계별로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태권도 정신과 지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태권도 급, 품·단별 전체적인 교육목표 일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세부 내용을 도출하였다(유창완, 김기철, 최치선, 2013).



<그림 5> 교육과정별 교과목 구성

<표 5> 태권도 교육목표 분류 기준

교육목표 \ 위계	유급자	유단자(1-3단)	유단자(4-9단)
심동적 목표 - 기술/기능	기술/기능	기술/기능	기술/기능
인지적 목표 - 지식	지식	지식	지식
정의적 목표 - 정신/인성	정신/인성	정신/인성	정신/인성

태권도 유급자와 유단자로 나누어 각 급 및 단별로 수련해야 할 기본동작을 기술의 위계를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각 단계에서 배운 내용은 그 단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급과 단이 올라갈수록 숙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표 6> 태권도 유급자/유단자 기본동작

유급과정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기본동작	무급	8-7급	6-4급	3-1급

유단과정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기본동작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진	지태	천권	한수	일여

이러한 방식으로 품새와 겨루기, 격파 그리고 태권도 정신과 지식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7> 태권도 유급자/유단자의 격파 내용

유급과정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내용영역	무급	8-7급	6-4급	3-1급
격파	- 격파를 위한 사용 부위 이해 - 주먹 쥐는 법	- 격파 장비의 이해 - 격파 장비 다루는 방법 - 근력 기르기	- 격파의 과학적 원리 이해 - 격파의 과학적 자세 비교 체험 - 앞차기, 메주먹, 손날을 활용한 격파 수련	- 격파를 위한 신체 부위 단련의 이해 - 다양한 격파 부위의 단련 - 옆차기, 주먹, 팔굽 돌려치기를 활용한 격파 수련

유단과정	검은띠								
내용영역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격파	• 격파의 기본 기술 이해	• 위력격파의 이해	• 응용 기술격파의 이해	• 격파 지도법의 이해	• 격파의 방법 개발		• 격파 이론 연구		
	• 다양한 발차기를 활용한 격파 수련 • 장애물 넘어차기	• 다양한 신체 부위를 활용한 위력격파 수련 • 다방향 고정 표적 차기	•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격파 수련 • 다단계 표적 차기	• 격파의 지도	• 위력격파와 기술격파의 지도				

<표 8> 태권도 유급자의 태권도 정신과 지식 내용

유급과정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내용영역	무급	8-7급	6-4급	3-1급
태권도 정신과 지식	- 예절 - 태권도의 띠와 도복 및 도장의 이해	- 인내 - 태권도의 유래와 역사 이해	- 자신감 - 태권도 기술의 과학적 기초 이해	- 책임감 - 태권도의 심미적 기초 이해

이 외에도 대표적인 기술과 수련 중심의 태권도 교육과정은 2012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연구한 'KTA 태권도 교육과정 개발 결과 보고서'가 있다.

2. 태권도 교육 표준화의 쟁점

태권도 교육과정은 태권도 교육의 본질과 핵심을 다루는 부분으로 모든 태권도 교육 활동은 '태권도 교육과정'에서 시작되어 마무리되어야 한다. 태권도 교육과정은 태권도 교육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태권도 교육과정은 교육내용만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태권도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의 과정 즉, 목표 설정,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 태권도 정신의 우선 정립 Vs 현재 수준의 태권도 정신 수준 반영

일반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것 중의 하나는 교육의 성격을 밝히는 일이다. 즉 어떤 철학적 기반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가 담겨지게 된다. 여기에는 태권도의 본질, 특성, 가치, 역할 등을 설명하고, 태권도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도 담겨야 한다. 그러나 태권도 철학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이는 태권도의 역사성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태권도의 정신에 관한 철학적 담론의 깊이가 낮고,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태권도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려고 할 때, 과연 태권도에서 추구해야 할 정신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태권도 전문가에 따라 제각각의 의견을 내고 있어 목표 설정부터 난항을 겪게 된다. 결국 논의 끝에 내리는 결론은 '국기원 수준에서 정의 내리는 태권도'를 근거로 하되, 일반적인 교육철학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을 택해 '표준교육과정'을 만들자는 식으로 정리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태권도 고유의 정신과 현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철학이 정립되기 전까지 태권도 교육과정의 정립이 미뤄져야 할까? 물론 태권도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태권도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목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교육 표준화 자체를 이루는 것은 태권도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태권도 교육 표준화는 태권도 교육 목표를 정립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태권도 수련생의 특성에 따른 요구, 사회적인 요구, 태권도 전문가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즉 국가 사회가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태권도인의 역할, 태권도 수련인의 특성, 태권도 지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권도 지도내용이 반영된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손천택, 2013).

2)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 Vs 기술과 수련 중심의 태권도 교육과정

태권도 교육 표준화를 논의할 때, 혼란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누구를 위한 태권도 교육과정인가?'의 문제이다. 최근 국기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태권도 표준교육과정은 'WTA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이 교육과정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국기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범, 심판, 심사위원에 이르기까지 태권도 지도와 경기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그런데 국기원의 이런 노력과는 별도로 대한태권도협회는 주로 일반 수련생의 '태권도 기술지도 및 수련방법'에 초점을 둔 태권도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넓은 차원의 '태권도 교육 표준화' 노력은 모두 중요하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의 표준화 사업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자적인 시각에서 대한태권도협회는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현실적인 '태권도 교육 표준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기원이 이런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반면, 국기원은 대한민국의 태권도 교육 현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태권도의 분파적 양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이 '태권도 전문 인력'을 표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태권도 교육 표준화는 국내 국외가 따로 없고, 전문가와 일반 수련생이 별개로 이루어져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3)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범위 : 현실 수요 반영 Vs 수요 창출

태권도 교육 표준화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 종류와 과목의 개발 범위에 관한 것이다. WTA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은 총 42개에 달한다. 이는 태권도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향후 태권도 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최근 개발된 전문가 교육과정은 대부분 '태권도 내부의 교육역량'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충실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려면 필수적인 '내용 또는 과목'이 들어가야 한다. 이러다보니 새로 신설된 태권도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과목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이를 지도할 교수 인력은 사실상 한계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태권도 전문 인력의 지도의 산실이 될 '무주'로의 이전은 태권도 교육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개발된 연구 자료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태권도의 다양한 기술과 수련 방법이 있지만, 백화점식으로 모든 내용을 교육과정이 담을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태권도 전문가들의 기술과 수련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태권도의 모든 기술과 수련방법을 담게 되는 것이겠지만, 이 또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Ⅲ. 결 론

<제언 1>

○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이 구분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체계와 비교한다면, 총론은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에 반해 각론은 총론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각 교육과정별로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를 정하는 것이다.

태권도 역시 태권도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전체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총론을 마련하고, 각각의 교육대상에 맞는 '각론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보다 공식적이고 체계화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실천전략 1>

○ 『태권도 교육과정 위원회』의 신설을 통한 해결 노력

이 기구에는 각 태권도 단체의 대표자들과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태권도학과 교수, 현장 태권도 지도자, 해외 태권도 지도자 등이 참여하며, 연구 개발된 교육과정의 심의 및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언 2>

○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은 선순환의 과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교육과정은 시대 및 사회적 요구, 수요자의 요구, 태권도 전문가의 요구가 모두 반영되는 것이므로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식화된 태권도 교육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태권도계'에서는 한번 만들어진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이 불변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은 현재 태권도인의 연구·개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만들어내고, 각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새로 만들어진 태권도 전문가 교육과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울러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도자의 역량과 수요자의 능력에 따라 도장 단위의 '현장 태권도 교육과정'은 '생물'처럼 적절하게 변형되어 사용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은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 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강력한 잣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태권도의 기술과 수련 방법은 더 풍부해질 것이며, 향후 또 다시 이를 반영한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 개정'을 이루어 나간다면 태권도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이다.

<실천전략 2>

○ 『태권도 교육과정 시범 적용』을 통한 현장 적합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국가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과정이 개발되면 이를 시범 적용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교육과정이 공포된다. 그러나 태권도 내에서 연구된 대부분의 태권도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과정은 일방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태권도 전문가들이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된 태권도 교육과정은 현장에 적합하지 못한 사례가 많고, 이는 결국 현장 지도자들의 거부감만 커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거듭되면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은 사문화된 문서로만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론 수준에서 개발된 다양한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을 국내의 여러 지역과 해외의 주요 지역을 선택하여 '태권도 교육과정 시범 도장'에서 적용 및 운영하는 것이다. 시범 운영도장에는 재정적 지원과 지도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야 하며, 적절한 컨설팅도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국기원(2012). **WTA 전문교육과정**. 서울: 국기원.

국기원(2013). **WTA 태권도전문가 교육과정**. 서울: 국기원.

김정만(2009). **세계태권도아카데미 교육과정 과목별 교육내용 수립**. 서울: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2012). **KTA 태권도 교육과정 개발 결과 보고서**.

손천택(2013). 태권도 표준교육과정의 개발과 과제. **국기원 태권도연구**, 4(2), 1-17.

유정애(2012). 체육과 교육과정 총론. 서울: 대한미디어.

유창완, 김기철, 최치선(2013). 태권도 표준교육과정 개발. **국기원 태권도연구**, 4(2), 51-82.

6

포럼 발제 내용 II

태권도학과의 교육 표준화 방안

곽정현 (가천대학교/태권도학과 교수)

I. 서 론

21세기는 20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더 복잡, 다난해지고 있으며(오인탁, 2004) 정보사회, 지식기반사회, 문화사회로 일컬어지면서 교육을 잘 받은 인적자원이 곧 개인과 국가의 부와 번영을 약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한 다음 세대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이 다가올 사회에 적절성을 가져야 하고 이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그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제반 지식, 능력, 가치관, 태도 등을 담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변종헌, 1999).

특히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인간 교육으로 심신이 조화된 전인적 인간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발달 등을 포함한 성격형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양대승, 1992).

태권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제한 없이 무기를 지니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손과 발을 사용하여 방어와 공격의 기술을 연마하며 심신의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로서(대한태권도협회, 2014),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태권도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수 많은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해 왔으며, '태권도 교육'은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 등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태권도 기술 수련과 더불어 수련자의 신체적 성장과 인성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전인적(全人的) 교육 수단으로서 궁극적으로 태권도의 질적 수준을 격상시킨다고 하였다(국기원, 2014).

태권도의 교육학적 특성은 스포츠, 올림픽종목, 무도로서 추구하는 가치를 모두 함유하고 있음으로써 도덕성 함양을 실현하며 올림픽이 추구하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능력 배양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 실천하는데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덕목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태권도진흥재단, 2009).

이러한 태권도 교육을 학문적으로 정립시키기 위하여 1980년대 초반 태권도학과가 출발하였고, 30여년이 지난 지금 4년제 대학에서 26개의 학과가 개설되었고, 2년제 대학에서 15개의 학과가 개설되었다(국기원, 2014). 이는 태권도의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문적 배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태권도의 발전된 미래는 궁극적으로 태권도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는 학생은 현재 교육의 수요자이고 더불어 미래교육의 잠재적 실천자이기 때문이다. 학생이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는 것이 태권도 발전의 한계를 가능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태권도학과 교육과정의 구성이다(곽정현, 2005).

현대사회의 변화는 교육이념, 교육목적 등에 변화를 가져와 교육과정 내용의 구성과 그 운영도 변화되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개념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계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인류의 입장에서 개인의 특성을 발견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사회적 현실과 변화를 잘 파악하여 새로운 시대적 감각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제시되는 구성과정으로 계획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이현수, 2004).

그동안 태권도학과는 20여년이 걸쳐 ‘유능한 지도자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아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은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상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곽정현, 2005).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 미래에 대한 대처 방안, 학생의 필요와 요구, 직업의 다양화와 전문화 등 많은 요인에 따라 수시로 개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현대적인 대학 교육과정의 특징이며(허 형, 1987; 전정우, 2004), 대학의 교육적 학문적 탁월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은 각 학교의 교수진에 의하여 편성되었고, 이는 체육학에 기초하여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형태로 편성되었다(전정우, 2004; 곽정현, 2005). 따라서 대부분의 태권도 관련 학과에서 개설된 과목들은 체육학을 토대로 하였으며 또한 교육과정과 내용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태권도학이 학문으로서 명확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실정이다(윤상화 외 5인, 2002; 곽정현, 2005).

이를 토대로 태권도학과의 교육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태권도학과의 교육표준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표준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태권도관련 학과의 교육목표

태권도는 육체적 단련과 정신적인 수련을 병행하여 인격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인간을 형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정신과 신체수련의 구체적인 관계의 교육이 바로 이론의 강의와 실기 수련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태권도의 이론 강의에서는 학문적으로 태권도의 이론적 뒷받침과 태권도 기술의 수련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태권도의 무도로서의 교육적 가치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대한태권도협회, 1987).

교육목표는 교육활동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교육목적의 하위개념으로 목적을 구체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목표 수립에서는 개인중심적 입장, 사회중심적 입장, 통합적 입장 등이 있다. 개인중심적 입장에서는 학생의 능력·필요·흥미 등에 기초하여 각자의 효과적이고 충실한 발달에 중점을 두고, 사회중심적 입장에서는 사회에의 적응 및 개조를 교육의 목적으로 보고 이에 합당한 교육목표를 수립한다. 통합적 입장에서는, 사회는 개인에 의해 구성되고 개선되지만 동시에 사회 또한 개인성원의 성격·활동방향을 규제한다고 보고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적 성질을 중시한다. 따라서 학생의 사회적 자아실현을 강조하고, 사회의 요청과 개인의 필요를 절충하여 높은 차원에서 교육목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목표는 인간행동의 분류에 따른 행동적 특징을 교육의 내용과 관련시켜 진술되는데, B.S.블룸 등이 행동적 목표라고 일컫은 교육목표는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과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 그리고 심동적 영역(Psychomotor domain)으로 분류된다(두산동아, 2014).

특히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목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과정, 평가) 중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손선미, 2008).

첫째, 수업에서의 교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둘째, 학생들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교사가 교수자료를 선정하고, 수업과정이나 교수전략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Bloom 등, 1971).

셋째,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적절한 평가기술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교사가 의도하는 교수목표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서는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교육목표는 인간과 사회의 바람직한 상태에 관한 철학적 이념적 탐구, 사회 및 문화 발전을 전제로 한 사회문제 및 필요의 분석, 특정 사회의 역사적 현실에서 본 대학 기능의 검토, 학생들의 필요의 진단, 각 학문 체계에서의 전문적 필요의 구명을 기초로 하여 설정

되어야 한다(양정석, 2002).

태권도학과와 교육목표는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내포하지만, 근본적으로 '태권도의 세계화 추세에 맞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유능한 지도자 양성'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이동호, 2001;곽정현, 2005).

2. 태권도학과 교육 과정

교육과정은 영어의 '커리큘럼(curriculum)'으로 이것은 라틴어의 '쿠레레(currere)'에서 온 말로서 '달린다'는 뜻이었고, 이것이 나중에 경마장의 경주로(race course)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경마장에서 말이 경주를 하기 위해 출발점에서 종착점까지 달려가야 하는 일정한 코스가 커리큘럼인 것이다. 교육과정은 그 사회의 이념과 맞아야 하는 철학적 기초,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기초,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해야 하는 심리적 기초 등의 토대 위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함종규, 1983; 김성권, 1991; 김정규, 1994; 박기주, 2002; 이동호, 2002; 곽정현, 2005). 즉, 교육과정은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마련된 계획'으로서 국가 수준의 계획에서부터 교사와 학생의 계획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단위의 교사와 학생 수준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기성 세대의 핵심적 문화 내용으로서의 지식, 사고의 양식, 경험을 재구성한 계획이라고 보았다(교육부, 1997).

대학의 학과를 소개하는 사이트(www.gouni.co.kr)에서는 태권도학과에 대한 소개로 '우리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를 연구하고 실기 지도자 양성 및 선수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학과이다. 특히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인력 수요전망이 밝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으로 '태권도 관련 이론과목 뿐만 아니라 유도, 체조, 육상, 검도 등의 다양한 운동경기 분야에 대해서 두루 학습하며 전공과목으로 태권도개론, 여가 및 레크레이션, 태권도기본동작, 태권도품새, 태권도호신술, 탈춤, 볼링, 스키, 태권도사, 해부학, 운동생리학, 한국민속체육사, 태권도격파술, 웨이트트레이닝, 농구, 태권도지도론, 체육측정평가, 스포츠사회학, 체육행정, 테니스, 수상스포츠, 골프, 축구, 태권도현장실습, 코치론, 스포츠경영론, 경호학개론, 스포츠의학, 특수무술, 에어로빅, 사격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고 하였다.

국기원(2014)에서 발간된 '2013 태권도 교육백서'에 의하면 4년제 대학 26개교, 2년제 대학 15개교가 조사되었는데 가장 많은 대학이 태권도(학)과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 태권도(학)전공, 태권도(경호)학과, 태권도외교(학)과, 태권도경영(학)과, 태권도선교(학)과, 태권도체육과 등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각 학교별로 교육과정은 학과명에 따라 기본 태권도전공과목을 공통으로 경호학, 외교학, 경영학, 선교학 관련 교과목을 포함시키면서 특성

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다수의 태권도관련학과들은 태권도가 한국의 전통무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과목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태권도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태권도전공영어 및 영어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태권도교육의 표준화의 기초를 위한 태권도학의 방향

학문은 시대적 산물로서,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그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학문에 부과된 사명이기도 하다(김성수, 정지웅, 최민호, 이종만, 권일남, 1991; 강경훈, 1995; 안민석, 2001). 학문을 어떠한 관점에서 정의하고 바라보는가에 따라, 학문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 중의 하나는, 철학과 같이 인간 본연의 자세 내지는 삶의 본질을 다루는 학문을 제외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계통의 학문들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발생하여 사회적 요구가 많은 분야는 인기있는 학문으로서 대접을 받아왔다(이호건, 1999). 어떤 학문이든지 그 학문이 성장, 발전하려면, 그 학문의 연구범위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곽정현, 2005b).

태권도학의 의미는 '태권도에 대한 제반 이론 및 이론적 논의들'을 뜻하며, 이러한 태권도학의 체계가 잘 정립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적, 외적 요인들이 만족되어야 할 것이며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이봉, 2009).

표 1. 태권도학의 체계 정립의 요인들

	의미	구체적 내용	판단기준
내적요인	핵심적 의미에서의 태권도학 정체성 확립 조건	학적 물음의 존재	명확하고 논리적인 학적 질문 체계의 존재
외적요인	완성적 의미에서의 태권도학 정체성 확립 조건	과학자 집단의 형성	명확하고 논리적인 학적 질문 체계의 존재
		태권도학의 학문성	교수, 연구원, 학회활동
		태권도학 전공서적의 출판	전공서적의 질과 양

(1) 단일 학문으로서 태권도학

이창후(2009)는 현재 '태권도학'이라는 이름으로 호칭할 만한 학문적 체계는 전무하다고 하면서 태권도학의 정립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념적 접근방법으로 '학문'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적 접근'과 여타의 잘 확립된 학문의 구성원리를 모

방하는 '경험적 접근'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경험적 접근 방법 중에서 태권도학과 체육학의 관계 속에서 체육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학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봉(2009)은 완성적 의미에서 태권도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필요조건은 '총체적 이론구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태권도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스스로 체육, 스포츠과학의 하위전공영역이라고 규정짓는 굴레에서 벗어나 기존의 연구방법 및 접근에서 탈피하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전환이 이루는 내적 태도 변화 위에서 개별자료를 통해서 이론과의 상응을 따지는 상향식 접근방법에서 이론을 바탕으로 개념을 구성하고, 개별자료와의 상응을 고려하는 하향식 접근방법으로의 전환이 태권도학 고유의 이론을 구성하여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외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봉과 이창후는 태권도학을 <표 2>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2. 태권도학의 세부 분과목 체계

	분과목 구분									
최상위	태권도학(拳道學)									
	태권도 원류학								지류학	
대분류	정체성분과		실천적 분과				관련분과			
중분류	역사	철학	기법			수련			관련과학	
세부 분과목			태권도원리							역학
	한국무예사	태권도사상	기법체계론			수련체계론			심리학	
	태권도사		일반기법	특수기법		심사	단련	지도	시범	생리학
			비교무예론				각 세부분과			마케팅
		태권도윤리	기초론	품새론	겨루기론					
			무기술							

(2) 체육학과 연계된 태권도학

그동안의 태권도학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체육학과의 연계로 이루어졌다.곽정현(2005)은 체육의 학문화 과정을 통해 태권도의 학문화 과정을 접목시켰다.

특정한 연구의 분야가 성숙한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연구의 대상과 고유한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의 대상에 대한 지식의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체육학이 '인간의 움직임에 관한 과학'이며, 이를 연구하기 위한 체육학에 맞는 연구방법이 구성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체육학의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 온 점을 보여주고 있다(이종영, 1997; 곽정현, 2005).

이러한 체육의 학문화 과정을 통해 태권도의 연구대상이 '태권도를 통한 인간의 움직임

임'이며, 현장의 실천과 방법론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무예인 만큼 우리의 정신 철학에서 비롯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 맥락의 범위 안에 수용될 수 있는 태권도학의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념과 내용도 문화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4. 태권도학과의 교육 표준화를 위한 교육과정

태권도학과의 교육과정은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와 목표를 토대로 학문적인 뒷받침을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태권도학과의 교과목은 타 학과목들과 어떠한 학문적 체계에 의하여 조화를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정립된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서론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지금까지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은 각 학교의 교수진에 의하여 편성되면서 교수진의 전공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고, 체육학에 기초하여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형태로 편성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이창후와곽정현이 제시한 교육과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이창후의 태권도학과 교과목 분류

이창후는 태권도학과의 교과목 분류를 위하여 1차적으로 태권도학의 체계를 5가지 범주로 구분하였고, 이를 토대로 <표 3>과 같이 교과목을 분류하였다.

표 3. 이창후가 제시한 태권도학과 교과목 분류

	교과목
교양필수	영어회화, 논리와 비판적 사고, 교양국어, 국사, 세계사, 영어작문, 영어강독, 윤리학.
교양선택	중국어, 스페인어, 기타 제2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기타 타 전공의 교과목들.
전공필수	일반무술사(이론), 한국무예사(이론), 태권도사(이론), 태권도철학(이론), 태권도원리론(이론), 태권도기법체계론(이론), 태권도기초론(실기), 품새론(실기), 겨루기론(실기), 무기술(실기), 태권도수련론(이론), 심사론(이론), 단련론(실기), 지도론(이론), 시범론, 태권도생리학(이론), 태권도마케팅(이론), 도장운영론
전공선택	일본무술사(이론), 중국무술사(이론), 태권도현대사(이론), 한국전통사상과 태권도(이론), 태권도 윤리학(이론), 태권도 인성론, 태권도 원리론(이론), 비교무예론, 품새원리론(실기), 품새형식론(실기), 겨루기기법론(실기), 경기규칙론(이론), 실전론, 이종격투론, 기본기법연구(실기), 급소론(이론), 극기론(실기), 양생론(실기), 격파론(실기), 스트레칭(실기), 단급론(이론), 심사규정론(이론), 응급처치(실기), 태권도 호신술(실기), 태권도역학(이론), 태권도심리학(이론),

(2)곽정현의 표준교육과정 제안

곽정현은 기존의 태권도학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다양한 명칭으로 제시되어 있던 교과목들의 명칭을 통합하여 <표 4>와 같이 제시하면서 각 대학마다 개설되는 교과목 및 개발 중인 교재에 대한 상호간의 토론을 거쳐 각 대학들이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과목을 개발해 나가야 하며 특히 태권도 교과목의 명칭 통일이 이루어져야 표준화된 교과목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특히 이론 부분에서는 -론과 -법이 과목의 의의와 상관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표 4. 곽정현의 표준교육과정 제안

	과목명
태권도 이론	태권도개론, 태권도사, 태권도철학, 태권도 품새론, 태권도 겨루기론, 태권도 사회학, 태권도 심리학, 태권도 연구법, 태권도지도론, 태권도 외교론, 태권도영어, 태권도 행정실무, 태권도 교육론
	태권도 역학, 태권도생리학, 태권도측정평가, 태권도코칭법, 태권도트레이닝법, 태권도와 컴퓨터 활용, 태권도와 성장발달
	태권도프로그램구성법, 태권도장 경영론, 태권도 현장실습, 태권도 경기규칙 및 심판법, 태권도 경기론, 태권도시범론
태권도 실기	태권도 기본동작, 유급자 품새, 유단자 품새, 태권도 겨루기, 태권도실기, 태권도연습, 태권도 동작의 창작과 시범, 태권도호신술, 태권체조, 태권도특수동작

Ⅲ. 결 론

본 연구자는 결론으로 향후 태권도학과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태권도학에 대한 명확한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태권도가 1980년대 대학에서 학과로 편성되면서 학문으로서 발전되어 온지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태권도학’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향후에는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학문으로서의 태권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태권도는 인간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며 특히 ‘도’를 통하여 사유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이다. 곽정현(2005)은 태권도학의 연구대상은 ‘태권도를 통한 인간의 움직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인간이 아니면 태권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권도의 출발은 ‘몸’이라는 신체의 교육과 더불어 정신적 성숙까지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태권도학에 기초한 명확한 교육과정의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봉과 이창후, 그리고 광정현이 제시한 것처럼 태권도의 체계를 이해하고 교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여 통일성 있는 과목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대학의 교수진들이 모여서 교육으로서의 태권도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학교육의 목적에 맞는 교과목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대학의 교육은 제한된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전체 졸업학점, 졸업을 위한 전공필수, 전공선택의 학점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교과목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제한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태권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현장을 위한 교과목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학가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폐교 및 학과의 통폐합이다. 즉 대학의 본령이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삼아 무리한 학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태권도학과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까지도 고려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광정현, 2013).

대학은 지혜의 상아탑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태권도학과는 사회에서 또 다른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곳이다. 따라서 그들이 지도자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훈(1995). 무역학의 학문적 체계와 앞으로의 연구과제. 한국무역학회 정례학술발표대회. 239-262.
- 광정현(2005). 태권도학과 교육과정을 통한 태권도의 학문적 방향모색. 한국체육학회지, 44(5). 69-78.
- 광정현(2005b). 태권도의 학문적 방향모색을 위한 태권도학과 교육과정 및 연구동향 분석.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광정현(2013). 태권도학과와의 위기와 대응. 국기원 태권도연구. 4(3). 29-55.
-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 국기원(2014). 2013 교육백서.
- 김성권(1991). 교육과정과 평가. 서울:형설출판사. p.21.
- 김성수, 정지웅, 최민호, 이종만, 권일남(1991). 농촌사회교육학의 학문적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3(3). 1-18.
- 김정규(1994).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서울:형설출판사. 16-17.

- 대한태권도협회(1987). 계간지 제62호.
- 대한태권도협회(2014). 홈페이지. <http://www.koreataekwondo.org>
- 두산동아(2014). 두산대백과사전.
- 박기주(2002). 여가.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변종현(1999). 비전2020. 서울:민음사.
- 손선미(2008). Klopfer의 교육목표 분류체계에 의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차세대 과학교과서 분석.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민석(2001). 체육학의 현황과 전망. 한국생활환경학회지. 8(3). 231-237.
- 양대승(1992). 태권도 수련이 아동기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배경.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양정석(2002). 태권도학과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인택(2004). 21세기 교육철학의 방향 모색. 교육철학. 31. 71-86.
- 윤상화, 양정석, 김태일, 가경환, 신민철(2002). 태권도 전공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 한국스포츠리서치, 13(4). 513-525.
- 이동호(2002). 태권도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봉(2009). 태권도학 정립의 기초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48(4). 37-44.
- 이창후(2009). 태권도학의 체계. 태권도학의 체계정립 및 태권도아카데미 교육과정 개발 공청회 자료.
- 이현수(2004).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한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 정의적 영역 교육목표 하위요인에 관한 통계적 검증. 한국스포츠리서치, 15(5). 97-110.
- 이호건(1999). 국제통상정보학의 학문적 체계. 통상정보연구 1(1). 한국통상정보학회. 1-10.
- 전정우(2004). 태권도의 사회학적 이론 정립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과학회지, 13(2). 93-111.
- 태권도진흥재단(2009). 세계태권도아카데미 교육과정 과목별 교육내용 수립.
- 함종규(1983). 교육과정. 서울:숙명대학교 출판국.
- 허 형(1987). 교육과정 개발의 4모형과 그 절차. 대학교육. 9. 대학교육협의회.
-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 objectives, handbook I:cognitive domain. New York: Logman.
- Klopfer, L. E. (1971). Evaluation of learning in science. In B. S. Bloom, J. T. Hasting, & G. F. Madaus, (Eds.) Handbook on formative and summative evaluation of student learning (559-641), McGraw-Hill. New York.

7

포럼 자문 내용 I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 방안

김하영

1.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 과정

현 시대의 태권도 교육은 교육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기원의 WTA 교육과정 사업의 하나도 그의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나 발표자의 발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의 표준화를 논의 하면서 중요한 합의 없이 일방적인 표준화를 요구하며 각자의 의견대로 집필하는 자체는 표준화에 어긋난 것이라 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그 교육의 대상이다. 발표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하였지만 교육내용도 중요하지만 교육대상이 누구인가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 교육에서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표준화는 가르치는 강사에게 혼란만 가중할 것이고 후에는 교육과정의 교재나 그 교육과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태권도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의 과정 즉, 목표설정, 교육내용, 교수 학습방법, 평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였다. 그 전체의 교육과정은 그러하지만 이러한 내용까지도 표준화를 시켜야 하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효과적인 가르침에도 표준화가 있을까? 나름 우수한 교육자라 함은 교육의 독창성, 창의성을 겸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방법, 평가 까지도 표준화를 시킨다는 것은 강사의 독창성과 효과적인 가르침에 배제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따라서 교재의 표준화는 동의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교수 학습 방법은 '기본적인 교수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표준화는 없을 것이다'는 생각이고 그것을 표준화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태권도 지도자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현실적인 '태권도 교육 표준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국기원의 노력이 적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본다. 국기원에서는 태권도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위하여 2009년 이후 WTA 교육과정의 수립이후 꾸준히 정부와 협의하여 연구를 하며 각 대학에 연구의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국기원의 노력은 진행형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끝으로, 현시대의 요구에 맞춰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결실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인 것도 사실이다. 과연 이러한 표준화 작업이 쉬운 것인가? 또는 표준화 교육과정의 교재를 강사들이 잘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의문은 지속적이다. 이미 표준화를 위하여 완성된 교재도 다시 한 번 검토하며 더 좋은 표준화된 교재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그에 맞는 강사의 교육도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적인 태권도와 교육학적인 인식이 겸비된 강사의 모집도 중요하다.

2. 태권도학과의 교육 표준화 방안

태권도 학과의 발전은 1980년대 초 모 대학의 태권도 학과 설립이후 현재까지 많은 시련을 거치며 현재의 태권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학에서 태권도 인재를 양성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태권도는 스포츠의 한 종목임은 사실이고 체육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태권도의 커리큘럼은 그 상위 학문인 체육학을 바탕으로 결정되었음은 당연하다고 본다. 발표자의 언급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제는 세계의 스포츠인 태권도가 독창적인 학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 태권도학과의 교수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각 대학의 특성상 태권도학과의 교육표준화는 불가능 하지 않을까 한다. 각 태권도 학과의 교수진은 그 대학의 특성과 학생의 요구에 의해 교육과정은 변할 수 있으나 전체의 태권도학과가 표준화된 교육과정 아래 교육을 한다면 어느 대학이나 다를 바 없지 않겠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태권도 학교의 교육표준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표준화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본다. 현재 다양한 이유로 많은 대학에서 많은 학과가 사라지고 다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 사회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불행이도 태권도학과는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한 사실에 의하면 오히려 대학의 각자의 독창적 특성을 가진 태권도 학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포럼은 현 태권도가 요구하는 주제로써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실현 가능한 주제로써 발표를 하였으면 더 좋은 포럼이 되었지 않았을까 한다.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 태권도 학과의 교육과정 표준화 모두 좋은 주제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태권도 학과에서 그 표준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인가의 의문점이 생긴다. 다만 과거 30년 전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육과정은 현시대에서 후퇴되고 노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대학의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으로의 일부 또는 전면 개편은 각 대학의 교수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이며 전 대학의 태권도학과 교육과정 표준화는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주제의 선정에도 현실에 어울리는 발표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8

포럼 자문 내용 II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 방안

고문수

태권도의 교육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만약 오늘의 논의가 조금씩 자리를 굳히지 않는다면 3년 아니 5년 이후도 이러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태권도 교육 표준화 방안에 대해 제시된 전문가의 제안들이 매우 타당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태권도 교육 표준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을 참고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의 내용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체육교육이 어떠한 성격과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 방안 마련을 하는 부분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을 참고하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과정의 개발 주체와 관련해서는 국기원 일변도보다는 태권도 교육의 방향성을 합의할 수 있도록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 그리고 대학의 태권도 관련 학과 교수진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태권도 표준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주제를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 방안>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태권도 교육과정>으로 수정하면 좋을 듯하다. 즉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 방안 마련이 곧 태권도 교육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본 검토자가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 방안 마련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교육 내용을 일원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기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기원에서 국가 수준의 태권도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화된 태권도 교육과정을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국가 또는 국기원에서 지향하는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수를 통해 현장 조기 정착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틀을 위해 태권도 교육과정의 총론을 개발하고, 각론으로 해당 연령대 별로[유소년, 청소년, 성인, 노인 태권도 교육과정]

태권도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교육과정별로 태권도 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가 보다 상세화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태권도 교육내용의 개발을 위해서는 태권도의 기능적 요소와 움직임의 질을 경쟁하는 형태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태권도가 스포츠화의 기류를 타고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려는 노력을 하는 동안 중국의 우슈가 문화 복지 시대의 요청에 따른 웰빙의 분위기에 따라 건강 무술로 급격히 성장한 사례에서 시사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태권도 교육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태권도 고유의 특징을 살린 경기화를 지향하는 부분이외에도 대중을 아우를 수 있는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강운동으로서의 가치를 포함해야 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과정의 개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가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의 개념과 철학적 방향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나 합의된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과 사고를 바탕으로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 방안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9

포럼 세부 내용

- 이재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유창완
 - 교육과정을 주도하고 연구 및 각 교과별 교육과정, 수능, 임용고사, 교사 수준 등의 평가의 자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바탕 되는 일, 정책, 평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곳입니다.
- 박용호
 - 표준화라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권도의 용도 및 태권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곽정현
 - 태권도의 용도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의 출발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나왔었습니다. 현재에는 태권도가 체계를 갖추게 되어 상대를 제압할 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 교육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권도에 내재된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폭력이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이 나를 위협할 때 사용하는 것이 태권도입니다. 즉 나를 지키면서 더불어 나를 진정 시키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박용호
 -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도장에서 학부모들이 많이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선한 답을 원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원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춘 답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에 대해서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곽정현
 - 100개의 도장에 물어봤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태권도라는 것에 맞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분들이 학부모가 찾아왔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적합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전에 도장을 갔을 때 태권도를 배우러 오는 사람에 맞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에 맞춘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수련자에게 맞춰서 적합한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유창완

-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권도의 2차적인 효과가 아니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수련생이 계속적인 수련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의 본질적인 것이 가장 중심이 되고 그 외에 얻어지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토요일에 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급이 올라감에 따라 태권도 고유의 것들을 강화시켜가는 것이 태권도 교육의 본질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2차 부수적인 것들에 중심이 되어있어서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호

- 태권도 교본을 봤을 때, 실제로 활용성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련생들에게 개인차가 있었을 경우 다른 훈련을 시키듯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의 용도에 대해 명쾌하게 꼬집어주면 그 방법으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때 말씀해주신 아드님의 경우에도 품새를 오래해 왔기에 당연히 지루했을 것입니다.
-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보니 태권도의 용도는 무엇인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집고 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최상환

- 도장에서는 실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태권도장을 20년하고 그러한 고민을 하다 보니, 태권도장 컨설팅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국기원에서 태권도장 경영론, 지도법 등을 강의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의 질문과 같이 토론자의 고민이 우리 전체 고민의 핵심이었습니다. 수련생들이 태권도장에 오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 즉 학부모도 고려해야 합니다.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국기원과 대태협에서는 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권도장의 수련생이 태권도를 배우러 오면 제도권교육에 가지 않아도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훨씬 더 훌륭하게 만들어지면 되겠다. 나의 제자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후 기업의 인재채용의 기준을 모았고 각 대학의 교육이념들을 모아 공부하였습니다. 내린 결과는 '우리 도장에 오면 이러한 사람이 됩니다.'라고 하며 '효, 도전의식, 공동체의식, 책임의식의 배움터'라고 내세우며 지도하였습니다. 지도자는 태권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태권도 기술 뿐만아니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훌륭한 사람을 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06년 국기원 태권도연구소가 만들어지며 처음으로 한 것은 역사와 철학 연구입니다. 또한 지도를 하면서 태권도의 정체성에 귀착하였습니다. 태권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도자가 매일 수련자와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귀착되는 것이 정체성 즉 태권도인이라는 상이 정해져야 합니다.

- 김영선
 - 용도라고 하니깐 수련목적인가? 가치인가?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 박용호
 - 사실 태권도를 다르게 보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권도장에 왔을 때에는 바로고 강하고 착하게 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 김영선
 - 종교는 아니라 철학입니다.
 - 학부모가 물어봤을 때는 태권도의 인성교육의 가치를 말하면 되는데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테크닉입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많이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자들의 고민은 태권도의 본질을 고민합니다. 일반 사범님은 상담기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용도에 관련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최상환
 - 주제와 관련하여 토의하고 그 후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교육목표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유창완
 -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국기원에 가서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태권도 학과를 가서 배운 사람들은 그곳에서 배우면 좋고, 자신이 대학은 못가지만 경영성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이 이상이 아닌가 합니다.
 - 문제는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수요가 많은 사업의 순으로 정해서 기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곽정현
 -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 최상환
 - 제도도 그렇고 학과는 40여개가 있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곽정현
 - 그동안 태권도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왔지만 단순히 던져진다는 생각이 듭니

다. 1970년대 중반에 연구가 처음으로 나오고 그 후의 연구자는 연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펼칩니다. 또한 개발은 많이 하고 던지지만 실제로 활용이 되어 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 연구자료 또한 30년 전이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 최상환

- 왜 똑같은가요?

•곽정현

- 태권도학과가 생겼지만 이야기를 하면 다 똑같습니다. 태권도 교육과정을 거친 후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국기원과 함께 태권도 교육과정으로 개발한 것을 맞춰서 교육을 하지만 국기원에서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 과정을 다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대학의 경우 전공과목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기원에서 하는 60시간의 교육을 대학과 함께 연구하여 그것을 가지고 연계를 한다면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서로 간에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 태권도의 초창기의 논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가라테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인하다보니 정체성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저희가 가지고 와야 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 정지수

- 태권도의 정체성이나 역사에 관해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태권도 지도자 중 한명이 방금 전에 이야기 하신 이야기를 하고, 한 때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수도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제가 황기사범한테 태권도를 배울 때는 황기사범이 쓴 서적을 보면 중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권도 지도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위에 떠있다는 것입니다.

- 귀국보고서의 참고문헌으로 중국권법과 태권도의 비교연구를 자칭해서 써서 태권도협회의 엄운규님께 제출했었습니다. 해외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 태권도의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 서두에 태권도는 중국 권법에서 시작하여 일본 가라테를 경유하여 한국에서 꽃을 피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체성 논란이 되고 있지만 태권도는 한국인의 고유무도에 특성을 살려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면하는 문제점은 항상 당면합니다. 태권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운진

-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역사라는 것은 태권도의 정체성을 과거에서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철학으로 따져보면 논어정도인데 철

학을 전공한 사람이 태권도 철학에 관해 논의하고, 태권도 기술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태권도 교육이 전인적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태권도 수련생들이 전인적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을 일선 도장에서 다뤄 줘야 하는데, 그 부분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민하는 것들은 국기원에서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인적 교육은 자신의 진정성을 가지고 되는 거죠. 그런데 일선도장에서 사범들의 그릇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그릇들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그릇들의 크기를 어떻게 크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창완

- 사실 개발을 해도 일선 도장의 사범이 그것을 교육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국가 교육과정도 변화가 있을 시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러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말합니다. 국기원은 그것을 준수할 것을 말하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 개발 또한 질적으로 좋지 않으면 사범들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을 모셔서 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범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즉 법체적 / 프로그램의 강화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가야할 것입니다.

• 김영선

- 실제 국기원에서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창무관에서 했던 아래막기 하나를 변화시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안되냐면 9대관으로 시작했듯 개별적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태권도는 59년 최홍희씨가 태권도 5대 정신을 말했고, 그 후 그 정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실제 15년 전에 그 내용을 바꾸자는 말이 나와서 태권도 지도자 교육 교재에 다른 식으로 바꿔야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취합하여 정하는가 하는 것이 국기원의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이러한 부분의 강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학선

- 정답은 없고 현시대에 맞춰서 그것을 시대에 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 석 류

- 대학과 국기원이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문제를 보면 대학교육을 받고 나도 취업이 되지 않고 국기원의 연수과정을 받아도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기업과의 신뢰관계를 볼 수 있는데 대학과 협회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사실 대학교에서 졸업장 한 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태권도 지도자 연수는 대학을 나왔

든 그렇지 않은 상관이 없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같은 경우는 들어야 하는 수업이 있는데 그것이 현 대학에 갖춰져 있지 않기도 합니다. 사범이나 심판자격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이 대학에서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유창완

-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다시 하는게 아니라 국기원에서 연수를 이수하면 대학에서 그 과목을 인정해주는 방식의 2트랙으로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이지훈

- 표준화를 했을 경우 장점과 단점들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 유창완

- 표준화는 좋다고 생각하고, 현장과 교육과의 접목은 어렵습니다. 국기원에서는 큰 틀에서 잡아 줘야하고, 표준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하고 다양한 수련방법이나 기술의 발전의 통일하고는 다르게 이해가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지훈

- 태권도의 표준화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련자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어떠한 방향을 갖고 나가야하는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 곽정현

- 그런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란 표준화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의견 또한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저희가 태권도를 하며 그동안 생각했던 오류 중 하나는 태권도가 소승적인 차원이라면, 수련자나 지도자는 대승교쪽의 수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련을 통해 얻은 것들을 수련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태권도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를 하는 분들 또한 절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창완

-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수련자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수련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고수들의 수련방법을 통일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국기원에서도 고단자로서 수석교원처럼 인정을 해주고 현장으로 보내서 그러한 교육을 해주면서 나중에는 그러한 발표들을 해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단자 분들을 컨설팅 등에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지수

- 젊은 층의 육성만 생각하고 연령이 많은 분들에게 맞춘 지도는 없습니다. 지도자 연수에서도 젊은 층들만 고려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 또한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상아탑 교육만 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체육학에서 태권도학의 발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초기단계에서 겪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 이지훈

- 현장에 계신 사범님들이 계신데, 현장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요.

• 박용호

- 태극1장~8장을 1년간 가르쳐야 한다고 배워왔고 그 당시에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1년 동안 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체조라고 생각합니다. 1년 안에 다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 깊이 있는 수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천히 정확히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서운진

- 현장에서 동작의 표준화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있거나 하면 각 기관이 체계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학선

- 현재 발간되고 있는 책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관심 있게 보면서 지도자들이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선

- 공인 품새를 만들었듯이 공인태권도이론지식을 확립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확립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알기 쉽게 풀어서 일선 현장에 보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상환

- 태권도 기술과 정신이 잘 정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을 모아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관심 놓지 마시고 아이디어 제공 및 경험지식들을 모아서 체계화 시켜서 전달해주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아니라 공론화 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4 제6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 태권도 산업 콘텐츠 활성화 방안 -



태권도연구소

1 개요

구 분	내 용
• 행 사 명	제6차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 주 제	태권도 산업 콘텐츠 활성화 방안
• 일 시	2014.11.29.(토), 10:00~13:00
• 장 소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1층 AREX-II
• 주 최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 참석인원	20명(연구자, 태권도 지도자, 무도(협회) 관계자, 태권도 산업 종사자등)

2 필요성 및 목적

태권도 산업 콘텐츠 활성화에 관한 담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태권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계층의 연구자 협력 체계 구축 과정을 통해 태권도 관련 전문가(집단)를 양성하고, 연구자의 이론적 지식과 지도자의 체험적 지식을 종합 수렴하여 태권도의 주요 학술적 현안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제6차 포럼 추진 과정 모형도 >

3

논의 사항

1) 발제자 주요 의견

(1) 태권도 산업 콘텐츠 활성화 방안

- 발제자 : 오춘성 (아이러브태권도운동본부 / 본부장)

구 분	내 용
태권도 산업(시장)의 중요성과 필요성	• 태권도 발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관련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 정부주도로 태권도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소프트웨어적 투자가 병행되지 않아 산업적 효용성과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외국계 태권도인들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 산업시장에 대한 종주국으로서의 선점이 필요
태권도 산업 활성화 방안	• 태권도 산업화를 위한 기초조사 현황 - 태권도 수련국가 및 수련인구 제시 - 태권도 총 시장규모 제시 • 태권도 산업화 필요 요소 - 태권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창출 - 태권도 서비스의 다양성과 기능성 강화 - 태권도 콘텐츠 산업 및 관광 산업 강화 • 태권도진흥 기본계획('09~'13) 제시 - 중점추진과제1: 태권도 한류 관광 거점시설 확충 - 중점추진과제2: 세계인의 태권도축제 및 관광 상품 개발
결론 및 제언	•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태권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및 관·산·학의 협조체제 구축 - 태권도 빅 데이터 구축 - 태권도행정 및 경기 선진화 - IT와 융합한 기술 개발 - IOC 정신과 이상추구 - 태권도 다양성과 기능성 수련프로그램 확보 - 태권도산업 활성화 - 태권도를 원 소스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산업

(2) 한류사업의 매출액과 태권도산업과의 연계가능성

- 발제자 : 이동선 ((주) 캐치스타 / 대표)

구 분	내 용
한류의 의미	• 한류의 발생과정과 파급효과 • 한류사업의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 • 진정한 한류 원조로서 태권도의 산업화 필요성과 가능성
한류사업의 매출액과 태권도산업과의 연계 (사례)	• K-POP의 인기를 통해 살펴본 한류사업 규모 • K-POP과 한류의 인기로 성공한 사업과 국내외 한류 사업 전망(비전) 제시 - 한류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 제시 - 문화 콘텐츠 산업화 과정 소개 • 한류의 현황과 흐름 - 다양한 한류사업에 대한 소개와 파급효과 제시 • 한류를 통해 살펴본 태권도 산업 전망 -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접근전략 제시 - 새로운 서비스, 전문가, 스타 및 팬을 활용한 태권도 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 태권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마케팅 전략 - 미디어마케팅 성공사례 제시(드라마 미생 등) - 태권도, 검도 및 PPL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한 대안 제시
결론 및 제언	• 한류사업을 벤치마킹한 태권도 산업 활성화 방안 필요 • 태권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마케팅 전략 필요 •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태권도 이미지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이 필요함

2) 참석자 주요 의견

구 분	내 용
① 태권도 정립	• 태권도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원 소스인 태권도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 우선 되어야 함 • 태권도에 관한 정립이 이뤄져야 산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음 • 원천 기술의 학문적 정립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국기원이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태권도 범위를 넓게 정립할수록 산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
② 태권도 데이터 및 정보 축적	• 태권도 산업의 범위와 영역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태권도와 관련된 데이터 및 정보 축적이 필요함 • 태권도 데이터 및 정보 축적이 각 기관별로 통일성 없게 이뤄지고 있으며, 서로 공유되지 못함
③ 태권도 산업 활성화 방안	• 태권도 산업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 상업화를 전제로 개발하는 것은 위험함 • 미디어 및 SNS상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태권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대 간의 교류가 가능한 산업화 접근이 필요함 • 태권도 미디어 노출에 대한 체계와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함 • 태권도 산업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장의 구조와 홍보 마케팅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성인 태권도 활성화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이 필요함(시장개념과 범위 확대 필요)

4

결론

-
- 태권도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및 정보 구축이 필요함
 - 축적된 정보를 토대로 태권도 산업 시장에 대한 분석과 마케팅 방안 수립이 이뤄져야 함
 -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의 미디어 노출을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접근 방법 모색을 통해서 산업화의 기반을 다져야함
-

태권도 산업 콘텐츠 활성화 방안

오춘성 (아이러브태권도운동본부 / 본부장)

I. 서 론

태권도는 불과 70여년의 짧은 현대화 과정을 거쳐 세계화에 성공한 세계문화사에 전례가 없는 금자탑을 쌓아 왔다.

6.25전쟁과 월남전쟁을 통해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60년대 후반부터 해외진출을 시작한지 50여년의 짧은 기간에 전 세계 206개 회원국과 수련인구 9천만에 이르고,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진입하여 핵심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화에 성공하였다. 특히 한국 경제 해외 진출과 세계화에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사범들의 역할론이 제기 될 정도로 태권도는 단순한 무도·스포츠를 떠나 한국 현대사에 주역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태권도를 문화자원화 하고 산업화 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시행(‘08.6.22)에 따른 태권도진흥 기본계획(‘09~’13)과 수립·발표했고, 태권도진흥계획(‘14~’18)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수립·발표된 태권도진흥 기본계획(‘09~’13)은 최초의 정부차원의 태권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자 법정계획으로서 태권도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태권도의 세계화, 국기 태권도 정립을 위한 기반강화, 저변확대, 세계적 문화산업 및 관광브랜드화 등을 통해 태권도산업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3185억원을 연차 투자하여 이미 무주일원 79만평의 부지에 1단계 태권도공원을 조성완료 하였으며, 민자유치를 통해 2단계 사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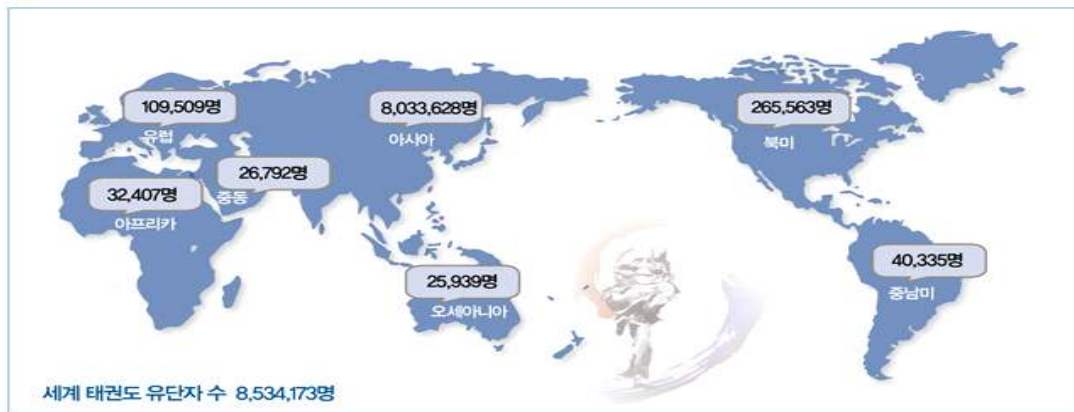
태권도 산업(시장)의 중요성 및 산업화의 필요성 및 목적

태권도는 70년 전 현대화 1단계에서는 그 시대상황을 재대로 활용한 무도적인 측면이 강하였으나 6.25전쟁과 월남전쟁 이후 한국경제 현대화와 상업화에 발맞춰 스포츠화에

주력하여 왔고 90년대 이후 태권도가 건강과 인성교육 중심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여 왔다.

외형적인 태권도의 규모는 괄목상대할 정도로 커져있으나, 산업화 부분에서는 체계화 되지 못하고 시대적인 조류에 편승하지 못한 바 있어 태권도산업시장에 대한 종주국으로서 선도할 의무와 선점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④ '천만이 눈앞' 전 세계 태권도 유단자 수



특히 세계태권도 제도권의 주류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국이 주도해왔으나 이미 유럽을 비롯한 외국계 태권도인들의 도전이 거세지고 현실화 되고 있어 한국태권도계와 정부의 우려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태권도진흥 기본계획 수립하고 1단계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하드웨어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소프트웨어 투자가 병행되지 않아 산업적 효용성과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1단계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여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

태권도진흥 기본계획('09~'13)에서 제시한 부분별과 성과는 있으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도도 못하고 방치된 부분이 태권도산업화를 위한 서비스 상품개발과 콘텐츠상품개발을 병행하지 못하여 태권도진흥계획('14~'18)을 통해 보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태권도진흥계획('14~'18)은 태권도 산업화 취지와 목적을 100% 이루기 위한 상품화에 다양성과 상품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태권도 산업(시장) 현황 및 문제점

태권도산업 규모는 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나 무도, 스포츠, 교육, 용품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 제도권은 산업화에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방향성조차 확보하고 있지 않다. 태권도 종주국이라 허울에 매달려 아날로그 시대적 발상과

행정을 하고 태권도 관련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도 확보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태권도 관련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출원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태권도산업기술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교육콘텐츠, 서비스)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분석을 위해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KIPRIS DB를 통해 살펴 본 바(한국스포츠 산업·경영학회 지 제19권 제3호, 2014.6, 1-15 (15 pages) 태권도 관련 산업재산권 분석을 통한 태권도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첫째,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PCT 중심으로 태권도 관련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출원현황은 총 150여건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 미국, 일본, WIPO를 중심으로 디자인권의 출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4건으로 나타났으나 해외의 경우 'taekwondo'라는 키워드로는 단 1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다만 다양한 검색으로 검색하였을 경우 673건이 검색되고 있다.

셋째, 한국, 미국, 일본, 유럽(OHIM)을 중심으로 상표권의 출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77건이었다.

그러나 태권도 제도권의 지적재산권(교육콘텐츠, 서비스)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기본적인 용구 및 용품조차도 제대로 등록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태권도 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수립되고 태권도 제도권이 적극 호응하여 한국이 태권도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II. 본 론

1. 태권도 산업화를 위한 기초조사 현황

- 태권도 수련 국가 수 및 태권도 수련인구 (WTF기준 -206회원국과 9천만명)
- 주요시장 수련인구
 - 북미시장 수련인구(1천5백만- 미국,케나다)
 - 중남미시장 수련인구(6백만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 유럽시장 수련인구(2천만 - 독일,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 영국, 터어키, 등)
 - 아프리카 수련인구(4백만 - 이집트, 모로코, 가나, 남아공, 등)
 - 아시아 수련인구(4천5백만 - 중국, 한국, 태국, 이란, 인도, 등)
- 태권도총 시장규모 (총 2000억\$)
 - 태권도 용품시장 규모(추산 - 400억\$ 규모)
 - 태권도 서비스시장 규모(수련비기준 -1500억\$ 규모)
 - 기타 시장(10억\$ 규모)

2. 태권도 산업화에 필요한 요소

현재 태권도는 중주국인 우리나라를 포함 206개국에 수련하고 있고 올림픽 동.하계 종목 중 10위권 이내에 드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태권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

여타 스포츠와 다르게 도복과 보호 장구들은 태권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 글로벌 브랜드 산업에 획기적인 장점이 있으나, 스포츠시장은 나이키, 아디다스 등 외국 유명 브랜드가 스포츠시장의 70%를 점유하고 무도시장의 수십 개의 군·소 브랜드들이 분할하고 있는 등 태권도산업은 유치단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태권도산업화를 지원하고 태권도를 진흥시키기 위한 태권도진흥계획('14~'18)에는 국내 외 태권도산업의 현황과 동향분석과 태권도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소비 행태분석, 경제적 부가가치 분석, 등의 시장현황 분석하고 지원하는 사업과 정부의 관련 정책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특히 태권도 용품업, 태권도서비스업, 태권도 시설업의 실태와 통계적 지표와 콘텐츠 산업 및 태권한류 관광 촉진을 위한 다양성과 상품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화 요소들이 고려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 태권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창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태권도 관련 용품과 서비스를 육성한다.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과 제휴하여 업계의 요구와 에 맞춘 국제표준(경기용품 안전표준과 환경표준)을 제정하여 브랜드가치 제고 태권도용품시장에서 저가 저질상품을 퇴출하고 내국산 브랜드의 해외 품질인증과 국제경기연맹 공인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R&D예산과 마케팅예산을 지원하고 태권도산업의 자금줄 모태펀드를 조성 용품회사의 금융여건을 개선하고 이벤트 투자 활성화하여 태권도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태권도글로벌 브랜드회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 펀드가 2015년 400억 규모로 조정될 예정이며, 중국의 체육총국산하 화체 기업집단도 국기원과 공동 브랜드로 용품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협의 중 이다.

2) 태권도 서비스의 다양성과 기능성강화

태권도는 도장중심의 무도, 경기중심의 스포츠로 서비스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

태권도는 해외에서 한국하면 태권도라고 인식될 정도의 세계적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중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수련인구 전체의 90%가 어린이일 정도로 청·중·장년층에서 외면 받고 있다.

이러한 편중된 태권도 수련현상을 극복하고 수련인구의 다양성을 가져 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수련문화 트렌드로 육성하여 태권도장 경영활

성화를 통해 시장 확대와 상품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각 세대별 요구와 트렌드를 고려한 태권도의 실용적 기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 태권도 실용 호신 프로그램 개발
- 태권도 다이어트 프로그램 개발
- 태권도 명상수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
- 태권도 운동처방(클리닉)프로그램 개발

경기부문, 무도부문, 산업부문의 3대 축으로 구분하여 발전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국기원을 '세계태권도 중앙도장'으로 취지를 살려 무도의 본산으로 육성하고 승·품단 심사 등을 이벤트화 하여 상품화하고 경기제도 올림픽 중심의 아마추어와 미디어 중심의 프로 양분하여 소비자의 선택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태권도 콘텐츠 산업 및 관광 산업 강화

태권도는 원소스로 멀티콘텐츠화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문화 자원이다. 애니메이션 로봇 태권 V, 뮤지컬 JUMP 등 성공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단순 스포츠를 넘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높은 브랜드 가치와 문화산업으로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종주국’ 프리미엄을 통해 주도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드라마,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K-pop, 건강서비스, 등 개발할 수 있으며 이와 연계된 다양한 머천다이징 사업을 통해 한류를 선도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많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관 산업으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콘텐츠와 세계적 문화이벤트 개발 등 관광 산업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무주태권도 공원을 거점으로 태권도를 매개체로 해외 태권도를 유치하고 한국의 유적과 자연경관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태권도진흥 기본계획('09~'13) 중

- ▶ 중점추진과제 1 : 태권도 한류 관광 거점시설 확충
 - 태권도 공원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조성(총 사업비 6,009억원)
 - 수도권에 태권도 상설 공연장 건립
- ▶ 중점추진과제 2 : 세계인의 태권도축제 및 관광 상품 개발
 - “태권도의 날(9월4일)”,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를 태권도 분야 대표 축제로 개발
 - 국제 프로태권도 대회(World Series)창설
 - 승품·단 심사를 지역별 명품의례 축제로 개발(주말 전용 경기장 지정)

- ▶ 중점추진과제 2 : 세계인의 태권도축제 및 관광상품 개발
- 태권도 고증을 통한 “문화원형 발굴사업”
 - 태권도 소재 킬러 콘텐츠 개발사업
 - 태권도 응용예술 창작 활성화 사업(뮤지컬, 행위예술 등)

Ⅲ. 결 론

태권도 산업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로서 정부예산이 3천억원 이상 투자된 무주 태권도공원을 중심으로 태권도산업 클러스터(cluster)를 조성하여 관·산·학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 △ 태권도 빅 데이터 구축
(태권도수련 인프라에 대한 개인정보 및 경기 데이터, 콘텐츠)
- △ 태권도행정 및 경기 선진화
- △ IT와 융합한 기술 개발
(시합장비·교육 및 게임 어플리케이션·태권도현황 파악 솔루션)
- △ IOC 정신과 이상추구(스포츠정신·교육·평화·여성·환경 등)
- △ 태권도 다양성과 기능성 수련프로그램 확보
(다이어트, 스트레스관리, 실전성 확보)
- △ 태권도산업 활성화(용품개발·기업과 연계한 관·산·학 클러스트 조성)
- △ 태권도를 원소스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산업
(영화, 드라마, 공연, 애니메이션, 이벤트 등)

등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류사업의 매출액과 태권도산업과의 연계가능성

이동선 ((주)캐치스타 / 대표이사)

요약

1. 한류(韓流)의 의미

- 가.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대중문화의 열풍(네이버 한자 사전)
- 나. かんりゅう[韓流]; 2003년경부터 시작된 일본에서의 한국대중문화의 유행 현상(네이버 일본어 사전)
- 다. 태권도는 위 가, 나의 한류의 의미보다 더 오랜 시간 전부터 한국의 문화를 알린 진정한 한류의 원조

2. 태권도산업의 활성화전략

시대가 바뀌면서 기술과 문화의 흐름이 바뀌듯이 태권도산업에도 변화가 필요

가. 태권도산업의 활성화 전략1

태권도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

- ① 전문가 ② 새로운 서비스 ③ 스타와 팬

나. 태권도산업의 활성화 전략2

태권도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

- ① 전 세계 태권도인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마케팅전략인가?
- ② 태권도인이 인정할 수 있고, 태권도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는가?
- ③ 기존에 그냥 계속 해오던 것은 아닌가? 효율적이 아니라,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인가?

3. 태권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마케팅 전략

가. 검도의 성공 사례

나. 태권도의 실패 사례

다. PPL(Product Placement)의 성공과 실패 사례



한류사업의 매출액과 태권도산업과의 연계가능성

2014.11.29. 土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제1장

K-POP의 인기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해외 공연 평균티켓 가격: 15만원
1장소 해외 공연 평균 입장객수: 12만명
1회 공연 평균 매출 = 30억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해외 공연 평균티켓 가격: 12만원
1장소 해외 공연 평균 입장객수: 5만명
1회 공연 평균 매출 = 15억~20억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티켓 1,280元 = 약23만원



출처: <http://gamsungit.com/50139027690>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중국 상해; 슈퍼주니어 콘서트

출처: <http://gamsungit.com/50139027690>



일본 나고야; 빅뱅 콘서트

출처: <http://blog.naver.com/ledella/140202798611>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출처: <http://girlsgeneration.smtow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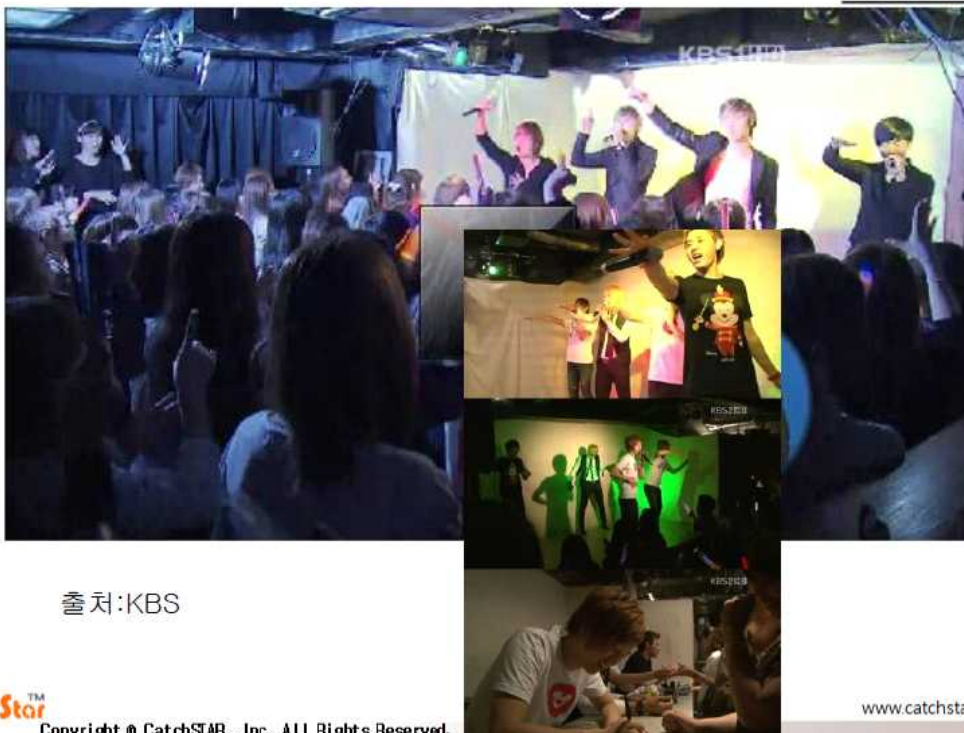


출처: <http://kara.dspmedia.co.kr/>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출처: KBS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제2장

K-POP/한류의 인기로 이미 성공한 사업과 국내외에서 성공할 사업 전망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www.catchstar.com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http://blog.naver.com/1212rkdud/22007428461>
www.catchstar.com

食

'14.10월, 농식품 수출액은 51.3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

출처: <http://www.korea.kr/policy/>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酒

2011년 5,274만달러 막걸리 수출

출처: <http://biz.newdaily.co.kr/news> :2014년 10월21일 기사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美 · 衣

늘어나는 화장품 수출
(단위:억달러)



출처: <http://quaestio777.blog.me/100210753930>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氣

3장

한류(韓流)의 흐름

韓流 1.0



출처:KBS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2004년 8개월 동안 매출 = 500억원 이상

2004년 DVD 매출 = 700억원 이상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출처:SBS : 천국의 계단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2005년 매출= 약 80억원~120억원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韓流 2.0



출처: MBC : 대장금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13일 동안 입장객 수 = 약 8만명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13일 동안 부가상품판매액 = 약 20억원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韓流 3.0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韓流 3.5~4.0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제4장

한류와 태권도산업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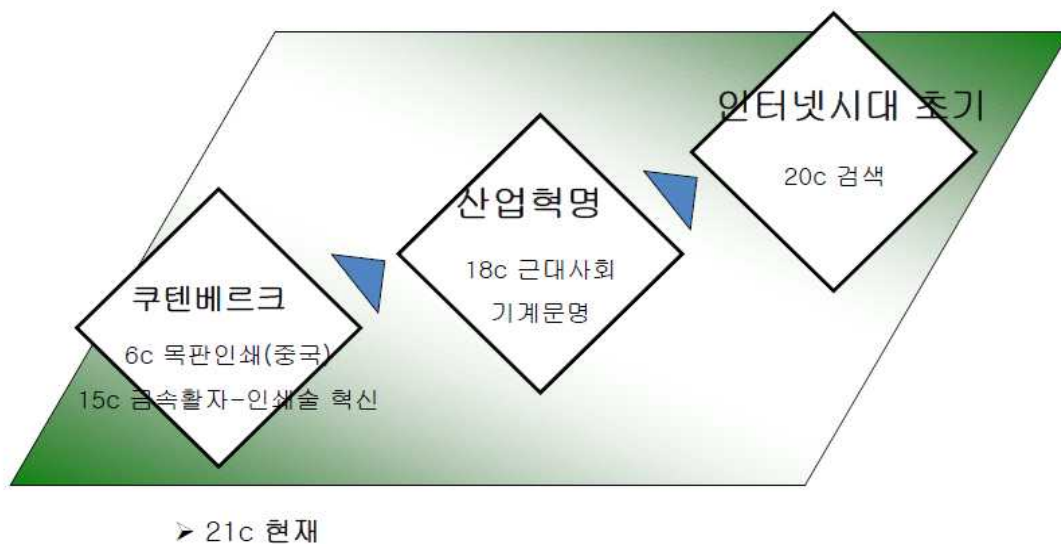
www.catchstar.com

跆拳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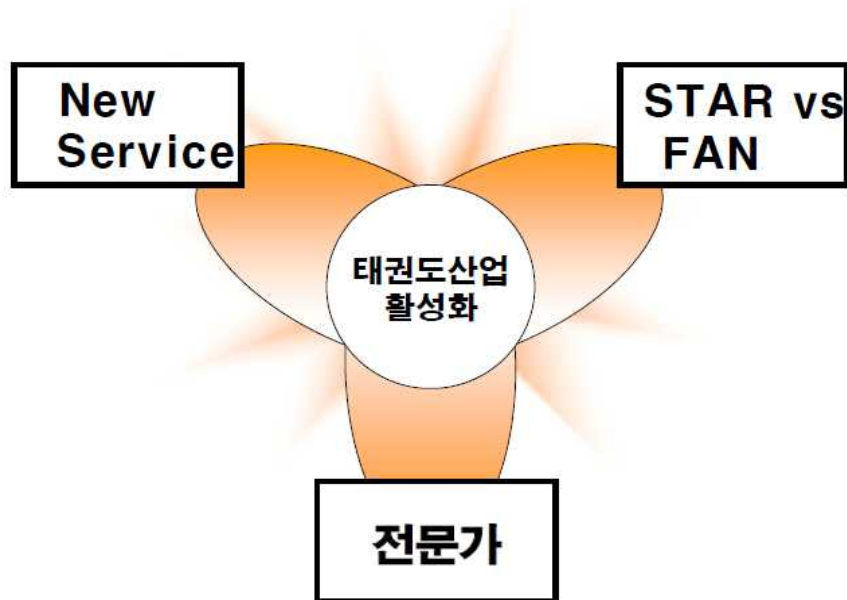
=

韓流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접근전략



태권도산업의 활성화 전략1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STAR란?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스타의 팬 이란?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중국 CF 모델료는 15억~20억원

출처: http://baekn.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Id=27718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비 중국 드라마 ‘다이아몬드 러버’에 60억원의 출연료를 받고 출연한다. ‘다이아몬드 러버’가 40부작이기에 비가 받는 회당 출연료는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출처: http://baekn.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lId=27718



사진출처: KBS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시청률 : 23.1%

출처: KBS

남자 주인공: 박수하역 이종석

출처:
http://wstar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7&c1=07&c2=07&c3=00&nkey=201306121655011&mode=sub_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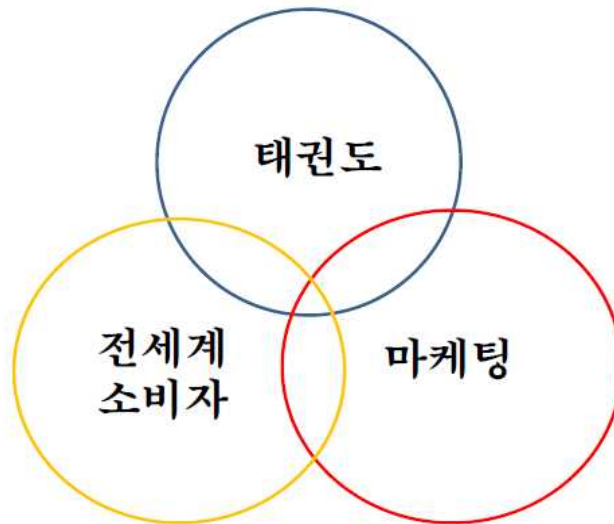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태권도산업의 활성화 전략2



Copyright © CatchSTAR, Inc. All Rights Reserved.

www.catchstar.com

감사합니다

(주)캐치스타 대표이사 이동선

supat@catchstar.com
supat@naver.com

7

포럼 자문 내용

태권도 산업 콘텐츠 활성화 방안 포럼

이승환

토론의 진행형식이나, 토론 및 참가자 구성에 대하여.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세대 및 직업 군의 전문가가 모여서 토론이 이루어 지는 것이 인상 깊었음.

연령별로는 20대부터 70대까지 직업은 학생부터, 산업계, 정부관계자, 교수, 일선 지도자 등 이 모여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서로의 입장에서 시각을 살필 수 있어서 좋았음

모임에서 다뤄진 주제들은 태권도 산업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주제였으나, 다양한 시각에서 해당 주제들을 바라보는 의견이 좋았고, 그것이 작은 공간에서 모인 사람들만의 의견과 공유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쉬움이 있었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는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런 밀도 있는 적은 인원의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거침없이 개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소수의 밀도 있는 토론 방식은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음에도, 모인 사람들만의 이야기로 그치는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밀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되, 방송이나 미디어 퍼블리싱을 통해 밀도 있는 내용을 많은 태권도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토론의 내용에 대하여.

태권도 산업관련 시장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부측에서 태권도를 지원하기 전에 태권도의 근본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재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많은 공감이 됨.

태권도와 한류의 비교 분석을 통한 태권도의 발전 전략의 주제도 한류의 성공 방식을 태권도에 접목해 볼 수 있는 방법론적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음.

8

포럼 세부 내용

김창섭 : 두 분 발표자들의 발제가 역대 가장 좋았습니다. 전문가다웠습니다. 표광종 사무관께서 정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이런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표광종 : 태권도의 정의? 범위를 키웠을 때 어디까지? 스포츠인지, 무도 인지의 부분 또는 태권도 산업을 위해선 먼저 태권도부터 정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태권도를 정의하고 있습니까?

최상환 : 학자들마다 다른 정의를 하였습니다.

김영선 : 태권도는 맨몸으로 상대방의 급소를 가격하는 맨손무예스포츠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 모든 학문의 끝은 철학입니다. 모든 철학이 종교, 정신까지 포함을 합니다. 예술, 법, 태권도의 철학이 궁극적으로 같습니다. 태권도의 방향이 싸움으로 시작해서 움직임 춤, 명상이 융합이 되어서, 행복과 건강의 추구가 목표점 입니다.

표광종 : 룰이 정해져있어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화가 되기 이전의 태권도, 무도에는 룰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도로서의 영역,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철학, 콘텐츠로서의 현상들 이것을 어떻게 범위를 잡아야 하는지 여쭙보는 겁니다.

김창섭 : 예전까지는 무술, 지금은 무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곽기욱 : 예전엔 태권도 철학은 참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행동철학입니다. 태권도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사범이 오랜 시간 얘기하는 것들을 새겨들으면 바뀌는 것. 시작은 기능의 발달, 과정에서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상대방이 약해보이고 고단자가 되면 스스로 용서 해주게 됩니다. 그런 것이 태권도의 철학입니다.

오춘성 : 태권도는 삶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기위한 교육수단. 손과 발은 사람의 행위를 표현. 삶속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게 융합. 태권도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태권도이고 그런 것이 산업화의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돈 : 태권도 정의의 관점에 따라 정의를 다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태권도라는 기술을 가지고 정의와 문화적인 개념은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의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책의 일환입니다.

표광종 : 기술, 정신, 산업으로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춘성 : 태권도는 멀티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소스로는 최고입니다. 지금의 태권도는 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원천 기술의 학문적 정립이 아직 미흡합니다. 정부에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국기원이 태권도 철학 정립 및 교육적 방향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광종 : 몸을 수련한다는 영역도 큼니다. 태권도가 어디까지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의 몸의 수련을 태권도가 담을 수 있느냐. 시장에 있는 것을 태권도가

- 답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영역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춘성 : 모든 것은 바뀝니다. 태권도는 아직 원천을 확보하지 못했고 확보가 된 후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시대별로 태권도는 응용되었습니다. 기틀이 마련이 되어야 다양한 변화가 시도됩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는 원천기술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표광중 : 무엇이 원천 이느냐. 태권도는 발전해야 하지만, 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국기원에서 정의를 해줘야 한다. 현재는 같은 태권도에서 각자 다른 말을 합니다. 태권도를 맨몸무예로 정의하면 다른 무술도 포함, 어디까지 정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원 : 이슈가 산업 콘텐츠 활성화방안입니다. 이미 양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산업으로 갈 이유가 있나? 결국 부를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태권도의 산업화는 정체성을 상실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산업을 키워야 한다면 무도적인 차원에서 우리만의 색깔로 산업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태권도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선도장들이 더 이상 산업화로 가면 태권도의 정체성이 상실 될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양적 성장을 하였습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태권도는 우리 것입니다.
- 오춘성 : 산업화, 상업화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산업화는 다양성을 확보. 태권도 산업화는 순기능을 통해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도장은 상업화부분입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자질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기원의 정립이 잘 못 된 것입니다. 국제 표준을 만들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원형이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화는 태권도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슈, 가라데는 이미 태권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환 : 태권도는 정신을 강조합니다. 기초단계의 태권도 정의가 나온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태권도의 특징입니다. 신체단련은 모든 무술입니다. 정신수양, 기함양이 빠지면 태권도는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스포츠가 되어야 합니다.
- 박광범 : 젊은 사람의 시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태권도 동작이 페이스북에서 100만 명이 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기본동작이었을 때가 아니라, 교본에 없는 것들을 시범보일 때입니다. 교육방식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십 년이 이어져왔습니다. 요즘은 실전격투에서 응용을 하기 시작. 태권도의 다양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 무도가 아닌, 더욱 많은 세대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선 : 같은 태권도를 해도 다른 목적으로 수련을 한다는 것이 태권도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표광중 : 태권도가 스포츠화 되어 좋은 것은 우리가 선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수련한다 라고 정의를 하면 더 많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

는 것 같습니다. 타 무술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다음 관심은 유통망인데, 태권도지도자간의 연계 구축 방법, 산업적으로 유의미한 커뮤니티, 태권도의 범위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선 : 이소룡의 절권도를 몰라도 쌍절곤을 삽니다. 태권도화, 호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녹아들지 않아서입니다. 태권도가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결과를 보여주고 원인이 가야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태권도를 배움으로써 실전에 사용이 된다 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태권도 콘텐츠가 녹아들어야합니다.

신명희 : 대중은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태권도 관련 책이나 영화를 찾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태권도장을 성인화 시켜야 한다. 이는 지도자의 가치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광종 : 태권도의 지속적 노출이 결여되어서 그렇습니다. 태권도를 통한 드라마 등의 제작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선 : 태권도만의 영화를 만들면 스토리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대중문화에 태권도를 녹여야 합니다. 또한 제작지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돈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다른데, 그것을 국기원이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드라마, 쇼프로, 등에 녹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지훈 : 정부에서 지원하고 국기원을 통해 만들어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표광종 : 태권도 영화를 만들 것이냐? 제작지원을 할 것이냐를 고민 하는 중입니다.

이동선 : 한류의 메인 멤버가 태권도를 하는 것이 파급 효과가 큼니다. 다른 경우, 지자체가 홍보를 하기 위해 삽입을 하는데 엉망입니다. PPL의 원칙중 하나는 같은 브랜드를 두 개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작사의 욕심에 문체부가 당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업체는 일일이 대본을 체크 합니다. 그런 식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원 : 성공사례를 보니 흥분이 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승환 : 태권도가 짧은 시간에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은 이유는 포용성과 창의성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하면 다른 무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구조, 홍보 마케팅의 문제. 두 개는 병립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구조가 되어있지 않았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동아리 등 생활체육대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관에서 해줄 일인 것 같습니다.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바꿔 가르쳐야 합니다. 산업이 되려면 성인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빠져있습니다. 지금 태권도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성인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태권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도방법, 성인 관리, 상담능력, 회계, 마케팅홍보 지도자교육을 산업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풀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시장에 자극을 줌으로써 지도자의 생각과 개념을 확장 시켜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대중으로의 흡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지훈 :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올해는 정리가 되었고, 내년에 새롭게 포럼을 개최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돈 : 태권도 산업을 논함에 있어서 너무 도장에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태권도 산업, 용품 시설, 서비스, 용품 유통, 시설 건설, 서비스 도장운영, 아마추어 태권도업, 태권도 이벤트 업, 단체 및 동호회 운영업, 콘텐츠 업, 태권도 관광업, 인력 양성업 이 모든 것을 아우를 때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창섭 : 태권도는 손과 발을 사용하는 몸짓을 통하여 심신이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며 포럼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최상환 : 장시간 열의 있는 토론 감사합니다.

2014 태권도 월례학술포럼

2014년 12월 26일 발 행

발 행 처 : 국 기 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홈 페이지 : <http://www.kukkiwon.or.kr>

: <http://research.kukkiwon.or.kr>

전 화 : 02) 553-5651

F A X : 02) 3469-0189

E - m a i l : research@kukkiwon.or.kr

이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은 국기원에 있으며, 국기원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제7조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